나무와 고인이 하나되어
자연과 함께… 수목장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 수림원 032.937.0125

현대불교

buddhanews.com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9월 20일(음력 윤 7월 28일) 수요일 (주간) 제 596 호

신상품 LED인등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법적 근거없는 명예·전문 포교사

괜·찮·나?

"좋은 취지 무색한 행정 빨리 시정돼야"

지난 9월 3일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 제11회 포교사 품수식. 이날 425명의 조계종 신규포교사와 또 다른 포교사들이 탄생했다. 3명의 '명예전문포교사'와 24명의 '명예포교사'.

사회복지(권대자), 불교문화해설(권중서), 신행지도(김창엽)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활동해 온 포교사들이 명예전문포교사 자격을 품수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전신인 학사불자회를 창립한 후 현재까지 포교 현장에서 뛰고 있는 대불련 출신 24명에게도 명예포교사 자격증이 수여됐다. 종단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조계종 포교원이 마련한 '전문포교사 선발 및 관리령(안)'에 따르면, '전문포교사'란 특정 포교분야에서 전문성이 인정돼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자격을 획득한 자를 일컫는다. 즉 포교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반포교사 중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주는 것이다.

이에 비해 '명예포교사'는 일반포교사 자격이 없더라도 오랫동안 포교 관련 활동을 해 온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명예직이다.

1998년 포교원이 마련한 '명예포교사 시행세칙(안)'에 따르면, 명예포교사는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포교활동에 종사했거나 △불교신행단체 지도경력 10년 이상 △불교 전문서적을 3권 이상 출간했거나 불교관련 논문 10편 이상을 학술권위지에 발표 △국위를 선양한 불자체육인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전문포교사나 명예포교사 모두 법적인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없다. 전문포교사의 경우 포교법 제37조 '포교사는 일반포교사와 전문포교사로 구분한다'는 문장 하나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이다. 명예포교사는 종법령에 단어조차 없다.

전문포교사 선발 및 관리령(안)은 지난 1월 입법예고했지만 선발 기준에 논란이 있어 최근에서야 포교원의 입장을 정리하고 기획실로 안을 넘겼다. 명예포교사 또한 98년 당시 자격증 남발을 우려해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제11회 포교사 품수식에서 전문포교사 앞에 '명예'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 조계종 기획실측은 "영이 관련 기관에 계류돼 있는 것만으로도 품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유추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전문포교사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포교가 활성화될 뿐 아니라 포교대상에 따른 '맞춤포교'가 가능해져 보다 깊이 있고 자연스러운 포교가 이뤄질 전망이다. 명예포교사 제도 또한 불교계 내외의 저명인사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전문포교사 및 명예포교사 제도를 정착·활성화하기 위해선 먼저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일이 선행돼야 선발 및 운영, 관리가 가능해지고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포교사 제도는 전문포교사 선발 및 관리령(안)이 종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명예포교사 제도 또한 기획실에 계류돼 있는 '종단 각종 자격직 선발 및 관리에 관한 령'에 의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영에는 명예포교사를 비롯해 선(禪)포교사, 어린이·청소년지도사 등 종단 각종 자격직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명예포교사 선발 및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세칙들은 따로 준비돼야 한다.

조계종 기획실의 한 관계자는 "큰 틀에서 전문포교사 선발 및 관리령과 종단 각종 자격직 선발 및 관리에 관한 령 필요성에 동감한다"며 "자구 수정이나 다른 종법령과 충돌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종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거센 '동북공정' 속 고대 불교사 연구 현주소는?

학회 전무, 고구려 역사 뺏길 지경

남북한·중 연계 연구로 '논리' 개발을

한국고대사는 물론 불교사까지도 왜곡하는 중국의 '동북공정'이 또 다시 고개를 치켜들고 있다. 이에 대해 NGO단체들과 고구려연구회 등 재야 학술단체들은 항의집회는 물론 '평가와 대응 방안'을 내놓기 위한 학술대회가 한창이지만 불교계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고구려사는 고구려의 광활한 영토는 물론 그 정신과 문화까지도 고조선과 부여를 계승하고 다시 그 맥을 발해에 잇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사를 잃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불교사적 측면에서의 문제도 심각하다. 고구려는 삼국 최초로 불교를 받아들여 백제와 불교 그리고 일본에게까지 전해주었다. 때문에 고구려사를 빼앗기면 불교의 초전성지(길림성 집안시에 소재한 성문사, 이불란사)등 찬란한 불교역사와 문화가 모두 남의 것이 되고 만다.

하지만 불교계는 이와 관련해 '학술단체의 부재'와 동북공정의 심각성에 대한 종단의 마인드 부족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포대 최연식 교수는 "고구려와 발해에 대한 역사적 사료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 분야를 연구하는 불교계 학술단체는 하나도 없으며 그나마 관련 학자도 2~3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재 고구려와 발해 불교에 대한 연구 분야는, 사상사적인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불상, 벽화 등 불교 미술사적인 부분만 간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동북공정의 고대불교사 왜곡에 대한 연구 논문은 작년에 발표된 충남대 사학과 정선여씨의 '고구려 불교사 연구'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 논문 역시 고구려 불교의 사상적 연구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기존 불교사료(삼국사기, 일본서기 등)를 바탕으로 한 교단운영 체제와 한중일 삼국의 불교 교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동북공정에 따른 한국사와 불교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뭘까. 역사학자들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 △한국·북한·중국의 역사학자들과 연계한 연구 활동 등을 제시한다.

단국대 서영수 교수는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중국이 조사했던 역사적 자료에 대한 검토와 해석부분인 학문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고구려 테마파크 유치, 고구려 박물관 건립, 관련 서적 홍보 등 사회적 대응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와 같은 연구방법이나 국경이론을 가지고는 아무리 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며 "이와 관련된 데이터의 양보다는 중국에서 내 놓는 '통일적다민족국가론'과 같은 논리에 대항할 수 있는 한국 나름의 논리 개발도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인각사 상인 스님 성명 발표

<삼국유사> 집필지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이 9월 13일 '국민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응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스님은 성명서를 통해 "정치, 학계, 언론, 종교, 지방자치단체는 중국의 만행에 가까운 역사왜곡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는 일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배지선 기자**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논산 영주사 조실 풍운 스님



도반의 향기 17면
군법당의 '어머니' 박미영 회장

시방세계 9면
제6회 전국불교음악제

장애인, 문화 생산자로… 4면
오후불식 어떤 도움? 18면
제다명인을 찾아서 26면
부산영화제 불교영화 28면



새 옷 입으신 법주사 부처님들

속리산 법주사 대웅보전의 삼불좌상(삼존불·보물 1360호)이 40년만에 새 옷으로 갈아 입었다. 법주사(주지 도공)는 지난 5월부터 진행한 개금불사를 9월 12일 회향했다. 1624년에 흙으로 조성된 법주사 삼존불은 그 소재의 희귀성과 더불어 원만한 상호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 개금불사 회향을 맞아 법주사는 복장불사·보살계수계·10만등 점등 등의 행사를 봉행했다. **관련기사 7면**

사진제공=법주사

제12회 신행수기 공모
▸원고지 30매…12월 16일 마감
▸접수 이메일: bypark@buddhapia.com
▸전화문의: (02)2004-8241

'삼국유사' 중국어로 번역

상명대 권석환 교수, 연말 북경서 출간

최근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한 한국 고대사의 역사왜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단군을 고조선의 국조로 제시한 <삼국유사>가 중국어로 번역돼 화제다.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을 받아 2년간 번역작업을 진행해온 상명대 중국어과 권석환 교수가 9월 13일 삼국유사 집필지인 인각사를 참배한 뒤 중국어로 번역한 초고본을 공개했다. 권석환 교수는 "<삼국유사>는 우리 고대사를 중국과 대등하게 서술하고 있다"며 "중국의 동북공정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로 삼기위해 <삼국유사>가 갖는 의미를 뒷부분에 삽입했다"고 밝혔다.

권 교수가 번역한 <삼국유사> 중국어판은 연말에 북경 인민출판사(예정)에서 출간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의룡스님
육조단경/9월 23일
봉선사 설법전, 031)527-1951~3

樹木葬 수목장

천년의 세월을 지켜온 나무처럼…
영원토록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목장은 나무와 고인이 하나되어
자연과 함께하는 가장 아름다운 장묘법입니다.

사람은 사대四大(지地, 수水, 화火, 풍風)와 오온五蘊(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으로 이루어진 한시적인 생명체이며, 죽음은 이것이 각각 흩어져 자연으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수목장은 자연장의 취지를 잘 구현하면서도 추모할 구체적인 대상이 존재하므로 한국 전통의 장묘문화를 가장 잘 계승한 장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창건된 지 1천6백년, 부처님의 가르침과 위신력을 통하여 국운의 융창과 국민의 행복, 조상들의 명복을 위하여 단 하루도 스님들의 염불과 목탁 소리가 끊이지 않은 지장성지 전등사 수림원에 선망 부모와 형제자매 등 인연 있는 영혼들을 모신다면 반드시 천당과 극락에 태어나서 영원한 해탈의 즐거움을 누릴 것이며, 후손들은 이생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다음 생에서는 극락왕생할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 삼.랑.성



전등사 수림원
032.937.0125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
www.jeondeunsa.org

“조계종, 도심포교 안 하면

10년 후 껍데기만 … ”

김응철 교수, 지난 10년 종교인구 등 분석결과 발표 ‘충격’

화엄회 종책 세미나서



화엄회는 종책모임으로는 처음으로 9월 14일 종책 토론회를 열고 종교인구변화에 따른 종단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지금처럼 조계종이 교세 위축을 그대로 방치하면 10년 후 불교는 껍데기만 남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는 9월 14일 ‘한국불교 미래를 준비한다’를 주제로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화엄회(회장 성직) 종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교수는 특히 향후 10년 동안 불교인구의 감소를 예견하며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날 ‘한국불교 포교현황 분석과 진단’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응철 교수는 1995~2005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한 <화엄회 종책 자료집Ⅱ>을 통해 불교계가 “도심 거점 포교당을 전략적으로 확보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종교인구에 대한 본격적인 통계조사가 시작된 1985년 자료를 포함한 통계청 조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령별 · 지역별 종교인구를 교차분석한 결과 10년 후 종교지형의 변화를 예측한다면 불교계는 그렇게 낙관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향후 100여개 이상의 도심포교사찰이 성공을 거둘 수 있어야 조계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화엄회 종책 자료집Ⅱ>에서 용주사 범어사 봉선사 등 교구본사 주변의 도시화가 가속화 되면서, 이들도 도심 사찰화 되어가고 있는 만큼, 도심포교를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성도 거론했다.

특히 강화군(불교 인구 16.7%)의 경우 전등사 보문사 같은 유수한 사찰이 관광사찰로 전락하면서 지역과 단절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유명 교구본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조계종은 수도권을 비롯한 신흥도심지역에 도심포교사찰을 만드는 것은 물론, 각 교구본사별로 도심에 포교당 건립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런 곳에 종단의 역량 있는 스님들을 집중적으로 파견해 다양한 성공사례가 만들어져야 불교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여한 화엄회 간사 덕문 스님은 “지역 불교계 단체들도 전략적 컨소시엄을 구축해 도심포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관태 사찰경영컨설팅 ‘살림’ 대표도 “불교가 우리사회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념과 철학의 제시가 필요하다”며 불교의 사회적 지도력을 확보를 강조했다.

또 “본사급 사찰이 포교위원회와 지역포교위원회를 조직해 포교기초를 탄탄히 해야 한다”고 말하고 “사하촌에서부터 정신적 문화적 경제적 기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상징이 될 지역의 대표사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화엄회가 조계종 13대 중앙종회 종책모임 최초로 실질적 포교 종책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화엄회 종책 자료집Ⅱ>은 전국 지자체 230여 곳의 1995~2005년 동안 연령별 · 지역별 종교 인구의 변화를 분석해, 일선 포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남다르다. 02)515-9351

글 · 사진=조용수 기자



“조선왕실 의궤도 반환하라”

<조선왕조실록> 반환의 일등공신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가 이번에는 ‘조선왕실의궤’ 찾기에 나선다.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공동대표 정념 · 철안 · 김원웅,)는 9월 14일 광화문에서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일본 대사관을 방문해 의궤반환요청서와 성명서를 전달했다.

글=노병철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선거 10월 26일

10월 18일까지 후보 등록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는 9월 15일 제60차 회의를 열고 제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일정을 10월 26일로 확정했다. 종회의원 후보 등록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이며, 후보 자격 심사는 10월 20일이다. 직능대표 종회의원 선출은 10월 23일 오후 2시며, 교구선거인단 확정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23일 3시에 열린다.

한편, 이날 선관위회의에서는 제16교구 고운사 주지후보 호성스님의 자격을 심사하고 선거인단을 65명으로 확정했다. 또 21일로 예정됐던 관음사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공고가 늦어져 무효 처리하고, 일정 재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조용수 기자

국제포교사 고시 11월 12일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불법을 전할 조계종 국제포교사 선발 고시가 11월 12일 오후 1시 치러진다. 선발 고시는 영어 분야를 대상으로, 1차 서류전형과 2차 필기시험 및 면접으로 이뤄진다.

필기시험 과목은 △불교교리 △불교역사 △불교문화 △한국불교의 특징 △포교방법론 △일반상식 등. 단답형, 논술형으로 해당 응시언어로 출제된다.

면접에서는 해당언어 어학능력 구두평가와 의식집전능력, 포교사로서 기본소양을 점검한다. 02)2011-1895, buddhism.or.kr

남동우 기자

백양사 새주지 후보 성오스님



고불총림 백양사는 9월 11일 향전적에서 임회를 열고 신임주지후보로 성오(광주 마하보리사 회주 · 사진)스님을 추천했다. 신임주지후보 성오 스님은 1959년 백양사에서 장조 스님을 은사로 출가, 69년 서옹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주 심향사 주지와 조계종 11, 12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광주 광산구 불교사암련회장을 맡고 있다.

이준엽 기자

‘불가피한 사유’ 봐주려다

‘특정인 의식’ 등 맹비난 자초

조계종 중앙종회 ‘종무원법’ 개정 … 일파만파

재개정 요구 거세, 재가연대 22일 긴급간담회

조계종 13대 마지막 종회였던 171회 중앙종회 본회의에서 개정된 3개 법안에 대한 비난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종헌종법제개정기초위원회(위원장 향적)가 제시한 개정원안 제6조 1항의 7호에는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종무원 임용을 막았지만, 본회의에서는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거나 복권되지 아니한 자’로 그 내용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애초 기초위가 종무원법 개정에 나선 것은 그동안 종단개혁, 민주화 운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종무직 진출이 불가능 했던 스님들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제6조 1항에 단서조항 ‘다만 제7호 내지 제9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헌 종법에 따른 종무행정 행위 또는 사찰불사, 수행환경 보존 및 개선, 민주화, 환경보호, 통일, 사회정의를 위한 행위가 원인이 되었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삽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앙종회는 엉뚱하게 1항 7호의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종무원 취임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까지 덩달아 수정해 이 같은 비난을 자초했다.

특히, 조계종 일부 소장파 스님들은 이번 종무원법 개정이 “범죄 경력이 있는 특정인물의 중앙종무직 진출을 염두에 둔 의도적 개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제6조 1항 7호 수정통과의 고의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 6조 1항의 단서조항에 기초위안에는 없었던 ‘사찰불사’라는 단어가 삽입된 것도 문제다. 불사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 국고보조금 횡령, 과도한 불사로 인한 문화재 훼손, 사설사암 미등록 전매 등의 행위도 모두 불사로 인한 행위라고 우기면 종무원 취임에 문제가 없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개정된 종무원법에 따라 종회의원선거법이 개정된 것이다. 선출직종무원 신분인 중앙종회의원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데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거나 복권된 자’라면 얼마든지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은 또 다른 시비를 낳을 수 있다.

‘승가고시법’은 ‘다’목 ‘~교구본사주지가 임명하거나 추천한 직에서 4년 이상 종사한자’를 신설하려 했던 기초위의 의도와는 달리 임명권한이 말사주지까지로 확대해 문제가 되고 있다.

1995년 출가자들이 승랍 10년이 되는 해부터 적용될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전문교육 기관(승가대학원 등) 수료나 선원 4안거 성만, 박사학위 이수 등으로 제한한 것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사실상 교육원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말사의 소임을 검증할 방법이 없는데다, 3급 승가고시 자격요건 때문에 젊은 스님들이 본말사 주지들에게 예속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참여불교재가연대는 9월 22일 오후 7시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이번 조계종 중앙종회 종법개정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광우 스님 ‘아름다운 후원’ 화제 … 복지시설 · 가사불사 · 선원에 희사

비구니계 원로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서울 정각사 주지 광우 스님(前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 사진 오른쪽)이 잇따른 보시로 화제가 되고 있다.

9월 14일 광우 스님은 일산노인종합복지관(사진) 등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등 5곳에 후원금 1000만원 을 기탁했다. 이에 앞서 8월 말 동국대와 중앙승가대학에 각 1000만원을 전달했다. 조계종 총무원에도 수해성금 1000만원을 전했고 통일가사불사, 문경 봉암사선원 등에도 각 1000만원을 보시했다. 광우 스님은 세수 80을 넘긴 고령에도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가장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매년 형편이 어려운 학인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이은비 기자

승니 / 포교사 신분증 갱신 및 제적공고

1. 당 종단 소속 승니 및 포교사 중 정관 제6조, 7조 및 종헌 제18조, 종법 제3조 규정에 의한 회원, 의무위반자, 회원자격 미달자를 **2006년 8월 1일**부로 제적 처리합니다.

2. 제적자 현황(총 62명)

가. 마산 창원지역 (5명)
이선이(보현), 신명자(금련), 문금순(보림), 송정항(법해), 윤복순(대림)

나. 부산지역 (6명)
송차돌(춘광), 최진묵(용산), 엄대흠(능행), 차용자(청정), 김봉순(구품), 강수영(도우)

다. 울산지역 (14명)
변영기(정각), 장남식(성도), 이말숙(수련), 남영미(혜련), 김정순(자원), 고삼순(덕행), 유점순(정행), 박경영(무상), 유도선(자일), 김귀녀(주련), 김재순(공덕), 최판순(법계), 이종효(효림), 김형봉(원력)

라. 대구지역 (29명)
정정기(행원), 정문희(만행), 심순자(일행), 심해숙(법행), 황정희(덕불). 전상업(광불), 이옥화(선유), 유병곤(위덕), 김순자(원경), 홍덕순(덕암), 최인숙(덕상), 원정선(벽암), 허종순(덕유), 이규자(범성), 박미희(용수), 이홍규(대륜), 한미애(보리), 신형갑(혜행), 홍정숙(청공), 신옥순(정수), 예종임(범행), 노성순(대승), 김기천(일달), 전운포(도문), 유재문(운산), 최점순(연일), 김선숙(련화), 이경선(화목), 김순례(대명)

마. 하동지역 (1명) - 오옥자(청심행)

바. 경산지역 (7명)
이갑생(성희), 노정숙(정혜), 서순정(위락), 이순선(봉산), 정현득(대각), 최해자(덕수), 박흥식(화엄)

3. 당 종단에서 제적된 분은 당 종단에서 발행한 승려증, 포교사증, 사원등록증, 주지임명장 등 제증명서는 2006년 8월 1일부로 그 효력이 자동 상실되었으므로 일체 대 내 · 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신분증 갱신

가. 당 종단 소속 승니 및 포교사 신분증, 사원등록증 등 제 증명서를 2006년 8월 1일부로 신양식에 의하여 일괄 갱신합니다.

나. 2006년 8월 1일 이전 발급된 신분증, 사원등록증 등은 그 효력이 상실되어 일체 대 내 · 외 사용을 금합니다. (사업자등록, 기부금영주증발급, 신분제시 등)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일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총무원 총무원장 박자인 정화위원장 김대력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578번지 ☎ 055)672-4394

종립학교 '제2의 창학' 부푼 꿈

금정中 100주년, 보문·광동·정광中 60주년
타임캡슐·문집발간·축제 등 기념 행사 만발

반세기를 훌쩍 넘긴 불교계 종립학교들이 건학정신을 되새기는 다양한 개교기념 행사를 여는 등 '제2의 창학'에 한창이다.

이 종립학교들은 운허, 만암 등 근대의 큰스님과 선각자 스님들이 해방 이후 세운 학교들이다. 당시 '인재가 없어 나라를 빼앗겼다'는 뼈아픈 자성으로 뿌린 씨앗들이 이제 열매를 맺은 셈이다.

불교계 종립학교 중 가장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진 부산 **금정중**학교(교장 현익채)는 10월 20일 오전 10시 운동장에서 개교 100주년을 맞아 성대한 기념행사를 연다.

21일 오후 3시에는 KBS부산홀에서 금정100년을 축하하는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고, 행사기간 동안에는 교내에 각종 전시회와 교내행사를 마련한다. 이에 앞서 15일에는 금정산을 오르는 '100주년 기념 등반대회'가 열린다.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한반도를 향해 노골적인 마수를 뻗치던 1906년, 신학문의 중요성을 깨달은 범어사 스님들이 힘을 모아 '명정학교'로 첫 발을 내딛었던 금정중은, 이후 나라가 흥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민족정신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펼쳐왔다.

지난 1946년 9월 25일 개교한 대전 **보문중**학교(교장 윤여진)는 9월 21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개교60주년 기념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계사는 보문학교 이사장 덕해 스님.

1946년 대강백 운허 스님의 촉구에 따라 봉선사 봉영사 수국사 현등사 흥룡사 등의 사찰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남양주 **광동중**학교(교장 이학송)도 올해 60주년을 맞는다. 광동중은 10월 중 총동문회를 개최하고 개교100주년에 개봉할 타임캡슐을 묻는 '기념행사'를 봉행한다. 또 설립자 운허 스님의 기일을 추모해 11월 30일 기념문집과 <광동60년사>를 발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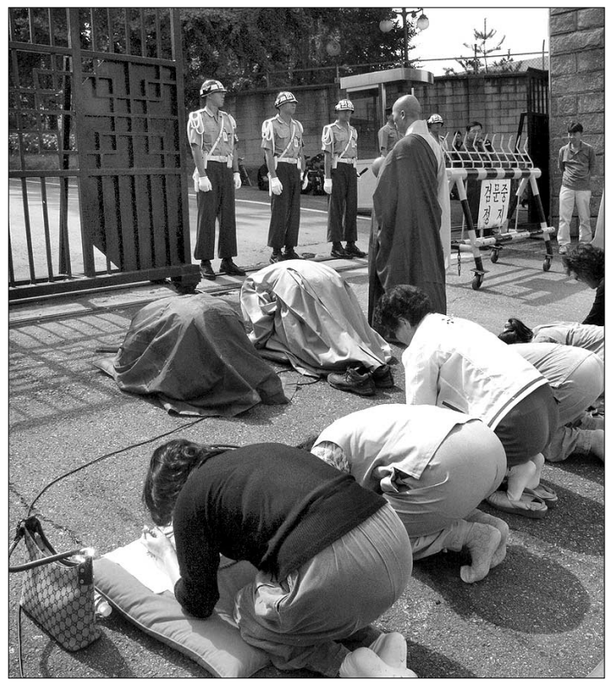
광주 **정광중**학교(교장 강춘식)도 10월 14일 개교60주년 기념행사와 백일장, 그리고 총동문회를 연다.

정광중은 만암 스님의 제안으로 백양사 송광사 화엄사 대흥사 선암사 등 5개 학교가 교육 불사에 동참해 설립된 학교.

또 4월 8일 기념행사를 봉행한 부산 **해동중**학교(교장 손태석)도 10월 20일 체육대회와 함께 60주년을 회고하는 행사를 펼친다.

광동중 이학송 교장은 "당시 스님들은 나라와 미래의 동량을 세우기 위해 전답을 팔아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힘쓰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며 "민족정신을 살리기 위한 큰스님들의 정신이 오늘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용주사 비상대책위원회가 9월 14일 국방부 정문 앞에서 '골프연습장 철거'를 주장하며 108배 참회를 하고 있다.

'불교관계법 개선' 포럼
이해봉 국회정각회장 초청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은 9월 29일 오전 7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관계법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두 번째 정책포럼을 연다.

정책포럼은 허경만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봉 국회 정각회장의 강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100명 선착순이며 동참금 2만원. (02)735-2428

정책포럼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으로 불교와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남동우 기자

디지털 문화콘텐츠 공모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제3회 불교문화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해 열렸던 '제2회 불교 플래시 애니메이션 공모전'의 3회차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플래시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만화, 캐릭터, 일러스트(극화) 등 응모부문을 늘렸다. 주제 또한 자유주제와 지정주제로 범위를 확대했다. 지정주제는 일연 스님 탄생 800주년을 맞아 '일연 스님과 삼국유사'로 정해졌다.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인터넷(www.koreatemple.net)이나 우편(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문화콘텐츠팀), 방문 접수하면 된다. (02)2011-1855~6

남동우 기자

리움박물관서 1000명 친견법회
26일, '사리찾기 추진위'

불교계가 리움박물관에 소장 중인 현등사 사리와 사리구를 되돌려 받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한다.

조계종 총무원과 현등사 사리 제자리 찾기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철안·원담)는 9월 12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3차 정례회의를 갖고 "현등사 사리와 사리구를 반환받기 위해 9월 26일 오후2시 리움박물관에서 불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리 친견법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등사 주지 초격 스님은 "추진위는 리움박물관 측에 9월 9일까지 사리와 사리구 반환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계종 문화부는 현재 리움박물관 측의 '불법 시위성 집회 신고'에 대비해 관할 경찰서에 집회허가 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리움박물관 관계자는 "9월 18일 이후 삼성문화재단 관계자들과 회의를 거친 후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움박물관 관계자는 또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을 피고 측인 박물관에 와서 항의하는 것은 무리"라며 "법회 당일 추진위와 리움박물관의 어떠한 무력 충돌과 시위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위안부 결의안, 미 하원 통과
'동원 규탄' 만장일치… 보상문제 새 국면
서울시공불련 창립 가시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상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9월 13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규탄하는 결의안(하원 결의안 759)을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일본 정부의 공식인정과 책임수용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미의회 관련 상임위에서 채택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결의안은 피해자 수가 20만 명에 이르는 위안부 강제동원이 20세기 발생한 인신매매사건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규정하고, 위안부에 대한 폭행, 강제낙태, 성폭력, 인신매매 등이 일본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또 이를 부정하는 일본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박할 것과 국제인권단체의 권고를 진지하게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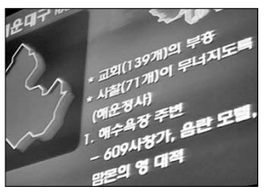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14일 '일본의 주변국 관계'라는 제목으로 공개청문회를 열고 일본 과거사정책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은비 기자

사찰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자?

"사찰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자."

부산 벡스코에서 지난 6월 열린 개신교계의 대규모 청년집회인 'Again 1907 in Busan'에서 나온 말이다. 1만 5000명의 개신교 청년 신자들이 참가한 당시 집회 사진이 인터넷에 게재된 이후 종교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개신교 집회 전광판 사진 인터넷 게재… 비난 빗발

사진에는 대형 전광판에 '해운대구 교회(139개)의 부흥, 사찰(71개)이 무너지도록(해운정사)…'라고 써 있다.

이 사진에 대해 누리꾼들은 "당신들이 사찰이 무너지길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교회가 무너지길 원한다" "다른 종교를 비난하며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기독교에 질렸다" "다른 종교 역시 존중해주는 자세가 성숙한 것 아니냐" 등의 댓글로 개신교의 행태를 꾸짖고 있다.

이 행사의 실무진행을 맡았던 한 목사는 "개신교인들만 모이는 내부행사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문제될 것 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박봉영 기자

사진출처=디시인사이드

"탄약고 만든다고 강제수용하더니…"
용주사, 골프연습장 철거·토지반환 요구

문화재보호구역내 골프연습장 증축으로 자연환경 훼손과 수행환경 침해를 받고 있는 화성 용주사가 골프연습장 철거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용주사 비상대책위원회는 9월 14일 국방부 정문 앞에서 3시간여에 걸쳐 항의집회를 열고 국방부와 운영주체인 군인공제회를 규탄했다. 집회에 참가한 100여 신도들은 골프연습장 철거를 요구하며 국방부 정문 앞에서 108배 참회와 성명서 낭독, 국방부장관 면담 요구서한 전달 순으로 항의집회를 열었다.

용주사 비상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남수원골프장 내 골프연습장은 용주사의 수행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용주사의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를 크게 훼손한다"며 "골프연습장을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주사는 소유주인 국방부 외에 허가권자인 문화재청과 화성시청에 대해서도 전통사찰보존법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데 대해 정보공개 등을 요구했다.

용주사측은 "탄약고 대신 골프장을 만들어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방부의 행태는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토지가 반환될 때까지 법적, 물리적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박봉영 기자

"총장후보선거 28일 강행"
교수회·노조 일정 공고… 법인 "이사회 법적 권한 침해"

동국대 차기 총장 선출을 두고 교수회와 학교법인과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교수회 및 노동조합측은 9월 14일 차기 총장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28일 총장선거 등 선거일정을 15일 공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캠퍼스 교수회(11명), 경주캠퍼스 교수회(9명), 서울캠퍼스 노동조합(4인), 경주캠퍼스 노동조합(3인) 등 총 27인으로 구성됐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9월 15일부터 19일까지이며, 서울 및 경주 캠퍼스 교수회에서 접수한다. 선거운동기간은 20일부터 27일까지. 2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차 투표를 실시하며,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결선투표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법인은 14일 서울 및 경주캠퍼스 교수회장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총장 선출과 관련된 교수회의 일련의 행위는 법인 이사회의 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은 또 "각종 문건으로 인해 법인 이사회에 대한 음해는 물론 법인의 정상적인 행정업무에도 조직적인 방해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지속될 경우 주모자는 물론 관련자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동우 기자

공 고

귀의삼보하옵고
대한불교원효종은 지난 10여년간 분규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많은 고통을 감래하며 오직 종단안정을 기원하신 종도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또한 근간에 총무원을 무단 침입하여 행정서류 일부와 전화를 무단 이전하여 원효종의 이름으로 승려증을 발부하고 있는바 지난 6월 15일 중앙종회에서 결의된 해종행위자에 대한 체탈도첩을 공고하오니 원효종도께서는 이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라며, 이루고자 하시는 불사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원만성취 되시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 드립니다.

체탈 도첩 공고

법명	속 명	제 적 사	체탈도첩일
청운	우효식	광운정사	2006. 7. 15
상운	하영기	감 로 사	〃
청산	박인수	죽 림 사	〃
도현	안정철	도현정사	〃

위 스님들은 종헌종법 제 4장 10조에 의거 체탈도첩되었기에 공고합니다.

불기 2550(2006)년 9월 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겸 종정권한대행 향 운
대 한 불 교 원 효 종 규정원장 홍 인

귀의삼보하옵고
대한불교원효종 종단 기구를 아래와 같이 개편하였기에 공고 하오니 종도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원장 겸 종정권한대행 향 운
사서실장 혜 공
중앙종회부의장 인 담 지 상

원로의원 송담 법선 지암 정향 봉해 창산 범도 혜선
종회의원 대련 화운 청해 상기 명운 원봉 범일 해안 우석 해담 봉상 운오 영선 광봉 학관 담효
의전부장 직할종무원장 혜담 / 규정부장 부산직할종무원장 연운 / 감찰부장 서울종무원장 진산 / 재무부장 부산종무원장 지성 / 총무부장 대전종무원장 일륜 / 사회부장 울산종무원장 금봉 / 문화부장 경기종무원장 인담 / 교육부장 강원종무원장 법선 / 포교부장 충북종무원장 석암 / 전남종무원장 마명 / 전북종무원장 운학
경북종무원장 도봉 / 경북남종무원장 법경 / 안동종무원장 명석 / 경남종무원장 광암 / 서부경남종무원장 범산 / 전국비구니회장 명관 / 비구니북원장 자성 / 비구니남원장 인명
규정원장 홍인 / 규정원부원장 불타 / 전국비구니회장 명관 / 의전실장 태운 / 상벌위원장 학천 / 사무총장 도운 / 교육원장 오주 / 문화원장 석광 / 포교원장 원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겸 종정권한대행 향 운

공연 · 전시 기회 많을수록 재능도 자란다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최준군은 지난 7월 4일 금호아트홀에서 열린 '휴(休) 여름, 쉬어가다' 콘서트에서 뛰어난 기량의 피아노 연주를 선보였다. 사진은 스승인 피아니스트 신민임씨와 리허설하는 장면. 현대불교 자료사진

장애인, 문화 수혜자에서 생산자로 키우자

9월 3~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중국국가 장애인예술단의 '마이 드림'은 장애를 극복한 아름다운 공연으로 한국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장애인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남들보다 약간 불편할 뿐이라는 것을 뛰어난 예술적 기량으로 보여주었다. 250여 명의 장애인 예술단원들은 신체장애를 극복한 아름다운 공연은 더 큰 감동의 물결을 안겨주었다.

7월 4일에는 '판소리 말아톤'으로 유명한 발달장애아 최준군이 판소리 완창에 이어 피아노 연주를 선보였다. 강북장애인복지관이 주최하고 '사랑울림'이 주관한 이날 음악회는 발달장애아 음악치료 기금마련 자선음악회로 진행돼 장애인들에게는 희망을, 비장애인들에게는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흔히 '장애인'이라고 하면 '나와는 다른 사람이므로 베풀고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쉽다. 심지어 장애인들과 대면하는 상황이 어색하고 불편해 피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다. 영화 '말아톤'에 나오는 "저런 아이를 왜 밖에 내보내요. 정신병원이나 장애인시설에 보내지"라는 대사는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장애인과 문화활동을 연결 짓기는 더욱 역부족이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문화의 향유자이자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화적 차별 속에 살아가는 그늘진 이웃에게는 문화향유도 복지입니다"라는 글귀가 담긴 장애우문화센터의 안내글 속에는 장애인들의 애환이 진하게 녹아들어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척박한 우리 현실에서, 최근 문화 시혜자로 우뚝 서고 있는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는 가르침을 전하는 불교계에서도 장애인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이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회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그동안 불교계는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온 선두그룹에 서울 광림사 연화원(대표 해성)이 있다. 연화원은 1993년 청각장애인 배움터 '연화복지학원'을 설립한 이래,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활동에 앞장서왔다.

해성 스님이 문화 향유와 공연 등에 관심을 돌린 것은 1995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수화 노래 공연을 선보였다.

2002년에는 수화 연극 '사랑이 보이네'로 일반인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공연팀은 얼마 전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10주년 공연에서도 수화공연을 펼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12월에는 또 다른 연극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불교계의 장애인 문화복지에 대한 인식은 1회성 문화체험 위주로 채워져 왔다. 순천 송광사의 장애인 사찰체험과 같은 사찰관광류의 행사나 지난 1월 밀양 표충사에서 진행된 한국농아인협회 간부들의 템플스테이 등은 단발성 행사로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장애인들이 불교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는 했지만 그 이상은 진척될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개별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사군자 교실, 노래 교실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기는 하다. 문제는 장애인들이 단순한 '강좌수강'에 그칠 뿐 문화시혜자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지원은 부족하다는 데 있다.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관련 단체가 많지 않다는 점도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 혜택을 펼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장애인 복지 담당자들은 입을 모은다.

▲ 문화 시혜자로 '우뚝'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가진 문화재능을 주변에 나누는 불자들이 적지 않다.

템플스테이 · 사찰관광 등 단발성 행사가 주류
장애딛고 다방면서 재능 나누는 불자 등장

일부 복지관 중심으로 끼 발산할 무대 마련
전국 장애인예술제 등 참여의 장 마련해야

판소리 완창에 도전해 성공한 발달장애아 최준군, '작가의 집'에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그림을 지도하는 뇌성마비장애인 한경혜씨,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바이올리니스트의 꿈을 키우며 자선공연 무대에 서는 김지선양, <솟대문학>을 발행하며 수많은 장애인들이 '작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방귀희씨 등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이 가진 재능을 연마하고, 그것을 사회에 회향하고 있는 이들은 문화 시혜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개인의 원력으로 문화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려는 복지단체들도 늘고 있다.

강북장애인복지관은 지난 7월 판소리 말아톤 최준군을 비롯해 발달장애아를 돕는 음악인 모임인 '사랑울림'과 함께 음악회 '휴(休) 여름, 쉬어가다'를 개최했다.

'사랑울림' 음악가들은 앞으로 음악프로그램을 통해서 발달장애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발달장애아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룹 활동을 지도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경북 지역에서는 1년에 한 차례 장애인들이 직접 창작한 공예 서예 회화 문예 등 여러 분야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노래 공연 등에 나서는 경상북도장애인종합예술제도 열린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이 예술제는 불교계 장애인복지관들이 연이어 주관하며 전력투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이, 올해는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도륜)이 장애인들의 끼를 맘껏 발산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했다.

서울 한성포교원(주지 법농)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한일 장애우 교류 한마당'을 열었다. 일본 장애인 연극단 '쇼난 카메구미 극단'이 내한해 공연했고, 한국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나서 연극을 선보였다.

물론 이들이 문화 시혜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수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 사회에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을 문화 생산자로 키우고,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회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은 아직 미비한 편이다.

우리나라 문화기관의 80%가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추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장애인의 문화기관 접근성' 허순란, <소비자 문제 연구> 2006년 7월) 공연장에 휠체어 전용석, 장애인 주차장 · 화장실을 제대로 갖춘 곳도 드물다. '장애인에게 문화 활동은 사치'라는 사회인식도 걸림돌이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의 문화권리를 찾자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몇몇 단체들이 설립돼 활동을 하고 있다.

2000년 문을 연 장애우문화센터(www.cowalk.org)는 문화의 주체이자 생산자로서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들에게 문화공연을 접할 장소와 기회를 만들어 주고, 나아가 이들이 문화의 생산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한국장애인문화협회는 지난 7월 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을 신설했다. 역경을 이기고 문화예술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쌓은 장애인들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도 대한민국장애인 문학상 · 미술대전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장애인 문화향수권 신장사업지원'을 펼친다. 장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체와 장애인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일반 예술단체의 장애인대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 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문화관광부도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시설, 프로그램,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웃 종교계도 장애인의 문화권리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1988년 '한국장애인선교예술단'으로 창립한 뒤 94년 이름을 바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선교회'는 시각, 청각, 지체장애를 가진 예술인들이 모여 선교활동을 하는 곳이다. 이들의 무료 문화예술공연은 장애인들에게 문화공연 참여 기회를 줄 뿐 아니라 선교효과도 얻을 수 있다. 한국시각장애인기독교협의회와 한국시각장애인선교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등도 장애인을 위한 문화지원을 하고 있다.

▲ 왜 더 필요한가

장애인들에게 문화활동은 왜 이토록 강조되어야 하는 것일까?

1회성이 아닌 공연은 하면 할수록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재능 발굴에 효과적이었다.

연화원의 수화 노래 · 연극 공연을 살펴보면 그 효과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공연의 시작은 비장애인들이 이끌었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장애인들이 스스로 극본을 쓰거나 연출을 하고 노래 가사 수화번역에도 적극 참여했다.

해성 스님은 "장애인들에게 공연할 기회를 주고 연극, 노래, 꽃꽂이 작품전시 등을 하니 장애인들이 뿌듯함과 용기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친구들 비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가 엄청나다"고 장애인이 문화 시혜자가 될 때의 효과를 설명했다.

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도륜 스님은 "장애인들이 일반인들보다 공연 등 문화 시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조계종 복지재단이 전국적인 규모의 장애인 예술제 등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전국적인 규모의 장애인 예술제를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문화욕구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보다 많은 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국 규모의 예술제가 많이 열리면 장애인 복지단체들의 참여 폭도 넓어진다는 것이 도륜 스님의 생각이다.

"불교계가 나서 장애인 문화사업으로 1년에 한 번 공연 프로그램을 공모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장애인 복지단체들의 꿈이 이루어질 때, 더 많은 장애인 문화 시혜자들이 탄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강지연 · 여수령 기자

동화사 불교사진 공모전

동화사 옛날 사진을 찾습니다

팔공산 동화사에서는 개산 1513주년을 맞아 불교사진을 공모합니다.
불교사진을 통해 불교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동화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형상화하고자 합니다.

▣ 접수기간 : 2006년 9월 14일(목) 09:00 ~ 10월 8일(일) 18:00
▣ 응모분야 :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작품 (과거사진 부문 제외)
▣ 응모방법 : 동화사 홈페이지 (http://www.donghwasa.net) 내 사진공모전 전용게시판
(동화사의 과거 부문은 동화사 종무소에서 직접 접수)
▣ 작품영역 : 동화사 및 불교소재 작품으로 타 공모전 발표되지 않은 작품
1. 동화사의 과거와 현재 2. 불교 합성사진 3. 불교관련 사진
▣ 참가자격 : 누구나 가능, 1인당 3점까지 출품 가능(출품료 없음)
▣ 출품규격 : 1. 편집을 마친 상태의 최대 해상도의 원본사이즈 jpg파일
2. 파일사이즈 1.7MB 이상 6MB 이하
▣ 심사일정 : • 예선 - 10월 9일 비공개 심사로 70점 선정
• 본선 - 10월 10일 전문심사단 심사 (심사위원은 심사발표시 공개)
▣ 심사발표 : 10월 12일 동화사 홈페이지내 사진공모전 이벤트 게시판을 통해 발표
▣ 당선자 시상식 : 10월 21일 동화사 개산대재 법요식 내
▣ 작품전시 : 2006년 10월 14일 ~ 21일 오전 10시 ~ 오후 6시(동화사 개산대재 행사기간)
동화사내 전시장 - 예선 입상작 70여점 전시
▣ 시상내역 : • 대상 - 상금 100만원 1명 • 금상 - 상금 50만원 1명 • 은상 - 상금 30만원 2명
• 동상 - 상금10만원 5명 • 입상 - 1 ~ 2만원 상당 기념품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산동화사 주지 허운 합장
701-430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Tel 053)982-0101

봉 행

청주 보현사 명부전 · 정토원(납골당)
낙성법회 및 산사음악회

부처님의 가피와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그동안의 불사가 원만 회향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사오니 참석하시어 기쁜마음 나누시기 바랍니다.

보현사 주지 원봉 합장



◆ 일 시 : 2006년 9월21일 (음, 윤7월29일) 11시
◆ 내 용 :
1부 낙성법회 / 10시부터
2부 영산재 시연 / 오후2시 - 5시까지
3부 산사음악회 / 오후6시 - 오후8시30분까지
보현사 대웅전 앞
◆ 문의 : 보현사 043)259-4926

제4회 대성사
산사음악회 및 선남선녀 템플스테이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만남을 통해 서로의 인연을 확인하고 그 인연을 이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일 시 : 2006년 9월23일 오후 6시 ~24일 오전 10 까지
◆ 일 정 : 1. 산사음악회 / 23일 18시30분-
2. 선남선녀 인연맺기 템플스테이
23일 22시00분 ~ 9월24일 10시
◆ 출 연 : · 티벳스님 전통불교 의식 (8명의 티벳 스님 뿌자 공연)
· 가수 박정식 (천년바위)
· 가수 최은혜 (전국 유명 노래강사)
· 옥천 색소폰 동호회
· 가족 어울마당
· 불교 합창단. 전국 선남선녀 회원의 장기자랑
※ 청주불교방송 제작 혜철스님 법문집 테이프 ⓒ 전국 불교서점 판매
◆ 문 의 : 대성사 043)732-5560 혜철스님

들숨 날숨 조절…입시 스트레스 '싹'

부산 경혜여고 1·2학년 명상 특별수업



'수능 스트레스'로 지친 심신, 선기공체조로 한 방에 푼다. 9월 13일 부산 경혜여고 학생들이 우곡선원 심성개발교육원 장명화 원장 지도로 명상수업을 받고 있다.

9월 13일 부산 경혜여고(교장 정인곤) 대강당. 강당이 떠나갈 듯 시끄럽다. 명상 특별 수업이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찾아갔지만 학생들의 재잘거림은 귀를 막아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우곡선원(원장 장명화) 심성개발교육원의 명상 수업이 시작되자 강당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1학년과 2학년 전체 학생 720명은 우곡심성개발교육원 지도교사 김혜경 주례여중 교장의 명상 수업에 일순간 푹 빠져들었다.

"살기 위해서 숨을 쉬나요? 숨을 쉬니까 살아 있나요?"

김혜경 교장은 시작하기 전 불쑥 질문을 던졌다. 평소 잘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에 아이들이 저마다 다른 대답을 내놓는 동안 김 교장은 호흡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평소 숨 안 쉬는 사람은 없죠? 숨을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날숨을 천천히 하면서 자신의 맥박을 느껴보세요. 평소 몰랐던 내 몸과 마음에 대해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될 겁니다."

김 교장의 설명이 이어지고 우곡심성개발원 지도자들이 시범을 보이자 명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학생들이 날숨을 고르며 명상 속으로 빠져들었다. 엄지, 검지, 중지 손가락 세 개를 모아 쥐는 삼지법을 배우며 집중력을 키웠고 입시와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뭉쳐진 몸은 선기공 체조로 시원하게 풀어냈다.

선기공체조로 몸 풀고 집중력 키워
3학년은 수능 16일전에 진행 예정
금정고도 요청 "전국으로 확대 기대"

명상 수업을 받은 최미선(1학년) 학생은 "처음엔 명상 수업은 왜 하나 했는데 잠깐이지만 명상을 해보니 집중력이 생기고 고요하게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 앞으로 계속하고 싶다"고 했다.

"아이들이 공부에만 매달려 획일화되는 것이 안타까워 숨통을 터주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준비한 수업"이라고 밝힌 정인곤 교장은 "생각보다 아이들이 진지하게 수업에 임해 기쁘다. 아이들이 좀더 창의적인 사고로 현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최고의 방편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수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혜여고의 명상 특별 수업은 12월까지 9회에 걸쳐 진행된다. 우선 1,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3학년은 수능 16일전인 11월 8일 명상 수업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이 명상 교육을 받는 경우도 드문 일인데다 3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명상 수업을 실시하는 것은 경혜여고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동안 청소년 참선 명상 프로그램으로 놀토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 온 우곡심성개발원은 앞으로 경혜여고뿐 아니라 금정고등학교에서도 요청을 받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명상 수업을 실시하게 된다.

우곡심성개발교육원은 "주의집중력 기르기, 마음 다스리기, 나의 마음 찾아보기, 바른 자세 등을 통해 심성 개발과 아울러 학업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게 돼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中 왕충우 부주석 범어사 방문

대웅전 참배 후 차담



중국 서열 2위인 왕충우(사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왕충우 부주석이 범어사를 찾았다.

9월 11일 비공식 일정으로 범어사를 찾은 왕 부주석은 범어사 연수국장 혜수 스님의 안내로 일주문, 불이문, 대웅전, 관음전, 나한전 등을 둘러봤다.

대웅전 앞에서 합장 반배로 예를 갖춘 왕 부주석은 "한국의 불교는 밀종 위주냐, 선종 위주냐"고 질문하며 혜수 스님의 설명을 듣는 중간 중간 한국의 불교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혜수 스님은 "한국의 불교는 통불교지만 특히 선종불교를 표방하고 있다"며 "범어사를 찾은 인연으로 인민들의 고통을 지장보살의 자비심으로 돌아보는 정치를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왕 부주석 일행은 경내를 둘러본 후 총무국장 범산 스님과 차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도 왕 부주석은 주지실에 세워진 병풍의 금강경을 보며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범산 스님은 왕 부주석 일행을 환영하며 "불교 신앙의 중심도시인 부산에 오신 걸 환영한다"며 "차한잔을 마시고 근심걱정을 모두 털고 인민을 위하는 자비의 꽃을 피울 수 있는 편안한 마음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왕 부주석 일행은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 11일 비공식 일정으로 울산 (주)현대와 (주)SK를 사찰하고 범어사를 참배했다. 천미희 기자

부울경언론인회, 수불 스님 초청법회

부산울산경남불교언론인회(회장 강호일)는 9월 20일 오후 6시 30분 부산 안국선원에서 수불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6월 16일 범어사에서 개최한 법회에서 정기적인 만남과 법회를 마련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부산 MBC, 부산일보를 비롯한 교계 언론인들이 주축이 돼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부산울산경남불교언론인회는 정기적인 법회 활동과 인터텟 카페(http://cafe.daum./bukbuddha)를 통한 교류를 통해 회원간의 친목과 신심을 증장시키고 있다.

부산울산경남불교언론인회는 향후 울산 및 경남의 언론사에서 활동하는 불자 언론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각 사별로 불자회를 새롭게 조직하거나 재정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천미희 기자

부산 파라미타 창립 10주년 예술제

1996년 파라미타가 창립된 후 전국 최초로 설립되었던 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회장 김석조)가 9월 9일 부산KBS홀에서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청소년예술제를 열었다.

파라미타 총재 원택 스님, 파라미타 부산지부 부총재 정여 스님을 비롯 파라미타 회원과 지도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이날 예술제는 '맑은 세상을 청소년에게'라는 주제로 제1부 기념식, 제2부 예술제 순으로 진행됐다. 천미희 기자

부산 선암사 원효청년회 재창립

부산 선암사 원효청년회가 4년만의 공백을 깨고 9월 13일 재창립 법회를 열었다. 이날 재창립 법회에서 범어사 교무 지선 스님은 법문을 통해 "나도 부처가 되겠다는 큰 원력으로 생활 속에서 불법을 실천하는 청년 불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효불교청년회는 20세 이상 40세 이하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매월 2·4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법회를 갖는다. (051)803-7573

천미희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개산대재 맞춰 본말사 유물 첫 기획전

범어사 성보박물관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경선)이 개관 4년째를 맞아 처음으로 기획전시를 마련했다.

제3회 범어사 개산대재를 기념하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범어사 소장의 문화재와 말사에 산재해 있는 불교문화재를 한곳에 모아 일반에 공개한다.

'범천에 피어나는 연화장 세계'라는 주제로 열리는 '범어사 본 말사 문화재 특별전'은 9월 22일부터 12월 말까지 이어진다.



범어사 성보박물관 직원들이 기획전시를 위해 박물관 내부를 정리하고 있다.

범어사성보박물관은 개관 이후 처음 맞은 기획전시를 앞두고 말사에서 유물을 옮겨오는 등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유물이 대부분 문화재나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것이어서 옮기는 작업에 까다롭다. 게다가 주제별로 전시실을 꾸미고 일반에 성보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한 배치까지 세심하게 마음을 쓰고 있다. 일반에 최초로 공개되는 유물이 많은 만큼 그 가치를 제대로 전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탱화는 안료 등 재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
지유·양익·덕명 스님이 기증한 서화 등도 전시

이번 기획전시에는 불상, 탱화, 복장유물, 의식용구 등 10여곳 말사의 유물 100여점이 전시된다. 보물 제419-3호로 지정된 <삼국유사>를 비롯 마하사 응진전 목조석가여래좌상, 김해 장유사 석조여래좌상, 울산 인성암 석조보살좌상 등의 불상과 범어사 석가지장시왕도, 진해 정암사 아미타후불탱 및 초본 등도 전시된다. 특히 탱화에 대한 전시를 주제로 탱화와 탱화 안료, 비단, 종이 등의 탱화 재료 등을 한 눈에 보면서 전시된 탱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꾸며놓는다.

또한 현재 사찰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의식용구들도 한자리에 모았다. 사찰에서 사용하는 금속으로 만든 타악기의 일종인 금고도 전시된다. 창원 성주사 금고(건륭 31년명) 선암사 청동 금고, 국청사 금고(강희5년 병오년명), 범어사 금고(1862)는 눈여겨 볼만하다.

이 밖에도 부처와 보살의 명호나 발원의 내용을 적었던 패, 불교의식을 행할 때 읽고 난 발원문이나 소문을 말아 넣었던 소통(疎筒)도 눈길을 끌며 국청사 철제인장, 기장 장안사 연, 창원 성주사 목조소대 등 불교공예품들의 아름다움과 독창성도 감상할 수 있다.

범어사 조실 지유 스님의 기증품인 위창 오세창 선생의 글과 최근 입적한 청련암 양익 스님과 안적사 덕명 스님이 각각 기증한 동산 스님의 '신신명' 글씨와 진신사리도 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051)508-6130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국 : (011)571-5316
울산지사 : (052)272-0909

기도하는 도량, 공부하는 도량, 이웃과 함께하는 도량

도심포교에 힘쓰시는 주지스님께 듣는다

정토를 열어가는 사람들

공부하는 도량 봉은사에서는 매회 특별기획으로 일요법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4일(일)부터 13분의 도심포교에 힘쓰시는 주지스님들을 모시고 제4차 일요법회 "정토를 열어가는 사람들"을 봉행합니다.
13회에 걸쳐 진행될 이번 일요법회는 전국 각 지역에서 도심포교, 복지포교의 전법을 펼치시고 있는 지역 대표사찰 주지스님들의 법석을 통해 한국불교 포교의 발전 방안과 미래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할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기2550(2006)년 9월

회 주 성암 종범
주 지 설담 원혜
신도회장 대원 김경남
사부대중 일동

제4차 특별기획 일요법회


법등스님 도리사 주지 (중앙종회의장) 9월 24일(음, 8,3)


정여스님 부산 여여선원 선원장 10월 1일(음, 8.10)


영담스님 부천 석왕사 주지 10월 8일(음, 8.17)


혜자스님 도선사 주지 10월 15일(음, 8.24)


지홍스님 불광사 회주 10월 22일(음, 9.1)


진옥스님 여수 석천사 주지 10월 29일(음, 9.8)


성운스님 삼천사 주지 11월 5일(음, 9.15)


성일스님 화성 신흥사 주지 11월12일(음, 9.22)


정우스님 구룡사 주지 11월 19일(음, 9.29)


심산스님 부산 흥법사 주지 11월 26일(음, 10.6)


법장스님 무진법장사 주지 (교육부장) 12월 3일(음, 10.13)


지원스님 삼보사 주지 (육지장사 회주) 12월 10일(음, 10.20)


포교원장 신임 포교원장 미정 12월 17일(음, 10.27)

■ 기 간 : 9월 24일 ~ 12월 17일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봉은사 법왕루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문의 : 포교교육팀 3218-4821~8 | www.bongeunsa.org

불교+심리학, 실생활에 응용

대구에 '마음불교심리연구소' 개소
명상기법 활용 다양한 건강요법 개발



마음불교심리연구소 류정수 소장이 9월 15일 개소식에서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불교를 현대 심리학의 다양한 기법들과 발전적으로 결합시켜 현시대에 맞게 재구성해 현대인들에게 정신건강의 회복과 진정한 자기실현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양심리학과 불교를 접목해 실생활에 응용하기 위한 불교심리연구소가 대구 남산동에 문을 열었다. 9월 15일 개소식을 가진 마음불교심리연구소(소장 류정수)다.

심리학은 마음을 연구하는 서양학문으로 약 200여년의 역사를 지닌다. 그러나 마음의 종교인 불교는 이보다 2000여년을 앞선다.

또, 불교는 유식학(唯識學)을 통해 체계적으로 마음현상과 구조, 마음 단계에 따른 마음 다스리기와 깨달음의 방법들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관념적으로 변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결과적 피드백(feed back)도 거의 완벽하다는 것이 류 소장의 말이다.

류정수 소장은 "고등학교 불교학생회 출신으로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심리학의 현대적인 기법을 불교에 접목한다면 불교의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들을 현대인들이 보다 쉽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연구하고 그 방법을 모색하게 됐다"고 밝혔다.

불교를 통해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고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히 마음불교심리연구소는 누구나 쉽게 경험하지만 의미 접근이 쉽지 않은 꿈을 불교적 원리와 방법으로 규명하고 접근할 계획이다.

마음불교심리연구소는 연구와 수련이라는 두 가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마타(삼매), 위빠사나(관법), 아나파나 싸티(호흡관법)등의 불교적 수련강좌와 꿈의 원리와 해석 마음 원리강좌를 진행하고, 꿈의 원리를 불교적으로 규명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물론 불교의 명상기법과 콘텐츠들을 적극 활용한 다양한 심리요법들을 개발 공개할 예정이다. 그 외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적 요소(수맥파, 지자기 등)에 대한 연구도 계획하고 있도, 나아가 한국불교심리연구학회의 설립도 생각하고 있다.

개소식에서는 류정수 소장과 대지불교심리연구소장 현오 스님이 공저한 <꿈과 마음의 비밀>이라는 책의 출판기념회도 함께 열려 눈길을 끌었다.

<꿈과 마음의 비밀>은 류 소장과 현오 스님이 꿈의 원리와 해석 방법, 마음의 구조를 불교유식의 관점에서 2년 여간 연구하고 접근을 시도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개소식에는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을 비롯한 재가불자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053)428-4281

글 · 사진=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불교계합창단 은상 수상
대구시 주최 시민합창대회서

대구지역 불교계 합창단이 대구시가 주최하는 지역시민합창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대구불교방송 만다라합창단과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가릉빈가 합창단이 9월 11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회 달구벌시민합창경연대회에서 각각 은상을 받았다. 또, 만다라 합창단 류성욱 지휘자가 우수 지휘자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대회에서 우승한 수성구청 합창단을 비롯한 16개 팀이 참가했다.

배지선 기자

영남불교대학 칠곡도량
지역 어르신 경로잔치 열어

영남불교대학 칠곡도량(주지 도륜)이 지역 어르신 1000여명을 초청해 9월 9일 경로잔치 한마당을 벌였다.

영남불교대학 칠곡도량은 지난 연꽃음악제에서 발생한 수익금 2000여만 원 중 1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공연과 점심공양 제공했다.

영남불교대학 칠곡도량은 나머지 수익금을 서부교육청에서 추천한 1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구미 도리사 아도화상 다례재

구미 도리사(주지 법등)가 이 땅에 부처님의 법을 전한 아도화상을 기리는 다례재를 10월 1일 오후2시부터 봉행한다.

다례재는 육법공양에 이어 지역청소년 14명에게 아도화상 장학금을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지역 8개 읍면주민 16명이 참가하는 노래자랑대회와 산사음악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김성식

포항불교사암연합회 사무간사

포항불교사암연합회 김성식(40) 재가사무간사. 2004년 범불교도대회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정장식 시장의 사과를 받아낸 젊은 불자중 하나다.

정보통신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김 간사가 매일 밤을 낮 삼아 새우며 지역 스님들을 모시고, 포항 뿐 아니라 전국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나간 결과 포항은 재가불자들의 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알려지게 됐다.

웅크리고 있던 재가불자들도 하나씩 깨어나 지난해 5월에는 포항불교신도단체협의회까지 구성했다.

"불자들이 올바른 신행생활을 염원했기에 범불교도대회도 있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바로 알려지도록 재가불자들의 역량을 키워야한다"고 강조하는 김 간사는 포항신도단체협의회에서도 사무국장을 맡아 궂은 일을 도맡았다.

스스로를 '심부름꾼'이라고 칭하며 늘 한발 뒤에서 교계 선배들의 활동을 지원해왔던 김 간사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지만 포항재가불자들이 다시 불심을 곧추세우고 조직과 틀을 갖추게 되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포항불교학생회(37대) 출신 지역 토박이 불자다. 한때 친구 따라 교회에 갔던 경험으로 더욱 불법의 소중함을 느끼게 됐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영천 거동사로 첫 수련대회를 다녀왔는데, 당시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맞으며 찾은 산사에서 처음 경험한 참선 시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김 간사는 한때 불교계를 떠난 적도 있다. 군대를 제대하고 맞닥뜨린 현실이 학생회 때 배운 가르침과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 '더럽고 깨끗한 것이 공존하는 세상'을 이해하게 되면서 다시 불교계로 돌아왔다.

김 간사는 이 경험으로 "더욱 바른 불자가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재가불자들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바른 불자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간사의 이 생각은 그의 활동 곳곳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포항불교사암연합회 재가 사무간사를 맡은 것은 최근의 일이다. 지역 스님들이 포항불교계를 위해 활동을 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승가와 재가사이에서 가교역할을 잘 해야 하는 막중 소임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어느 때보다 부담이 크다.

김 간사는 또 지난해 말 (사)대한불교청년회 경북지구장으로 선출되어 지역 청년불자들을 이끄는 수장으로 동분서주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범불교대회 주도 종교편향 시장 사과 받아내
불청대회 개최 등 청년불자 활성화에 진력

지역에 청년불자들이 건재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난달에는 경북지구불청대회도 개최했고, 가을산행도 준비하고 있다.

"포항불교청년회가 40년을 이어오는 동안 자료 하나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며, 청년불교회관을 마련하는 꿈을 꾸고 있다. 그래서 청년회의 재정을 자체 충당하기 위한 '일일호프' 행사도 가질 계획이며, 청년회비를 CMS 청년후원계좌로 입금하도록 권하고 있다.

"범불교도대회를 치르며 참도반을 만나 행복했고, 불교적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웠다"는 김 간사는 "청년회 임원을 맡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데 대한 미안함이 늘 남아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부처님 심부름을 하면서 얻은 마음의 평화를 가족이 함께 느끼고 이해해 줘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대구 보현사 대입전략 특강 실시
100일 기도정진 학부모 · 수험생 위해 마련


11월 16일 대입 수능 시험일을 70여일 앞두고 동화사직할포교당 보현사(주지 지열)가 수험생을 위한 대입전략 특강을 9월 10일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100여명의 학부모들이 동참한 가운데 조계종립 능인고등학교 연구부장 곽병원 교사가 수시2학기모집 주요사항과 지원전략을 소개하고, 진로에 도움이 되는 미래 사회직업세계의 변화양상과 유망직종 등에 대해 안내했다.

또 "EBS가 9월부터 시작하는 수능 총정리 강의를 꼭 들어보고, 최근 2~3년 사이의 기출문제와 지난 6월1일~9월6일 모의고사 문제를 다시 풀어 유형을 파악해 두라"고 권했다.

보현사는 수능 시험일까지 두 번의 특강을 더 계획하고 있다. 10월 15일에는 손한의원 손창수 한의사가 환절기 수험생 건강관리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며, 11월 5일은 대구대 김종호 교수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217일 광명기도법회' 시작
해인사, 비로전 건립 위해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가 9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보경당에서 비로전 건립불사를 위한 광명기도법회를 입제한다.

이번 법회는 비로자나 부처님 복장불을 새롭게 봉안하고 개금 점안식을 봉행하면서 시작했던 '217일 광명기도법회'를 21일 회향함에 따라 다시 시작되는 제2차 법회다. 현재 보경당에 있는 비로자나불은 비로전 건립 후 이전될 계획이다.

기도 시간은 새벽 3시, 오전 9시, 오후 2시, 저녁 6시로 하루 4번이며 주말에는 밤9시~새벽3시 철야기도를 한다.

해인사는 비로전을 밝힐 인등도 동참금 1만원에 접수받고 있으며, 보경등에 밝혀진 인등은 비로전 건립 후 비로전으로 이전된다. 기도 동참금은 100일에 10만원.(055)934-3105~6

배지선 기자

가족사진 콘테스트 개최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소장 서현)은 9월 15~24일 '행복가족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이번 가족사진 콘테스트는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되새겨봄으로써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행복한 가정상을 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행사다. 응모작은 인터넷 응모시 홈페이지(gumi1391.or.kr)에서 출품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사진을 용량 500Kb이하로 사이즈를 조정해서 보내면 된다. 우편접수시 사진크기는 15cm×10cm로 제한한다. 접수장소는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앞으로 보내면 되며 24일 소인까지만 유효하다.

시상식은 10월 13일 열리며 가족 제주도 여행권, 가족사진 촬영권, 10만원 상당의 가족 식사권 등 다채로운 부상이 주어진다.(054)455-1391

배지선 기자

최고 정신 지도자 고급 과정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최면사 神 치유명상가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 마음조정법 고급 과정모집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최면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무공 합장
現 卍 신선암 주지
現 참 선공 협회 총재
現 치유명상 협회 총재
現 임상최면 협회 총재

◆ 참선공의식 사례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돌아가서 한의원,병원,기공,굿,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 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지도자고급과정
● 입제일 : 2006. 9. 21 (목요일) 14:00 - 18:00 (10회 과정) (선착순 예약)

전 수 비 2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불교심리철학	서양 심리철학
사마타 수행법	위빠사나 수행법
조상 천도 해탈 비법	빙의 · 해리 치유 비법
자비손 치유 비법	전생 치유 비법
음성 내공 비법	내생 치유 비법
신선 도인 비법	칠차원 도인 비법
조상영가 보는법	육효 신 비법

卍 신선암 대한참선공협회. 神치유명상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

9월 8일 개막 제6회 광주비엔날레 참가 화제의 인물

"사물 이면의 복잡한 관계망 표현"

반가사유상 소재로 대상 수상한 마이클 주



9월 8일 개막한 제6회 광주비엔날레에서 한국계 미국인 마이클 주(40 · 사진) 씨가 반가사유상을 이용한 비디오 설치작업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작인 마이클 주의 '보디 옵푸스 케터스'는 불상 주변에 여러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눈으로 바라본 불상과 카메라가 여러 각도에서 찍은 불상을 영상화 시켜 서로 다른 의미를 생각하도록 했다.

마이클 주는 수상작가 인터뷰에서 "과학과 종교를 언어로 표현하고자 했다"며 "두 가지는 공존이 어렵지만 이들의 이중성을 다루고자 했다"고 밝혔다.

1회 광주비엔날레에 아버지와 함께 참여한 바 있는 마이클 주는 "당시 백남준 씨의 작품에서 기술적인 영향을 받았다"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물도 표면 아래서는 복잡한 관계로 얽혀있듯이, 우리가 사는 현실도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마이클 주는 9월 9일 미국으로 떠났다.

누구에게나 쉽고 친근한 작품 추구

연등축제 인연으로 초청된 조각가 이기성씨



광주에서 열리는 연등축제 장엄물을 제작한 인연으로 비엔날레 참여 작가로 초청된 작가가 있다. 광주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조각가 이기성(38 · 사진) 씨가 그 주인공.

3년 전부터 광주 한마음선원에서 장엄물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씨는 "매년 용, 닭, 개 등의 동물과 산, 구름 등 자연을 장엄물로 형상화했던 것이 이번작품 구상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연등축제에서 돋보이는 창의력과 작품을 눈여겨 본 광주 비엔날레 관계자의 추천으로 비엔날레 참여 작가가 됐다.

대나무 대신 '철사를 이용한 장엄물'이라는 독창적인 영역을 구축한 이씨는 "철사는 가볍고 튼튼해 세밀한 부분까지 표현하는 장점이 있어 대형 장엄물 제작에 유용하다"며 "장엄물 제작에 철사를 이용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씨는 이번 비엔날레에서 정보를 먹고사는 나무를 표현한 '미디어 트리'와 '미인' 등 작품 두 점을 선보이고 있다.

이준엽 기자

법주사 삼불좌상 개금불사 회향

보살계 수계 · 10만등 점등도

국내 현존하는 소조좌불 가운데 가장 큰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 삼불좌상(삼존불, 보물 1360호)이 40년만에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법주사(주지 도공)는 9월 12일 5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삼존불 점안 및 개금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사진).

1624년 대웅보전 복원 당시 높이 550cm, 둘레 390cm 크기로 조성된 삼존불은 40년전 마지막 개금불사가 이뤄졌다. 법주사는 지난 5월부터 2억 2천만원을 들여 개금전문가로 연인원 800명을 참여시키는 개금불사를 진행해왔다.



개금불사 회향법회는 개금 및 복장불사 점안, 보살계 수계, 10만등 점등 등으로 장엄하게 진행됐다. 신도 2천여명이 쓴 <금강경> <법화경> <반야심경> 등 경전 2000여권도 삼존불 안에 복장해 불사 회향을 기렸다.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은 "대웅전 복원 불사와 삼존대불 복원불사를 원만성취한 것은 법주사를 비롯해 교구 말사의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어 가능했다"며 "부처님을 여법하게 장엄한 그 마음으로 끊임 없이 기도 정진에 힘써 나가자"고 말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남녘 '상사화 축제'로 들썩
불갑사 · 용천사 · 선운사서

전라도 서해안지역 사찰을 중심으로 열리는 상사화축제가 시작됐다.

영광군은 9월 15,16일 양일간 불갑사 일대에서 상사화 축제를 개최하고, 함평군은 16~17일 용천사와 꽃무릇공원에서 꽃무릇 축제를 개최한다. 또한 고창군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운사에서 꽃무릇축제를 연다. 고창 선운사, 영광 불갑사, 함평 용천사는 국내 최대 상사화 군락지로 해마다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다.

이준엽 기자

진도 서학사, 6 · 25 참전자 위령재

남녘 땅끝 진도에서 처음으로 한국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재가 열렸다(사진).

진도 서학사(주지 중화)는 9월 10일 유족과 지역 주민, 신도 등 1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한국전쟁 참전 군경희생자 위령재를 열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날 위령재는 보훈청에서 확인한 1000여명의 전사자 위패를 안치하고 관욕, 상단불공, 위령재 순으로 진행됐다.

위령재에 앞서 중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래전부터 진도에서 산화한 6 · 25참전용사들의 고혼천도를 준비해왔다"며 "뒤늦게나마 진도와 인연 맺고 살아온 공덕을 회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옥천 보륜사 수계법회

옥천 보륜사(주지 상인)는 9월 17일 동물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계를 받는 수계산림 법회를 봉행했다.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을 계사로 열린 이날 법회는 동물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도량천도의식과 수계법회로 진행됐다. 이날 옥천경찰서 경불회원 등 300여명이 동참해 계를 받았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충남동부지국 : (010)3069-3170

지상중계 – 원각사 재가논강

'재가불자 신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 ❺지혜 바라밀

호남 최초로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에서 열리고 있는 재가논강. 회가 거듭될수록 불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다섯 번째 논강이 9월 8일 '지혜 바라밀'을 주제로 진행됐다. 논주로 나선 이희재 광주대 교수(사진)는 "반야를 얻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비우는 삶, 관조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야지혜는 '不二' 깨닫는 수행"



이희재 교수는 "불교에서 지혜는 반야(般若)를 뜻하며, '공(空)' '둘이 아님(不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리는 쉽게 나와 너로 구분하여 나누는 습관이 있는데 화를 내는 것은 나와 너로 대립되기 때문이고, 칭찬을 들으면 기분 좋은 것도 나라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이다"며 "반야의 지혜는 둘로 보는 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수행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반야지혜 실천으로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고 하지 않고 둘로 보지 않는 불이사상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어머니와 태아를 예로 들었다.

어머니와 태아는 둘이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도 아니다. 그것이 불이(不二)다. 어머니가 죽으면 태아도 죽는다. 자연이 어머니이며 우리는 태아이다. 어머니를 죽이면 우리도 죽는다. 어머니와 태아가 그러하듯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도 상호 작용해야한다. 따라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제거대상이 아니라 나를 훈련, 성숙시키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아야 인간관계가 평화로워지고 용서가 가능해 진다. 이것이 반야의 세상이다.

이처럼 반야의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은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자연히 자비심과 친절심, 만족하며 살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재가자가 불이수행을 하기에는 실제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지 못해도 포기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열심히 닦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행에 있어 지혜가 없으면 눈이 없는 것과 같아서 깨달음을 향해 올바로 가지 못한다"며 지혜바라밀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했다.

또한 "공, 무아, 불이사상을 잘못 이해하면 허무주의가 되어 세상을 쉽게 보거나 무책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잘 이해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질의 응답

▲논주는 일상생활 속에서 반야바라밀을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 나도 역시 '나'라는 자존심, 학자로서의 명성에 집착하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반야바라밀을 출가 수행자처럼 철저히 정진하지는 못해도 일상생활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순간순간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매일 경전 독송과 사경수행을 겸하고 있다. 가능하면 아침시간에 경전을 독송하고, 사경한다. 발원도 함께 하고 있다. 탐욕 없애기가 쉽지 않으므로 원을 세워서 기도하고 있다. 이처럼 자신의 인생방향을 매일 부처님에게 말씀드리고 놓치지 않으려고 힘쓰고 있다.

▲살다보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죄를 짓지 않는 지혜는?

– <천수경>에 "죄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면 사라진다. 죄와 마음이 없어지면 공하여 이것이 진실한 참회다(罪無自性從心起 心若滅時罪亦亡 罪亡心滅兩俱空 是則名爲眞懺悔)."라고 했다.

죄는 마음이 그쳤을 때 바로 극락이고, 마음을 악하게 쓰면 지옥이다. 현재 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현재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늘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이준엽 기자

붓다로부터 배우는
자녀교육의 지혜
부처님 가르침대로 키우면 자녀교육 성공한다!
현직 교사인 저자가 교육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교육이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넘나들며 쓴,
불자들의 성공적인 자녀교육을 위한 지침서!
민병직 지음 | 국판 | 288쪽 | 9,800원
*모든 불자 가정에 한 권씩! 선물용 · 법보시용으로 좋습니다.



달마선
박건주 저 | 국판양장 | 272쪽 | 10,000원
달마선은 선종의 뿌리이고 근본이며 정통선이다.
따라서 선불교는 달마선 본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
『능가경』과 초기 선종 어록들을 근거로 선종의 근본을 찾아가고 있는 책으로,
선종의 주요 개념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선의 근본을 깨닫고,
이를 통해 올바른 선수행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운주사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
원나 시리 지음, 범라 스님 옮김

천만 불자의 가슴에 감동을 전해 줄
아주 특별한 부처님 일대기!
부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모셨던 다문제일 아난존자가 평생 동안 보고 듣고 기록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생생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아난존자의 일생의 기록임과 동시에, 부처님의 행적을
가장 잘 알고,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부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읽고, 부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였던
아난존자가 전하는 부처님과 그 제자들, 부처님 당시
사부대중들의 삶과 수행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
국판양장 | 각 702, 710쪽 | 각 28,000원

아난존자의 일기
① ② 전 2권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전화 02)926-8361, 팩스 926-8362
붓다북 www.buddhabook.co.kr

불교계-정부-지자체 협력

종단·법인 등록 검증해야

수준미달 종단 난립 막을 길 없나

새롭게 생겨나는 종단과 종교법인 중 일부가 미등록 상태로 활동하거나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불교계는 물론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유사명칭 사용과 법인제도 악용 사례도 증가돼 이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지난 3월 창종한 경기도 여주 A종단의 경우가 그 좋은 예다. 이 종단은 인근지역에서 점 잘 보기로 소문난 주지가 창종했다.

A종단은 고작해야 사찰 주지인 총무원장과 2~3명의 스님으로 구성돼 있다. 그들은 무속행위를 배우는 제자들이다. 여주군청에 확인결과 종단 등록이 안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버젓이 종단이름을 내걸고 아직도 고객(?)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대다수 인근 지역 주민들은 A종단의 출현으로 불교에서도 당연히 점을 봐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불교사칭 … 자격도 안 갖추고 버젓이 무속행위

심사절차 간소한 틈타 편법 · 위법행위 일삼아

이처럼 2001년 법인 등록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종교법인들이 등록조차 하지 않은채 활동해 불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종단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종단, 불법적 활동을 하는 종교법인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장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 스님은 "종단협은 1년에 두 차례씩 지방자치단체에다 종교단체 등록심사시 종단협으로 검증을 요청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하지만 고정적으로 요청이 오는 지자체는 고작해야 부산, 공주, 대구 등 세 곳에 불과하다. 지자체 차원에서 거르는 장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종단협은 종단협에 소속되지 않은 120여개의 종단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몇몇 종단은 무속 등 불교와는 거리가 먼 행위를 통해 신도를 끌어들이는 등 기존 종단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같은 현상은 종단을 설립할 경우 문광부에 등록해야 했던 불교재산관리법이 1987년 폐지된 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더욱이 2001년부터는 문광부에서 심사하던 법인 등록 절차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법인 등록이 용이해진 점도 종단 난립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문광부 종무담당관실 엄성근 주사는 "현재 3개시도 이상 지부를 설치한 법인에 대해서만 문광부에서 등록받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등록 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특히 민법 32조 법인설립 요건에 해당되기만 하면 특별한 규제없이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 보장 조항에 의거해 등록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엄 주사는 "일부 사이비 종단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현행법으로는 특별히 규제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른 문광부의 한 관계자는 "심의를 까다롭게 강화함과 동시에 지자체에서 종교법인의 등록 허가후에도 꾸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많은 행정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무분별한 종교단체의 난립을 더이상 방치하기에는 위험수위가 심각하다. 편법으로 종교법인을 구성한 후 지자체의 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친인척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고, 이에 더해 법인 재산 분규 등 말썽을 일으키는 종단도 있다. 2005년 충청북도에서 법인허가를 얻은 C종단은 2006년부터 법인 재산을 둘러싼 고소 고발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종무행정을 보지 못하며 표류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포교는커녕, 자주 분쟁을 목격하는 지역민들의 비난을 사며 불교에 대한 이미지 실추를 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막을 방도는 없는 것일까. 종단협 조용준 차장은 "불교계와 정부의 협력적 검증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차장은 "수준미달의 비불교적인 종단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들이 법인까지 만들어 활동하며 더 큰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비불교적인 종단과 불교법인을 걸러내는 여과 작용을 할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종단 등록과 법인 허가에 앞서 문광부와 해당 지자체가 종단협에 철저한 검증을 요청하고, 종단협이 지역 사찰, 스님, 불자들과 연계해 이를 검토한다면 사이비 종단의 등장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종단협은 지난달 종교법인 지원단체의 서류 등록 심사를 하다 이상하게 생각한 지자체의 요청을 세밀히 검토해 종단등록 취소요청을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주일 기자

진각종 창작서원가 가사 공모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이 진언행자들의 신행의식 고취를 위해 10월 27일까지 창작서원가 가사를 공모한다.

공모주제는 자유다. 어린이, 일반으로 구분해 응모해야 하며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접수는 홈페이지(www.jingak.or.kr)나 팩스(02-913-0755), 우편으로 하면 된다.

총상금은 6백만원이다. 수상자는 개별 통지하고, 진각종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02)913-0753

천태종 소백산지킴이 발족

천태종 사회부와 나누며하나되기 운동본부는 9월 24일 오전 11시 단양 광법사에서 '소백산 지킴이 발대식'을 봉행한다.

'소백산 지킴이'는 소백산 자연 및 환경보호 캠페인, 등산로 청소 및 관리, 무제한적 개발로부터 소백산 보호, 생태계 보호 세미나 및 학술 토론회 등을 열 계획이다. 소백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043)420-7313



"군법당 관리·운영 우리가 해야죠"

육·해·공군 준부사관 불자회 창립



9월 12~14일 경주 콩코드호텔에서 열린 제3회 준부사관수련대회에서 육·해·공군 준부사관불자회가 창립됐다. 사진은 준부사관 수련대회 중 경주 불국사를 참배한 모습.

육·해·공군 준부사관 불자회가 창립됐다. 준부사관들은 장교들과 달리 부대에 장기적으로 근무한다는 점에서 군법당의 운영 및 관리는 물론 군 신도회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군종교구(주지 일면)가 9월 12~14일 경주 콩코드 호텔에서 개최한 제3회 준부사관 불자 수련대회에서 260여 준부사관들은 총회를 개최하고 육·해·공군 준부사관 불자회의 창립을 선언했다.

총회에서는 종합군수학교 이강수 준위가 초대 회장으로, 윤상윤 원사가 1군 지회장에, 한우석 원사가 2군 지회장에, 정용장 원사가 3군 지회장에, 전영배 준위가 육국직(육군, 국방부 직할부대) 지회장에, 공상식 준위가 해군지회장에, 김영준 준위가 공군 지회장에 각각 선출됐다.

육·해·공군 준부사관 불자회는 향후 군무원을 포함한 전군 준부사관들의 원활한 네트워크 구성으로 내실 다지기에 주력할 방침이며 군종교구와도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군포교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조계종 군종교구 주지 일면 스님은 "군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준부사관들의 연합회가 생겨 군포교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격려했다.

한편 제3회 준부사관 불자 수련대회에서는 정선진 군종교구 종책자문위원의 '군불교 활성화를 위한 간부불자의 역할',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의 '지도자의 역할', 경주지역 불교역사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참가자 전원에게 시계를 선물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경주지역의 불국사, 포항 극락사, 백화사 등에서 군포교 발전기금을 희사했고 조계종 포교원이 <불교입문>을, 제주 무량정사 묘관 스님이 <법화경>을 각각 보시했다. 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

interview
초대회장 이강수 준위

"사병불자 발굴 힘쓸터"



"군의 본래 목적인 국가 안보를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장사병들의 정신 전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육·해·공군 준부사관 불자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강수(사진) 육군종합군수학교 준위는 "준부사관 및 군무원들은 한 부대에 장기적으로 근무한다는 점에서 부대의 주인이나 다름없다"며 "향후 군법당 신도회 활성화 및 법당 자산 관리, 장병 불자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조계종 군종교구와 협의를 거쳐 군불교 발전을 위해 간부 불자 발굴과 조직화 및 부대내 불자들의 법회 참석 유도, 전입 불자 관리 체계 확립, 사병 불자 양성 관리 체계화에 앞장서겠다"며 "군법사를 보좌해 적극적인 법당 운영을 지원하고 명상 등 다각적인 법당 운영을 통해 군 신도회를 활성화 하겠다"는 구체적인 활동 계획도 밝혔다.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 www.mahamall.co.kr

마하몰 한가위 맞이 효도선물용품 지상 특가전

'오직 현대불교신문 지면에서만 만나는 특별한 기회!! [특판기간 : ~ 10월15일까지] 인터넷 마하몰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희귀한 검은 돌이 뿜어 내는 깊고 그윽한 기운을 느껴 보십시오
희담석 건강용품-찜질팩 20% 할인판매 및 사은품증정
희담석 찜질팩(낱개 및 세트) 및 희담석염주 구입자 모두에게 희담석 눈찜질팩을 드립니다.

희담석의 무한한 에너지 방사능력으로 건강과 활력을 주는

희담석 찜질팩 세트
정 가 148,000원
특판가 110,000원

희담석 염주
정 가 66,000원
특판가 52,800원

희담석 제품 구매고객 사은품
희담석 눈찜질팩
판매가 16,500원

희담석 찜질팩
정 가 38,000원
특판가 30,400원

희담석 허리팩
정 가 44,000원
특판가 35,200원

광물이 숨을 쉰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루이스톤 건강용품 - 15% 할인판매
아루이스톤이란 천광석이라고도 하며, 자체에서 인체에 이로운 기운을 방출합니다.
가까이 두면 자연히 기운이 정화되고 강화되며, 탁기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놀라운 광물입니다.

청기생기 베개
정 가 80,000원
특판가 68,000원
크기 : 낮은베개 5cm / 높은베개 7cm

청기생기 방석
정 가 65,000원
특판가 55,250원
크기 : 가로 450mm X 세로 450mm

경추베개
정 가 60,000원
특판가 51,000원

추천히트상품
2개의 컵을 동시에~커피는 물론 녹차,보이차도 간편하게 OK!
하이얼 2인용 커피메이커 HK-3000
500개 한정 특판가 15,000원
(배송비 3,000원 별도)

추천히트상품
피로회복, 혈액순환, 스트레스 완화, 집중력강화
음이온 항균지압베개 매직필로우
출시기념 특판가 29,500원
(배송비 포함)

고객센터 02-732-1520 [입금계좌안내] 농협 053-01-267081/ 국민 023501-04-074548 (예금주:마하몰)

대구BBS 개국 10주년 기념 공연
창작 뮤지컬 갓바위!!
9월 25일 · 26일 / 여의도 KBS홀
사랑과 효, 그리고 정대감독!!
입장권 예매 02-739-7837 www.interpark.com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고운 별빛아래 장중한 화음 감동 그 이상…

'불심으로 승화된 장엄한 하모니를 연출했다.' 9월 13일 천태종 단양 구인사 대조사전에서 열린 '제6회 전국불교음악제' 중 마지막 순서로 14개 시도 연합합창단 1200여명이 함께 무대에 올라 음성공양을 선사했다.



14개 합창단 각 3곡씩 공연, 청중 매료시켜
'붓다의 노래' 등 새곡도…참가자 전원 한 무대 '장엄'
5000여 관객 5분간 기립박수, 음성공양에 화답

쌀쌀한 초가을 날씨에도 불구하고 5000여 관객들이 불음의 메아리를 듣고 박수치며 즐거워하고 있다.

제 6회 전국불교음악제 현장

"정진하세, 정진하-아세 ♬♬"

별이 빛나는 소백산의 찬란한 가을밤은 불음의 메아리로 가득했다.

9월 12일 오후 7시30분,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 대조사전 앞 특설무대. 천태종과 삼보불교음악협회 주최로 '제6회 전국불교음악제'가 열렸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등 10개 종단 소속 전국 14개 시 · 도 합창단이 참가한 이날 음악회는 육법공양 의식과 이선옥 무용단의 선무 공연에 이어 성악가인 김재일, 고유경, 김양희, 최현진 등으로 구성된 불교4중창단의 '정진의 노래'로 시작됐다.

1부 순서에서는 경기북, 전남, 경북 등 6개 합창단이, 2부에서는 경기남, 전북, 서울 등 8개 합창단이 무대에 올랐다. 주요 레퍼토리는 '관음의 빛' '보리심' '산사' '귀의하옵고' '기쁜날' 등 인기 찬불가들. 보통 1개의 합창단이 2~3 곡을 음성공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공연에서는 최영철씨가 작사 작곡한 '구인사가 좋아라' '붓다의 노래' 등이 전남합창단의 음성공양으로 새롭게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공연에서는 조명을 받아 온통 황금색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구인사 대조사전을 무대로 합창단들의 유니폼이 고운 오방색 한복에서부터 분홍색 금박 드레스 등 저마다 개성있게 연출돼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천태종-삼보불교음악협회 주최, 구인사서 열려

2시간 30분동안 진행된 이날 공연의 하일라이트는 맨 마지막 순서였다.

14개 합창단 1200여명이 모두 함께 무대에 올라 천태종 합창단 지휘자인 이상규씨의 지휘에 맞춰 5천여 관객들에게 '공심공체 둘 아닌 노래' 등 세 곡을 연달아 선사했다.

저마다 각기 다른 화음이 모여 불심으로 승화시킨 환상의 하모니였다. 이 무대에선 1등도 꼴찌도 없었다. 오로지 존재하는 것은 부처님말씀을 대중에게 음성공양하는 불제자들만 있을 뿐이다.

관객들은 5분이나 계속되는 환호성과 기립박수로 장엄하고 화려한 연합합창단의 음성공양에 화답했다.

객석 맨앞줄에서 끝까지 음악회를 지켜본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환희심이 느껴진다. 불교합창단은 불교의식 수행의 꽃이라고 평소 생각해 왔는데 그동안 천상의 목소리로 곱게 갈고 닦은 기량을 이렇게 직접 듣고 보니 감동스러웠다"며 "소백산 곳곳에 합창단들의 음성공양이 크게 울려퍼져 불국토를 이루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구인사 신도인 김성애 보살(48 · 서울 구로구 독산동)은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사상을 선율에 실은 찬불가를 주제로 한 오늘 합창 공연은 우리 중생들과 같은 메마른 현대인들의 가슴에 한모금의 청량한 감로법문이 되기에 충분했다"고 즐거워했다.

공연이 끝난 뒤 삼보불교음악협회 이사장 운문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심과 평화로움을 이땅에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불교합창단원들이야말로 부처님의 정법을 음악으로 승화시키고 또한 세상에 정법을 널리 알려주는 이 시대의 진정한 포교사"라며 출연자들을 격려했다.



강영화 인제대 교수가 구인사 관성당 5층에서 열린 '불교음악'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불교합창단은 이타보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또한 묘음보살의 미묘한 음성처럼 스스로를 갈고 닦아 미묘음을 갖춰 법석을 거룩하게 장엄하고 듣는이로 하여금 환희심이 나게 해야 합니다."

천태종과 삼보불교음악협회가 주최한 제6회 전국불교음악제의 일환으로 9월 13일 단양 구인사 관성당 5층에서 열린 '불교음악 세미나'에서 천태종 교육부장 용암 스님은 음성포교에 나선 합창단원들이 찬불가 보급에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불가 제 맛 살리려면 우리 전통 화성법으로"

강영화 교수, '불교음악 세미나'서 지적

용암 스님은 이어 "찬불가 포교에 임하는 합창단원들은 음악인이기 이전에 소속 사찰에서 신행인으로서 솔선수범하는 모범불자로서 거듭나야 한다"며 "종교음악이 일반음악과 다른점은 기교나 음악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심이 기본적인 바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영화 인제대 음악학과 외래교수는 "찬불가를 서양의 화성법인 평균율로 작곡하게 되면 가사가 아무리 불교적이라도 찬송가같은 느낌이 들 수 밖에 없다"며 "불교음악다운 찬불가를 만들려면 한국적이며 민족정서가 듬뿍 담겨져 있는 새 화성법으로 작곡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교수는 또 "현재 대중화 돼 있는 국악찬불가는 음계의 구조에 있어서 전통음악의 순정률이 아닌 평균율로 이미 서양화 돼 있어 단지 서양악기가 아닌 국악기로 연주한다는 것이 국악의 전통성에 별 의미가 없어졌다"며 "찬불가의 멋과 정서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국악기를 개량한다면 한차원 높은 우리의 불교음악이 탄생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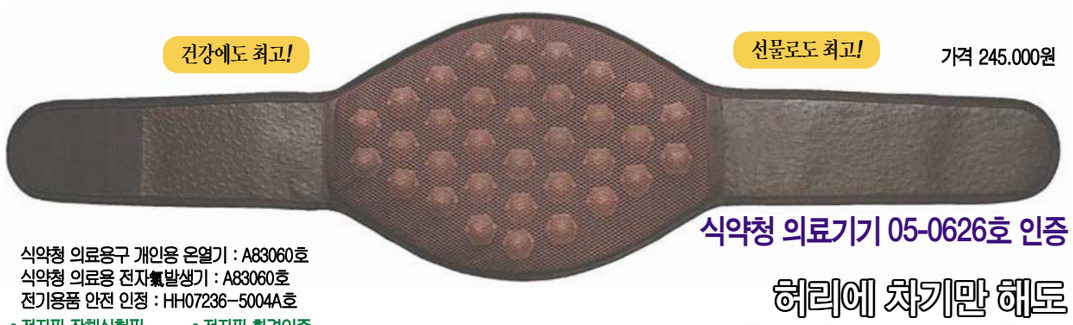


내년 9월 삼보불교음악협회와 공동으로 개최 예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파 스님(왼쪽)이 전국불교음악제 개최기를 운문 스님으로부터 이양받고 있다.

내년엔 상암월드컵경기장서 만나요

한편 '우리는 하나, 마음도 하나, 뜻도 하나'라는 슬로건 아래 2001년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전국불교음악제는 제1회 세종문화회관, 제2회 부산 삼광사, 제3회 대구 동화사, 제4회 세종문화회관, 제5회 경주 불국사 등 전국을 순회하며 불교음악 활성화를 취지로 삼보불교음악협회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제 7회 음악제는 내년 9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공동으로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단양 구인사/글=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열침의효능 —— HEALTH BELT
삼성화재
금강약돌 온열복대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가격 245.000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氣발생기 : A83060호
전기용품 안전 인정 : HH07236-5004A호
• 전자파 장해실험필 • 전자파 환경인증
• 삼성화재 배상보험 가입 •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강력한 원적외선 "열침"의 효과
불자님 안녕하십니까. 건강의 등불 금강닥터사입니다.다년간 건강제품에 열정을 바쳐온 본사에서는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 3대 특산품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한 기능성 건강치료기 온열복대를 개발하였습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볼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체내의 노폐물 배출 및 체지방분해로 만성위염, 소화불량, 생리통, 변비등에 탁월하며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백혈구가 증가하여 면역성이 강해지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실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은뒤 후회를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류의 건강은 더욱더 위협받고 있으며 현대의학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 암세포는 42.5℃라는 보통 세포보다 낮은 온도에서 사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05년 12월 20일 일본 동북대 학생신문(山家교수 발표기사) 발췌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금강약돌 온열복대의 효능
생리통, 복통, 요통, 냉증, 변비, 소화불량, 관절염, 전립선염, 피부염, 복부지방분해, 혈압조절, 피로회복, 체질개선, 혈액순환개선, 산후조리, 스트레스성 대상증상, 숙취, 암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온열복대와 유사품과의 비교

비교내용	유사품(세라믹, 맥반석 등)	금강석 온열복대
전기열선온도	70℃ 미만	95℃ - 100℃
접촉외부온도	50℃ 미만	1시간이내 70-80℃, 1시간후 80℃ 유지
복사에너지	가열시 복사에너지의 신체 투과열이 약하고 뜨겁다. 외부온도 50℃로는 복사에너지가 신체를 1Cm이상 투과하지 못하며, 보온역할 밖에는 안되므로 치료효과를 볼 수 없다.	외부온도 70℃ 이상일 때 복사에너지가 신체 깊이 들어간다.(췌장까지 42℃ 이상의 열이 도달) 1시간 착용시 오장육부의 활동력이 좋아진다.
원적외선	常溫(약40℃)에서 방사량이 90%가 안되며, 90%이하일 경우는 신체의 기를 오히려 뺏기게 된다.	常溫(약40℃)에서 93%, 50℃에서 95%가 방사된다.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원소가 60여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음이온	대체적으로 1cc당 500미만의 음이온을 넣는다.	1cc당 1,000-1,500개의 음이온이 나온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지역 대리점 및 딜러 모집

사이버 지대방 활동 '쑥쑥'



송사모가 창립 5주년을 맞아 오프라인에서 친목을 다졌다. 순천 송광사 경내에서 체육대회를 연 송사모.

2005년 홈페이지 개편이후 불자들의 왕성한 참여를 보이고 있는 조계사 홈페이지(www.jogyesa.org)에도 스님, 지역, 교육/동문, 신도단체, 수행, 포교, 친목, 문화/예술, 기타 등으로 세분화된 80여개의 지대방이 개설되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지대방은 교무국장 석연 스님의 지대방. 조계사불교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불교 자료와 짧지만 감동을 주는 명언 등을 스님이 직접 게시판에 올려놓고 있다. 특히 묻고 답하기, 오순도순 이야기하기 등의 코너를 통해 불교와 신행 상담을 하고 있어 불교를 알고

불교 자료·명언 등 네티즌들에 인기
댓글 주고 받으며 상호 정보교환 활발
"외연 넓힐 뿐 아니라 신행의 새 모델"

싶어하는 네티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개편한 불광사 홈페이지(www.bulkwangsa.org)에서 활동중인 불사모(불교문화를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 회장 서병익)도 눈여겨 볼만한 지대방. 지난해 11월 창립했지만 격월로 사지 탐방을 가며 불교를 배워가고 있다. 탐방을 가기 전에 지대방에서 충분한 사전 공부를 한 다음 탐방을 가 회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

탐방 이후에도 소감을 비롯해 자신이 잘 몰랐던 부분을 댓글을 통해 주고 받는 등 상호 작용이 활발하다.

불사모 장병휘 회장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법활동이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찰 홈페이지 내에서 다양한 주제로 지대방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은 불교 외연을 넓힐뿐 아니라 새로운 사이버 신행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송사모

조계사 지대방

불광사 지대방

홈피 주소 간단해져요

abc.co.kr→ abc.kr로
행정기관은 11월 20일까지
일반은 내년 3월 28일부터

국내 인터넷 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2단계 영문 kr 도메인이 도입된다. 2단계 영문 kr 도메인은 현재의 abc.co.kr 형태의 3단계가 아닌 abc.kr 형태로 포화상태에 있는 kr 도메인을 20만개 이상 확보할 수 있고 네티즌들도 보다 쉽게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불교계에서도 이번 2단계 영문 kr 도메인 도입이 현대인의 생활 공간이 되고 있는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쉽게 홈페이지를 찾아 올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송관호)은 18일부터 중앙 행정 및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2단계 영문 kr 도메인 등록을 시작키로 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2단계 영문 kr도메인의 안정적인 시행 및 시행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방지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등록을 실시할 방침이다.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우선등록기간이 종료되면 11월 21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기존 kr 도메인 등록자가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결과 발표는 내년 2월 28일이며 등록은 내년 2월 28일부터 3월 27일까지 두 번으로 나눠 진행된다.

2006년 3월 13일 이전에 등록된 3단계 영문 kr 도메인 등록인을 대상으로 신청이 이뤄진다. 내년 3월 28일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문 2단계 kr 도메인 등록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두식 기자

문화콘텐츠 국제 컨퍼런스 개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은 9월 18일~19일 DICON 2006 문화콘텐츠 국제 컨퍼런스를 코엑스컨퍼런스센터 3층에서 개최했다. '문화콘텐츠 비즈니스 수익 창출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터너엔터테인먼트 아시아지사 부사장 오리언 로스, 중국 최고의 이동통신사인 쿵중왕의 창시자이자 사장인 닉 양 등이 기존연설을 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국문화의 원류인 문화원형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가가 심도있게 논의되어 주목을 받았다.

김두식 기자

우리 가족 영상 만들기 13

취미·전문용 등 목적따라 구매

편집 보드의 종류

촬영해온 영상을 편집하는데는 편집 보드라는 것이 필요하다. 영상을 컴퓨터로 저장 받아 이를 편집하는데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하면 쉽다. 편집 보드는 단순 입출력을 해주는 것에서부터 상업용 고화질 영상을 다루는 것까지 천차만별이다.

일반 가정에서 단순히 디지털 영상을 필요한 부분만 컴퓨터로 옮기고 단순 편집만을 원한다면 고가의 편집 보드가 필요하지 않다. 단순히 1394카드로 불리는 DV(IEEE-1394) 편집보드만 있으면 충분하다. 기존 편집 보드에 비해 가격이 훨씬 싸고 설치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편집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날로그 신호를 처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단순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제공하므로 간단한 컷 편집 정도는 할 수 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겸용 편집 보드도 있다. 1394카드와 달리 가정용 16mm VTR에서 직접 캡쳐하고 편집한 영상을 다시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할 수 있다. 또한 아날로그 신호를 입출력할 수 있는 컴포지트 단자, S-VHS(supur VHS) 단자를 기본적으로 지원해 다양한 영상을 컴퓨터로 저장 편집할 수 있다. 다만 실시간 편집이 지원되지 않아 편집시 렌더링이 필요하며 편집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에 비해 실시간 편집 보드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실시간 편집이란 최종 영상물을 만드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하는 중간중간에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편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실시간 편집을 지원하지 않는 보드에서는 편집된 영상물을 최종 출력하기 전에 확인 할 수 없다.

실시간 편집 보드는 촬영한 소스를 캡쳐할 때 영상의 모든 정보를 함께 컴퓨터에 저장한다. 저장된 파일은 편집 프로그램에 불러와 편집을 하게되는데 장면 전화 효과나 필터 효과 등 특수 효과를 사용할 때 실시간으로 효과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상업용 편집 보드는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컴포넌트 단자가 지원된다. 컴포넌트 단자는 방송용으로 쓰이는 베타 테이프에 영상을 담는 것으로 사용된다. 컴포넌트 전송 방식은 아날로그 신호중 가장 좋은 화질을 가지는 장점이 있다.

그 외에도 인터넷 방송과 멀티미디어용 편집 보드가 있다. 이 보드는 인터넷 방송을 위한 ASF(active streaming format) 파일을 지원한다. 이미 만들어진 영상을 단순히 스트리밍 파일로 전환할 경우 실시간으로 제작할 수 있지만 편집하고 있는 영상을 스트리밍 파일로 만들때에는 별도의 컴퓨터에 보드가 설치되어야 함으로 경제적 부담도 크다.

편집 보드는 사용자가 취미용, 전문 편집용 등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 지원되는 기능을 보고 구매해야 한다. 최종 결과물을 CD나 DVD에 보관할 생각이면 단순 1394카드만 있으면 되지만 상업용 베타 테이프를 보관할 생각이면 컴포넌트 단자를 지원하는 보드를 구입해야 한다. 기능별로 가격차가 크므로 용도나 기능을 잘 보고 전문 기술력을 갖춘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김두식 기자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문화상품전문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돈벼락 복도깨비
브랜드 : SunwooArt
장난이 심하고 때로는 심술궂지만 익살스럽고 천진난만한 도깨비. 금나와라 뚝딱하고 순식간에 행운과 재물을 가져다 준다.
가격: 20,000원

관세음 여의주 수진언 향로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영험의 가보 중 하나!
99% 청동만으로 만든 영험의 명작

불교에서 관세음보살 수진언은 세상 모든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영험을 담고 있으며, 실제로 관세음수진언은 큰스님들로 하여금 그림으로 그려져 어려움을 겪는 불자들에게 긴급비방으로 사용해왔다.

관세음보살 수진언 향로를 집안에 모시는 순가부터 관세음보살의 성심으로 어려운 사업장이 부도 위기를 넘기고 2년간 패하기만 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어렵다고 생각한 아들이 S대학에 합격하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부동산이 팔리고, 복권 1,2,3,4등이 모두 당첨되는 등 관세음보살님의 영험이 나타나고 있는 국내 최고의 향로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윤달이 있는 해에는 부처님 공양구를 가정에 모시면 삼재도 소멸되고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며 화를 좇고 동서남북의 보배재물이 들어오며 소망하는 모든 것이 부처님 가피로 성취된다.

관세음보살 수진언 향로는 99% 청동만으로 국내에서 불경에 입각해 제작했으며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 들어오는



무게 2.5kg 높이 22cm 가로 17cm

향로는 만들기 쉽게 합금을 하여 2~3년만 지나면 회색꽃이 피고 부식되고 변질되지만 관세음수진언 향로는 천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으므로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켜주는 가보와 수호신으로 가정에서 추석 제례시 또는 예불시 사용하다 후손에게 물려줘도 손색이 없는 국보급 향로로 인정받고 있다.

관세음 여의주 향로의 비방은 원하는 소망의 방향에 놓고 소원기도를 하며, 평상시 사용하면 된다. 전화로 신청하며 우체국 특급택배로 정성껏 보내드리며 신용카드 분할 구입 또는 현금 구입할 수 있다. (가격 29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예불시 제례시 향피우고 사용!

소원 성취 비방 향로 놓는 방향

- 업이 풀리지 않고 있을 때의 비방은. 동쪽
- 중대한 시험을 앞둔 합격의 비방은. 서쪽
- 자녀를 기다리는 잉태의 비방은. 북쪽
- 승진과 취업을 기다리는 비방은. 서쪽
- 중대한 병고로 소생의 비방은. 북쪽
- 송사문제의 승소의 비방은. 서쪽
- 인연의 짝을 찾는 결실의 비방은. 동쪽
- 가정의 위기와 애정회복의 비방은. 북쪽

평생 부자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옴마니반메훔福지갑
음양의 조화로 놀라운 재물과 땅속의 보화까지 얻는 비방



님성용중지갑 (검정)
여성용롱나노 장지갑
(적색, 보라색)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몸질로는 고통을 받고, 해결해야할 문제는 쌓이고, 부부간의 애정은 멀어지고,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답답한 것은 음양의 조화를 깨닫지 못해 일어나는 일들이다. **세상사는 동안 고통중의 고통이 몸질이 없어 당하는 고통으로** 부처님께서 시위국 기다림 산중에 계실 때 가난으로 헐벗고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불경에 입각해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필라불공사에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일반지갑과는 비교될수 없게 최고급으로 제작하고 천연가죽에 은나

노처리까지 했으며 지갑입면에는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동서남북에서 돈을 들어오게 하는 보병과 악귀와 잡귀를 쫓고 계획한 일과, 하고 있는 일을 막힘없이 성취시키는 영험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넣었다.

출시 100일만에 안되면 장사가 잘되고, 절망속에 있던 사업장이 희망이 넘치고, 생각지도않던 돈이 들어오고, 못팔아 걱정하던 재고가 팔리고 고민하던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등 모든 문제에는 비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갑이다. 옴마니반메훔 지갑을 여성이 지닐때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지며 음양의 조화로 부부관계도 놀랍게 회복된다고한다.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대단히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할때 사용하실 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축원불공을 드려드리며 지갑은 우체국택배로 바로 보내준다.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중지갑 6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네팔 왕실 특산품!
3백년산 히말라야 석청, 동충하초, 산삼등 (중풍, 암, 당뇨, 혈액순환, 면역성 향상, 위장병 등) 을 스님들께만 특별가로 보시해 드리며, 효과 없을 시 100% 환불해 드립니다
이 준 규
011-277-9735

기공지도자
전 문 과 정
수련생모집
행자모집
대한불교전통기공협회
051)852-2277
016-551-9700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數(수)修理(수리) 사주팔자
● 천체의 이동에 따른 지축의 정립으로 인해 1년이 360일이 되며 양력과 음력이 일치하니 기존의 달력이 새달력으로 바뀌며 周易(주역) 다음으로 제 3역인 교易(정역)으로 쓰인다. (일부김항선생의 정역편에서 발췌)
• 동서양을 통해 변하지 않는 근본(기본적) 숫자를 통한 특유의 접술로고.
• 숫자가 사람 장소 사물에 대해 제공해줄 수 있는 숨겨진 의미를 찾아 운명해독의 비법전수
• 교재) 수수리수인작법서 무료증 (시중에 절판된 책)
수강처 : 031)633-1517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빼빼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제 24기 풍수지리 사주학교육생모집
● 강사: 임창열(배재대, 서라벌대출강)
● 풍수지리: 매주 화, 금(10시, 14시 ,19 시)
● 사주학: 매주 월, 목 (10시, 14시 ,19시)
http://www.kpse.co.kr
042)255-8482
011-437-8807
한국정통풍수지리교육원

참선중에 오는 병고, 마장을 佛기로 녹여드립니다
(오후 7시 이후 통화)
02)392-5809

조상 천도재 무료로 여법하게 집전해드립니다
(단 준비물만 해오십시오)
031)834-3207
017-288-6863
010-4860-6863

행자모집 (예비스님)
참신하고 불심이 돈독한 (女)행자를 모집합니다
연령: 45세 미만 여성
사단법인 대한불교 흥은선원 흥은사
054)822-3133
011-9576-4450

경주 도심속 자연경관이 수려한 「비구니선원」 분양안내
■ 22.2평형 - 3세대
■ 18평형 - 3세대 } 총 잔여세대 평당분양가 (390만원)
■ 14평형 - 5세대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선도산 금선사 여래선원 주지 휴정 합장
문의 전화 054)772-7171 011-538-3879

사주 명리 구성학 성명 택일 궁합 관상 풍수
군위 보현사 학산철학원 원장 학산 합장
(역학개인지도)
054)383-4569
016-717-1592

평생 같이하실 처사 및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55~65세
018-427-2256

미국 가실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자소유)
042)282-9270
042)282-7188

공양주 보살님 및 큰법당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11-746-8698

종무소 사무직 여직원 구함
▷컴퓨터, 숙식가능자
02)353-3004
02)359-7766

대둔산 조용한 토굴에서 수도(수양) 하실분
017-410-1678

공양주 구합니다
▷울산시내, 60세이하
월 보시금 80만원
052)282-8793
011-9556-8793

청정한 나반도량입니다 천일기도 용맹 정진할 비구니 스님과 보살님 모십니다
055)835-9450
011-9790-1779

비구니 주지,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3473-1080
02)3472-1080
010-7448-10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지역
010-3188-5103

공양주 모십니다
▷지방사찰 근무하실분 한분
▷서울사찰 근무하실분 한분
나이 40~50대
011-9269-844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3)256-265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1)545-6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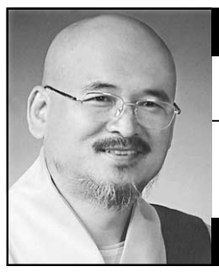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예천
011-336-4665

도반(반려) 구해요
▷서울, 경기권 59세 여성
010-3119-2814

수행중인 스님(비구) 입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수행에 도움을 주실 보살님 모십니다
031)775-1247
011-9275-2921

E-2 비자나. 자녀교육으로, 미국에 오시고 싶으신 분
저는 미국 LA 카우니 세래토스시에서 2000sq 면적의 아주 예쁘고 위치 좋은 스킨케어 샵을 운영하고있는 보현행보살 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귀국하려합니다 소중히 가꾸어 자리잡은 저의 샵에 주인을 찾습니다. 이곳은 학군이 아주좋은 지역이므로 자녀들 유학이나 투자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에게도 좋은 조건입니다.
홈페이지 (www.vivantjoiecerritos.com)나 email: jheo69@hotmail.com 방문하시고 저의쎌폰 미국 213-327-4374 / 샵 562-403-2228으로 연락주세요. 결코 후회하지 않을 좋은 정보입니다.

좋은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복지 사업에 뜻이 있으며 운영 경험 있으신 스님,거사님 및 보살님 연락주십시오.
산사에 건물과 부지를 가지고 있으며 복지사업에 뜻은 있으나 경험이 없습니다.
▷ 위치는 경기 안성 근교
011-9871-0466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교육비 55만원 교육기간 : 2~3일
※교육 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 www.reiki.co.kr(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 화 : 02)720-5719, 720-5682 핸드폰 : 010-8392-2557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불심 영혼 안장법 전수
영혼 안정법이란?
조상 산소 고민하는 분, 이장하지 않고 명당으로 바꾸는 비법입니다
사주 명리 수맥 풍수 교육 후 약간명 전수
문의처 : 054)977-8865. 010-7710-7875
후원 (사)대한불교사주명리연구학회
(사)한국불교문화진흥원 환경 유해파연구학회
금강불심사(대각스님 직접 개인지도)

28숙 특별지도
● 풍수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1:1로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노래하는 성일스님



전국 사찰행사에 부처님 음성공양 (찬불가) 를 불러 드립니다
개원 및 점안식법회, 초하루 보름 법회, 각 재일법회, 산사음악회, 불교대학, 찬불가 지도.
※ 경북 김천 직지사 방면 . 보리사 성일 합장
절 054)433-8034 / 010-4812-8034

초고속 사주육효 무료초대
가족의 건강 , 가족 화목,대인관계사업 · 자녀문제, 취업, 취미 모든 분야의 길흉화복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비켜갈 수 있는 무료강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과목: 명리학, 육효, 역학, 타로카드, 수맥, 풍수자리,자미두수, 성명학, 기문둔갑, 옥입, 인상학,수상, 사주풀이 참선
기초반 :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주말기초반: 매주 토요일 오후 2시~6시 30분
강사: 대학원 동양학 전공, 및 상담및 강사경력 20년 이상8명
장소: 2호선 건대전철역 6번출구 성수 사거리 우리은행 옆 오성빌딩 3층 현대생활역리협회
02)3409-5398 / 019-9225-8000

행자(예비스님) 모집
● 산중 분원인 감포선원(무문관)에서 수행함
☎ 문의 : 054)771-8350. 011-881-9710(주지스님)
- 대구큰절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면 그것도 가능함
- 회주이신 우학스님 상좌됨
- 1인 1실, 민주적 교육, 수계 후 모든 교육비 지원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011-9852-0075(총무스님)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가족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기도
태아영가천도
마음이 불안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분
태아영가천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향 : 2006년 10월 28일 토요일
대불정능엄신주 독송
능엄신주 해석 독송기도
대학입시합격기도
입시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은 열심히 기도하시면 소원이 성취됩니다.
자녀교육문제
자녀탈선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
사법 행정고시 각종 취업 합격기도 책임지도
가정에서 전국 포교활동 하고 싶은 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방법

경전독송기도특강 (3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 기도와 회향 •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⑬기 타
● 지방분 환영 ● 전국 포교활동 하실분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스 님 동참환영
● 군부대 법당 ● 경찰서 법당 ● 교도소 ●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및 상담
●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살고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밝은 사회 만들기
맨발등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부산 대구 마산 안성 치매예방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학업성적 부진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찾아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상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사 암 모 집
本宗은 釋迦牟尼佛을 敎祖로 太古 普愚 國師를 宗祖로 하여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 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로 한다.
본 종단 종지종통에 뜻있는 종도 및 사암을 모집 함
• 종 정 대 행 : 각 암 • 원 로 의 장 : 청 산
• 중앙종회의장 : 무 원
• 총무원장 : 능 인
• 총무원 삼보선원 : 정 산 (011-421-4688)
• 서울 교구 극락사 : 해 성 (016-266-4874)
• 경기도 교구 각원사 : 혜 일 (010-3033-2363)
• 충북 교구 용원사 : 무 원 (011-272-9451)
• 경북 교구 대원사 : 범 아 (017-507-8825)
• 대구 교구 관음사 : 향 운 (011-9988-1798)
• 울산 교구 관음정사 : 호 암 (050-2378-2378)
• 경남 교구 황룡사 : 정 도 (010-5603-2833)
• 부산 교구 불심원 : 무 안 (010-9611-0384)
• 중앙연수원 팔공사 : 혜 명 (016-9396-4402)
※ 각 사암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총무원 및 각 교구 종무원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 총무원 : 구미시 사곡동 670-1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 문 의 : 054)464-4725, 464-4735 총무원장 010-7302-0077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포천	● 위치: 충북충주	● 위치: 마산
● 법당: 22평	● 법당: 23평	● 법당: 17평
● 요사: 13평	● 요사: 61평	● 요사: 32평
● 부지: 134평	● 부지: 2000평	● 부지: 100평
● 가액: 2억 2천	● 가액: 6억	● 가액: 2억 6500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 관악구포교당-월 85
2. 서울명산목조사찰-6억
3. 서울산속사찰만평-20억
4. 서울국유지사찰-10억
5. 강남포교당100평-월 300
6. 은평구포교당-40평-월 50

•기도스님공양주신속연결
불교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토 굴 안 내

● 위치 : 지리산 자락 하동 악양
●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33평, 부지 672평
● 가액:2억2천
● 특징 : 집 위 대숲, 집안 연못과 잔디밭
016-367-2112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홍성 광천읍
● 건평: 50평
● 대지: 200평 전: 300평
● 가액: 1억 5천만원
011-425-605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소재
● 총평수: 416평 田 88坪
● 건물: 3동 60평
● 가액: 3억 5천 (절충가능)
010-3542-3203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 위치: 수원근교
● 부지: 약100평	● 부지: 100평
● 법당: 24평	● 법당: 15평
● 요사: 25평	● 요사: 20평
● 가액: 6억	● 가액: 년오백깔세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삼소 (구,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토 굴 안 내

● 비구니 스님 적합
● 위치: 경북 성주군 대가면
● 대지: 105평
● 가액: 1천 9백만원
010-7207-3323

사 찰 안 내

● 위치: 합천군 삼가면 진주에서 30분거리
● 대지: 240평
● 법당: 25평
● 요사 3채, 산신각, 용왕전 모셔져 있음
● 가액: 2억
011-9571-1710

기도원, 수련원안내

● 위치: 일죽IC에서 충주방향 15K
● 대지: 800평
● 건평: 120평
● 건물 3동, 주차 20대
● 대로변에서 700M(포장)
● 가액: 3억
주인직접 011-712-9121

사 찰 안 내

●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장산리
● 법당 25평, 요사채 30평
● 총부지 560평 아담한 사찰
● 가액: 1억 6천 8백만원
055)674-8089
011-9232-6462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 위치: 경기
● 대지: 200평	● 대지: 약250평
● 법당: 약 25평	● 법당: 약30평
● 요사30평산신각,용왕전	● 요사: 약60평
● 가액: 4억 3천	● 가액: 3억 교통편리복지시설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마산시-아파트 밀집지역
● 건물 : 지하 1층, 지상 2층 1층은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전세 1억 (절충가능)
● 비구니스님 환영/즉시 법회 가능
011-9503-3442

포교원(급)안내

● 위치: 인천 부평역 10분거리
● 평수: 4층 건물 중 3층 35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가격절충
●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됨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8676-692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범일동 부산은행 앞
● 평수 : 총 70평 법당 35평, 요사 35평 복재 인테리어 최고의 설비와 안정된 여건 환경
● 보증금 5,000만원, 월50만(전세가능) 시설비 : 2,000만원
011-307-3473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근교
● 평수 : 목조 20평 요사채 43평
● 땅부지: 550평
● 가액 : 4억 6천만원
● 용왕당, 산신각 모두 되 있음
010-2300-2209

토굴별장안내

● 위치: 남덕유산 자락
● 부지: 1630평
● 가옥: 신축 황토기와집 55평, 창고 10평
● 특징: 집 옆으로 개울이 흐르고 집뒤에 솔 숲. 정원이 아름다운 집
● 가액: 5억 3천
017-432-3663

사 찰 안 내

● 소재지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고속도로 횡성IC, 새말 IC 20분
● 대지 500평(미등기 1,000평) 법당 30평(2층 1층 요사, 2층 법당) 요사채 70평, 산신각
● 가액: 3억(절충가능)
010-7211-5066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시 내당동 전철역에서 걸어서 3분 아파트 주택가
● 3층법당 40평 다다미방
● 주지실, 상담실, 공양간, 화장실
● 삼조불, 탱화,신중탱화,산신탱화 모신지 두달 됨
● 전세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1200만원 몸만 오시면 됨.시설완비
010-5710-1732

사 찰 안 내

● 위치 :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소재지
● 법당 : 한옥 임법당 25평 요사 : 조립벽돌 30평
● 종교부지 300평, 시유지 550평
● 약사석불, 산신각, 면사무소 인접
● 절앞 마을, 뒤 소나무숲, 절충가함
● 양도가 : 1억 7천
011-677-8525

사찰부지및수목장

(기도원, 연수원, 수목장)

● 위치: 충남 논산시 벌곡면 도립공원 대둔산 인근, 대전에서30분
● 면적: 7만 3천평
● 가액: 평당 1만원/ 주인직거래
● 이용가치: 사찰부지 및 수목장 최적지 (수목 울창한 청정계곡 . 포장도, 차량진입)
017-405-1554
야간10시 이후 042)522-2588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양평읍 5분거리
● 대지: 560평 법당 24평(목조), 산신각 5평(목조)
● 가액: 3억 1천만원 (절충가능)
031)771-5780
011-9090-1665

(제주도)목조사찰 안내

● 대웅전(목조단청)25평, 요사채 30+15평(2동), 산신당 (목조단청), 용왕당, 종각(단청), 석조약사여래입상, 7층탑
● 건평 약 400평 반지하방6(100평)
● 가액: 3억 5천만원
● 특징: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일주도로변(일출봉, 우도, 한라산보임) 바다2분거리의 그림같은 전통3포기와로된 사찰임 ●직접거래
011-858-889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의정부 역 앞 3분거리
● 평수 60평, 법당 30평
● 시설: 삼조불,후불,신중,영단,산신방2개, 사무실, 샤워실, 욕실, 주방, 싱워장, 옥상 사용 도시가스사용
● 가액 : 2천만원/월 4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11-529-2541
031)873-8893

멋진밀양사찰안내

● 위치: 부산 대구 신고속도로 밀양IC에서 6분거리, 언양 울산 30분
● 대지: 514평, 건평 약 100평
● 산신각, 일천관음등 및 연등법당, 잘 꾸며져 있음
● 황토집 2채 20평, 주차 15대
● 법당 뒤 대밭 조성되어 있음
● 대지 전체 돌담되어 있음
● 가액: 3억
010-5572-1501

포교원 같이 운영하실 화주보살님 구합니다

▷나이 50~70세
011-835-7692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시내
● 대지: 98평
● 건물: 약 200평
● 주차공간 충분함
● 가액: 10억
● 엘리베이터 있는 4층 현대식건물임 포교 · 불교대학 최적지임
010-9550-8793

토 굴 안 내

● 위치: 충북 옥천 (대전에서 20분 거리)
● 대지: 200평 중 100평 등기필
● 건평: 법당 25평 산신각 7평 요사채 2동(18평, 11평)
● 시설: 예쁘고 완벽하게 갖추었음
● 가액: 1억 1000만원
011-9405-8186
043)733-818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
● 대지: 170평, 법당: 25평
● 요사 2동, 산신각, 주차시설 약 10대
● 사용평수: 약 1천평 부전스님 모심
● 가액: 4억원
010-8529-0863

지 리 산 토 굴 암 자 안 내

● 위치: 경북 산청군 단성면
● 대지: 430평, 목조법당 20평
● 요사: 20평, 공양간 7평
● 가액: 9천 5백만원
055)972-4018
010-7179-369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익산 근교
● 대지 : 130평
건평 : 1층 요사 55평 2층 법당 30평 산신각 5평
● 교통편리,심야보일러
● 가액: 2억 5천
017-336-7523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4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4억5천만원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사 찰 (급) 안 내

● 위치: 영천 · 건천 IC에서 20분
● 종교부지 350평, 임야(뒷산) 대웅전 10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용왕당, 집기비품 등
● 가액: 1억 5천만원(절충가능)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16-831-3022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근방
● 대지: 약 500평
● 대웅전: 20평
● 산신각: 15평
● 요사: 50평
011-9516-5364

토 굴 안 내

● 위치: 부산 기장 -임법당
● 평수: 130평
● 법당 20평, 요사채, 방2, 거실, 주방
● 가액: 전세 3천5백만원(달세가능)
● 비품대 1천만원 답사후 절충 앞에는 바다, 뒤에는 산 경관 좋음
018-575-8407

조그만한암자안내

● 위치: 대구시 달성군 논공 100평
● 법당 25평. 종무실, 황토방 7평, 석불, 석탑, 석등, 단청
● 가액: 시설비 3000만원 일년세 150만원
● 사용무제한가능 대구중심 30분 소요
010-2800-4962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경관수려, 시내에서 걸어서 5분거리
● 대지: 100평 건평 3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2천만원(시설완벽), 절충가능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11-333-3859
033)244-2534 진황합장

사 찰 (급) 안 내

● 위치: 인천 계양 (상가 2층)
● 총평: 40평, 법당: 20평, 요사: 2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방 2개, 입식 화장실, 보일러 10년된 포교원
011-9769-8868

별 장 식 토 굴 안 내

● 위치: 춘천시 강촌 인접
● 구조: 멋과 모양을 갖춘 한옥식 휴식공간
● 건물: 가옥 등비 완비 (방3,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정원)
● 평수: 130평
● 가액: 6000만원
● 특기사항: 망중한을 즐길 수 있는 아란야인
010-6312-8637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대지: 약 800평
● 법당 32평, 요사채 2채, 큰 창고, 주차시설 완비 관상용 양어장
● 비구니스님 기도처
● 가액: 2억 3천만원
055)883-8846
010-8564-0302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초동면
●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 대지 235평
● 즉시법회 가능
● 요사채 모두 꾸며져 있음 시설일체
● 가액: 절충가능
010-2583-0402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포천시
● 부지: 1300평
● 건평 53평, 25평, 17평 세동
● 가액: 3억 8천만원 산세수려한 청정지역
010-3929-1113

사 찰 안 내

● 위치:충북진천 IC에서 10분거리 서울중부고속도로 IC 1시간 거리 서울에서 1시간 거리
● 총평수 : 550평중 종교부지 300평
● 건물 :요사채 겸 법당 40평
● 가액: 2억 3천만원
● 특징: 주차완비, 산계곡 단독 청정, 안정된 곳
010-2333-3638

암 자 안 내

● 위치: 아산시 대방면 호서대 근처 천안에서 20분거리 온양에서 20분거리
● 산신각 4평, 법당 15평 요사채 50평
● 사용할 수 있는 부지 3백평
● 옷샘, 약물
● 가액: 8천 5백만원
010-2000-5809

사 찰 안 내

● 위치: 진주시 문산
● 산세수려한 곳
● 법당1, 방3개
● 전세, 매매 가능함
055)761-8998
011-870-6493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부여
● 대지 180평 ● 1, 2층 건물 1층(살림집) 47평, 2층(법당) 47평 심야전기보일러설치되있음
● 가액: 전세 4천만원
010-7355-7388
016-294-0261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월평도 소재
● 대지 : 140평
● 대웅전 20평 (인법당, 시설완비)요사채 30평
● 산과 바다가 보이는 최적 수행 도량
● 가격: 1억
011-511-2609
064)748-200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경남 삼천포
● 상가건물 3층 3층
● 평수40평
● 법당, 방 2개, 주방
● 보증금 500만원, 월15만원
● 시설비 집기일체 1000만원
010-2655-349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대구 지하철 송현역부근
● 평수: 75평
● 2층 건물 2층, 시설 최상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900만원 대형주차장 있음
011-511-0969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대 사찰
● 사용부지 1천평 중 종교용지 300평 국유지 700평
● 가액: 10억 ※부동산 사절
051)326-1545
011-563-1545

토 굴 안 내

● 위치: 경남 함안군
● 평수: 406평
● 임법당, 요사 2채
발전가능성이 무한한곳 시설완벽
● 비구니스님에게만 양도가능
● 가액: 2억원
011-9554-5674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 서생 간절곶부근 (해가 제일먼저 뜨는곳)
● 300평, 건물 2동
● 법당25평 및 요사채(방8개, 전통한옥), 법당(삼존불)및 산신각 완벽하게 조성
● 가액: 1억 8천
017-578-2815

포 교 당 안 내

● 위 치 : 경산시 최고 중심
● 건 물 : 5층 건물에 5층(EV유)
● 평 수 : 80평, 법당 40평, 주지실, 종무실 후원 30평
● 가 액 : 보증금 1000만원 월70만원
● 시설비 : 2000만원
010-7181-6794

사찰운영같이하실분모심

● 위치: 언양(울산)근교
● 규모: 면적 약 5000평 건물 사찰 300평(현재 운영중)
● 참여하실분: 능력 또는 약간의 재력이 있는분 누구나 동참 바람
052)263-5143

가 야 산 별 장 안 내

● 면적: 15000평
● 건물 30평, 집 65평, 집 20평 창고 겸 50평
● 못 4개, 정자 2개, 인공폭포 1개 (도로인접) 자연폭포 (산 중턱) , 잔듸밭 1천평
● 조경이 100% 완벽-석등4, 12층탑1, 5층탑 2개 그 외 탑 10여개, 기도처나 절로 적절
● 가액: 절충가능
011-829-2957

별 장 안 내

● 위치 : 팔공산 뒤 갓바위쪽
● 대지 200평, 건평 57평
● 웅장한 거실, 큰주방, 욕실 2개, 큰방2개, 보통방2개, 황토구들방 1개
● 좌우 산으로 둘러쌓여있고 정남향집, 못도 있음 한 마을에 4가구
● 가액: 1억 6천만원(조정가능)
053)853-2464
017-808-2543

포 교 당 안 내

● 위치:서울시 목동 사거리 남부시장옆
● 3층건물중 3층, 약 53평
● 법당, 방2, 부엌, 목욕탕, 베란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삼존불과 탱화가 잘 갖추어져 있음
● 가액: 보증금 2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800만원(절충가능)
011-621-9216
02)2645~4200

불자전원주택안내

산좋고 물좋은 감악산자락의 단독 신축 건물

● 평수 : 33평형
● 방4개, 주방, 거실, 욕실, 심야전기보일러
● 텃밭사용可
● 가액: 전세 3500만원
신심깊은 불자 및 요양 예술활동가 환영
※평생을 같이할 50대 공양주 모십니다
016-703-6648
031-867-1801

포교당(급)안내

● 위치: 서울 성동구 건대전철역 2호선,7호선 7분거리 세종빌딩 4층
● 평수: 70평
● 법당 25평, 방3, 주방, 욕실, 화장실, 도시가스 베란다, 엘리베이터 시설 완비, 주차 시설완비
● 집기: 에어컨 2대, 불상세분, 신중탱화 (즉시법회가능) 성수동에서 포교당한지 10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150만원(절충가능) (시설비 답사후 절충)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11-735-4316

사 찰 안 내

● 위치: 정선군 임계부근
● 대웅전 20평(목조건물) 산신각 5평(목조건물) 요사채, 행랑채
● 평수: 총 2312평 산세수려하고 소슬용궁
● 가액: 3억 5천만원 (융자 4천 포함)
033)562-7053
011-9793-7052

새롭고 주체적 시각으로 정신문화 원류 찾는다

문화교양지 '유역' 창간



고대사를 왜곡하고 근현대의 역사 가치마저 제멋대로 해석하며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중국의 입에 재갈을 물릴 방법은 없을까? 정치 군사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다소 장기적이긴 해도 우리 국민의 투철한 역사의식이 가장 근원적인 '무기'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고대사는 물론 민족정신의 근간이 되어 온 다양한 문화의 원류를 탐구하는 새로운 개념의 문화교양지 <유역(流域)>(사진)이 창간됐다. 가을 겨울호로 최근 첫선을 보인 <유역>은 △한국의 역사문화 예술에 대한 새롭고 주체적인 시각 발굴 △북한 몽골 시베리아 지역의 북방문화와 역사의 재발견 △세계화와 한국문화의 관계 조명 △우리의 전통 문화와 지리, 풍속의 재발견을 통한 삶의 가치 찾기 등을 모토로 내 놓았다. 또 "여러 민족들이 지닌 역사적 인문학적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들간의 차이와 공통성을 살핌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자 한다"는 의욕도 밝히고 있다.

창간호의 첫 번째 특집은 '고구려를 찾아서'. 특집에서 강우방 前이화여대 초빙교수는 '요하문명과 한국'을 통해 요하문명의 완성자로서의 고구려의 미술과 정신을 조명했다. 전태호 울산대교수도 '고구려, 미래를 향한 추억'을 통해 고구려 역사와 문화를 조망하며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에 대한 안타까움과 우려를 토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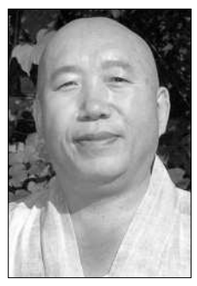
두 번째 특집 '시베리아 샤머니즘'은 김수남 작가의 사진과 양민종 부산대교수의 '샤머니즘인가 엘리아데이즘인가'를 통해 종교적 근원으로서의 샤머니즘이 갖는 가치와 우리민족 문화의 원형적 가치 등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미술사의 탐방' '유역을 찾아서' 등의 콘텐츠와 중견 시인들의 신작시, 소설, 문학평론 등을 담고 있다. '미술사의 탐방'은 기존의 명논문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창간호에서는 강우방 교수의 '세계미술사1'과 故 오주석 선생의 '조선왕조 회화의 이해'를 실었다. <유역>의 발행인은 문학평론가이며 솔 출판사 대표 임우기씨다. 값은 18,000원. (02)332-1526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원인 없이 형상 없으니 '空'

성관 스님 '백파의 식지변설…' 논문서 공사상과 유식합일점 도출

조선시대 유식사상(唯識思想)을 집대성한 백파긍선(1767~1852)의 유식관과 불교의 공사상을 결합시킨 최초의 논문이 발표돼 불교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여래선원 주지 성관 스님(사진)은 최근 <불교학 연구> 가을호에 발표한 논문 '백파의 <식지변설>에 대한 고찰'을 통해 백파의 입장에서 본 식(識)의 문제와 지(智)의 수행원리를 공사상에 적용해 선(禪)의 무분별지에 대한 논리를 전개했다.



논문은 백파의 공관(空觀)과 유식(唯識)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본래 없기 때문에 공이요(遍計所執), 유형은 인연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공이며(依他起性), 원인 없이 공중에 유형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圓成實性)'이라는 논지로 공사상과 유식에 대한 합일점을 도출하고 있다.

<식지변설>은 조선의 억불숭유 정책으로 말미암아 승단체계가 무너지고 교와 선이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백파가 선에 입문한 사부대중과 함께 수선결사해 저술한 조선시대의 대표적 유식학서다. 내용 구성은 역대 조사의 선지와 선풍을 한데 모아 식이 분별하는 여러 문제를 지해(智解)하고 선리(禪理)를 올곧이 펼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성관 스님은 "<식지변설>은 선수행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효의 <발심수행장>과 보조국사 지눌의 <계초심학입문>을 인용해 식의 올바른 지해(智解)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며 "이는 어리석은 분별도 지혜로운 분별도 모두가 조금 안다고 하는 하나의 의식에서 일어난 식의 분별이므로 정(正)과 사(邪)의 바른 지해로 생멸에 대한 분별을 여읜 바른 지혜탁마에 정진할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성관 스님은 <식지변설>의 내용 가운데 <한불전>의 대목을 인용해 "식(識)이란 '알음알이'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는 제법의 실상을 잘못 분별했을 때 일어나는 인식으로 이것이 업(業)을 지어서 결과적으로 삼계를 윤회케 하는 주체가 되며 지(智)는 부동심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번뇌망상을 끊고 성불할 수 있는 도리를 말함"이라고 말했다.

바꾸어 말하면 지는 곧 '마음 본체'를 가리키며 전변(轉變)하여 어떠한 실상도 없다는 것. 그리고 마음 밖에 있다고 하는 물심(物心)의 모든 현상은 그 자체가 주관과 객관으로 변해 나타나서 인식의 대상과 같은 모습으로 마음 가운데 유형으로써 비춰 떠올려 실재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다.

또 "식의 올바른 증득을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육바라밀 실천과 형식이나 외형적인 계상(戒相)보다 청정한 계율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수행의 단계에 대해 성관 스님은 "육바라밀의 수행단계를 중생구제의 실천덕목인 '보시, 지계, 인욕'과 자리이타 덕목인 '정진, 선정, 지혜' 등으로 나눠 이를 바탕으로 한 반야행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육바라밀의 실천수행은 식의 분별심을 버린 바른 믿음의 신행인 '아뇩다라삼먁삼보리(최상승의 깨달음 혹은 정등각)'의 무분별 지혜에 이르게 됨을 말하고 염불수행 또한 칭명염불이 아닌 '염불하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돌이켜 관찰할 것을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논리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육바라밀 수행의 근본'이라는 것. 이는 곧 <대반열반경> 사의품을 인용해 식과 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식지변설>의 핵심 내용인 '더럽고 깨끗함이 모두 하나의 식이 일으킨 문제를 바로 지해(智解)하여 오직 마음이 깨끗하면 불국토가 깨끗하며 중생의 성품이 본래 부처이므로 마음이 청정하면 그대로가 극락정토'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불교로 여는 상담심리학 새 길

'밝은사람들', 학술연찬회 가져



최근 '불교사상'을 모체로 한 상담심리학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밝은사람들연구소는 9월 9일 '불교와 학습이론, 그리고 불교상담'을 주제로 학술연찬회를 열었다.

'퓨전심리학'. 불교를 상담에 접목시킨 새로운 학술분야를 일컫는 신조어다. 2500년 동안 사람의 마음에 대한 체험적 연구 · 성과를 축적해 온 불교가 최근 상담심리학과 접목되면서 정신의학과 상담심리학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고 있다.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는 9월 9일 동국대 다향관에서 '불교와 학습이론, 그리고 불교 상담'을 주제로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 동국대 불교학과 김보경 교수, 동국대 불교학과 박인성 교수, 덕성여대 심리학과 김정호 교수 등이 불교상담의 성격과 영역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김보경 교수는 '지금 자신의 모습은 과거 행동결과의 총화며 업과 훈습이 쌓여 현재 나의 습관과 성격을 형성한다'는 불교의 인연법을 '나(我)라는 실체를 조건화와 학습된 결과물'로 보는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의 이론과 접목시켜 불교상담을 설명했다.

그는 '명상 · 좌선을 통한 심리치료'와 '통합성 회복 치료 단계(육바라밀을 통한 이해와 공감회복 치료'는 8고의 원인이 되는 애욕을 제어할 수 있는 불교상담의 실질적 치료법"이라고 주장했다. **노병철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64>

이노베이션

세계는 빛의 속도 만큼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인간은 20세기, 100년 동안 수많은 이노베이션으로 우리의 생활 방식과 사고를 바꾸어 놓았다.

다시 말해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상거래 교육 의학 금융 통신 산업 등 우리 사회 전반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20세기 들어서 시작한 이노베이션 중에 동양에서 시작한 것이 얼마나 있을까. 자동차 비행기 TV 로켓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 인터넷 디지털 카메라 등 수 많은 발명품 중에 동양에서 발명한 것은 없는 것 같다.

동양이 이노베이션을 주도할 수 없었던 이유를 혹자는 유전적인데서 찾기도 하고 유교의 봉건주의 사고에서 찾기도 한다. 이들은 또 서양이 이노베이션을 주도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 민족간의 전쟁을 통한 문명의 흡수통합에서 그것을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노베이션은 앞으로 더욱 더 인간을 변화시킬 것이다. 통신기술에 의해서 야기되는 전 세계적인 단일화는 무역뿐만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영역, 언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과거에는 전화로 호텔 숙박, 열차표 등을 예약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지구촌 어디에서나 어느 호텔이든 예약할 수 있다. 또한 생명현상을 분자수준에서 이해하고 이를 조작하면서부터,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변화를 강요할 것이다.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하던 컴퓨터 조립을 최근에는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듯이 미래에는 어린아이들도 DNA조작을 쉽게 할 수 있을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이 돌아올 수 없듯이 변화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듯이 보인다. 인간은 앞으로 더 많은 에너지 자원을 사용할 것이고 DNA 조작에 의한 생명조작도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전 세계는 이노베이션을 향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눈부실 정도로 발달한 핵과 컴퓨터공학기술을 가진 중국과 인도의 이노베이션은 더욱 더 그렇다. 교육 또한 이노베이션에 적합한 인재를 기르도록, 창조적인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양은 오랜 동안 정신세계에서 이노베이션을 계속해 왔다. 서양이 인간 밖에서 이노베이

혁신의한 과학기술발전 인간 삶 방식에 큰 변화
불교, '이노베이션시대' 어떻게 이끌지 고민해야

션을 지속하는 동안 고집스럽게도 내면의 세계를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달마대사가 동양에 선사상을 전해준 이후, 500년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선사상의 발전은 참으로 눈부시다. 육조대사에서부터 조주, 마조로 이어지는 정신적인 이노베이션은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 마음을 밝혀준다.

또한 조선시대의 극한적인 핍박에서도 한국은 경허선사와 같은 꽃을 피웠다.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에도 만공, 효봉 선사에 의해서 선이 이어져 왔다.

끝없는 과학기술에 의해서 인간의 참모습마저 변화하는 이때, 한국불교의 정신적인 전통이 어떻게 과학기술의 이노베이션을 이끌지, 어떻게 인간의 행복에 기여할지 고민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불자들의 사명인지 모른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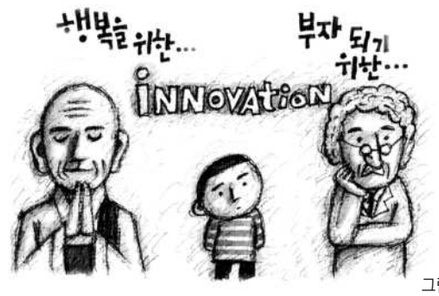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불자정보
- 규격:5×5cm=50.000원
- 계좌:농협 053-01-227471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 전화:02) 2004-8213~6 02)732-1522 (直)
- 전송:02) 737-0696
- e-mail:jabi1522@empal.com

포교당안내
- 위치: 용산구 동자동(서울역부근)
- 4층건물에 3층, 4층은 요사채
- 평수: 20평
- 삼존불, 아미타관세음, 약사,지장 시설완벽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600만원(월세가능) 꼭 하실분만 전화하세요

02)718-0327

사 찰 터안내
- 위치: 진주시 정촌 계양역 근처
- 대지: 1500평
- 가액: 평당 17만원
- 특징: 풍수학자들도 놀라는 확실한 명당 터.

사 놓기만 하여도 돈이 되는 땅

055)748-0194
010-748-0192

포교원안내
-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경기 제2청사 앞)
- 평수: 83평
- 가액: 보증금 5천만원 월세 90만원
- 시설비: 1천 5백만원

031-853-0135

사찰안내
- 위치: 경북 의성
- 평수: 대지 150평, 요사 2동
- 건평: 54평
- 삼존불, 16나한 봉안
- 가액: 보증금 650만원 (선세 140만원 포함)
- 시설비: 700만원

010-6374-0034

곤지암 사찰터
- 전기,도로, 얼음물 약수터 되어 있음

5000평- 평 18만원
- 화장장, 장례예식장, 납골당 300M

5166평(관리지역)- 평 15만원 허가득 즉시불사 됨

011-9109-3660
011-9004-3613

암 자 안 내
- 위치 : 부산 중심지
- 1층 18평, 2층 18평
- 가액 : 보시고 상담 후 결정

전세, 월세도 가능

018-502-8080

포교당안내
- 위치: 강북구 우이동
- 삼존불, 탱화 및 산신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2,500만원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2)902-4002

토굴터안내
- 청정심심골 700평 토굴 터

계곡 인접
- 사용평수 약 1,500평
- 가액 :1,700만원

055-573-9772

사 찰 (급)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양남면
- 대지: 1,000평
- 법당: 35평

(산신각, 요사채, 창고, 사무실)
- 가액: 6억 2천만원(절충가)

016-868-554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강동구 성내동
- 평수: 총 100평
- 방 4개, 공양간
- 가액: 보증금 4천만원 월150만원(관리비별도) 시설비 저렴하게 절충

010-5292-1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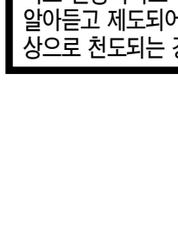
최상의포교당안내
- 위치: 양산 도심에 있는 포교당 (단독주택, 암자처럼 해 놨음)
- 평수: 30평
- 시설완벽
- 가액: 보증금, 시설비포함 합계 2500만원 월 35만원

055)387-2777
010-6318-7507

대도진인 견성도통으로 신선입문에 들어 초능력과 도통하여 신선과 도인되는 경신대법회

운명을 바꾸어 살 수 있는 대운맞이로 조상과 자신의업장을 제도하는 영산법회 봉행

생명의 근본은 태식에 있고, 운명과 수명은 내마음자리에 있으며 생노병사 해탈법은 경신 도통에 있느니라.



생노병사의 비밀인 근본 허공청정, 진공묘유인 운명과 수명과 생명은 정신세계에 있으며 영과 혼의 비밀법을 9월양력 26일 자시와 9월 27일 오시인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心자와 卍자 속에 담겨진 근본 비밀대 용맹정진 수행법에 입문하시어 운명을 바꾸어 살 수 있는 법

모든생명은 태식 비법에 천하의 건강 비법이 다 들어있다.

● 달마도법의 태식법이란

생노병사를 초월하여 견성도통하는 법이며 모든병에 빙이 되어 치료해도 안되는 잡신마장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을 제도 해탈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제하는 육경신수행법인것이다.

천장지비에 감춰진 비법을 병술년 음 8월 6일과 8월 7일 경신날 도통과 성불은 자신의 업장이기에 근본을 벗기어 천하대운을 받고 견성과 도통은 즉 도가 무엇인가 알아야 하며, 그 해결법은 자신의 업장을 경신일 하늘과 땅이 열리는 오시에 사람몸 받은 그 업장을 벗기는 영산대제로 참회하여 업장소멸 하시고 만사 형통하소서.

특히, 이번 법회에는 자신의 업장으로 모든병인 비만,혈압,당뇨,관절,정신질환, 각종질병으로 고통을 받아 남몰래 고생하는 분들에게 쾌차할 수 있는 심기태식법인 기도수련으로 건강과 생명을 구하고 남녀혼기를 놓쳐 고생하시는 분들과 조상천도 구병시식 대운맞이 영산대제로 일체고액을 소멸하는 영산범패 대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성취하시고 만사형통 하소서.

견성도통하는데 가장빠른 비법 혈단법과 예단경만인것이다

견성도통하려면 조상과 전생부터 내려오는 자신의 업장과 모태유산 살생한 일체영가를 제도해탈만이 도를 통하는 것이고 천장지비로 감춰진 혈단법, 예단경만이 일체영가가 알아듣고 제도되어 이생애 모든 인연을 끊고 원없는 저세상으로 천도되는 경이고 결혼에도 예단을 주고 받아야 부부가 되는 것이다. 예단이란 상대방의 인연을 끊고 신랑집에 와서 정붙이고 살으라는 것이 예단인 것이다.

자신속에 들어있는 신선부처와 삼라만상 성불도통 일체법은 업장이 소멸되어야 만이 이루어 지는 것이고 자신의 운명을 조종하는 진광대도인 것이다.

윤달든 병술년 음 8월 7일 경신이 든 근본은?

경신일은 60일에 1번이 들고, 1년에 6회가 들었으며 수마를 이기면 모든 종교를 초월 신출귀몰한 비법을 많이 배우지 않아도 단 한가지 타심통경으로 득도하는 수행법이며, 이 기도는 도통경없이는 그 누구도 도를 통할 수 없고 해봐야 잠 안자는 잡신에 빙의되고 내가 과거 사람 몸받은 모든 업장과 조상들이 못다이룬 恨을 풀어 자아도통은 물론 생노병사를 초월하는 경신 수행인 것이고, 인간이나 짐승이나 귀신들까지도 제도할 수 있는 초능력자 도통군자되는 비법인것이다.

경신도통이란 역대 선각자, 도인, 신선들이 수행한 법이며 초능력으로 대운을 받는 것이고 모든 수행법의 근본은 태식법이며 도깨비나 귀신들을 부릴 수 있는 비법인 것이다. 병술년 음 8월 초 7일 단 경신이 들어 이번 기도에 동참하시어 영통능력으로 건강하시고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저능하로 빙의 되어 각종 질병과 자신의 운명을 망가뜨리는 것을 경신수행으로 운명을 바꾸는 천하의 대도통 진광법에 귀의하시어 건강하시고 큰도통하소서! (금년 삼재묵는 띠는 인,오,술띠이고 원진상충띠는 잔나비띠, 뱀띠)

- **입제 : 양력 2006년 8월 27일(음, 8월 6일 수)(해시)**
- **해제 : 양력 2006년 8월 28일(음, 8월 7일 목)**

02)821-6622 , 821-7767 016.239-3110

- 평생연구재료비 5만원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하차. 2번출구 모자원고개 쪽 300m 관음정사 내

웅조미륵달마 진인경신 도통회 세계우리불교 달마중 총 본산 태일합장

일주문



장기 및 시신기증자 천도재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9월 24일 오전 11시 남양주 불암사에서 '제12회 장기 및 시신기증자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한다.



법장 대종사 1주기 추모다례

예산 수덕사 주지 법정 스님은 인곡문도회와 함께 9월 29일 오전 10시 경내에서 인곡당 법장 대종사 열반 1주기 추모다례를 봉행한다. (041)337-6565



군장병 위문법회

대구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은 9월 9일 K2 공군부대 승무 일승사 위문 법회에 참석해 공군 간부와 군인가족 및 군장병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법문했다.



평화포럼 개최

한국종교연합대표 진월 스님은 9월 21일 오후 6시 서울 안국동 달개비에서 김용복 前 한일장신대 총장을 초청해 평화포럼을 개최한다.



'노인인권 증진' 세미나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화평 스님은 9월 2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노인인권 증진'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연다.



명절 차례 특강 및 시연회

서울 열린선원 주지 법현 스님은 9월 26일 오후 3시 역촌동 열린선원 법당에서 '명절 차례 특강 및 시연 법회'를 개최한다. (02)386-4755



광주천변서 유등 띄우기

광주 원각사 주지 도제 스님은 9월 22일 오후 7시 광주천변에서 생전예수재 회향행사 일환으로 유등 띄우기 법회를 봉행한다. (062)223-3168



정토문화마당 개최

정읍 정토사 주지 원공 스님은 9월 23일 오후 7시 30분 정토사에서 에콰도르 그룹 '시사이' 등이 출연하는 정토문화마당을 개최한다. (063)573-9222



제15회 행원문화상 시상식

행원문화재단 주영운 이사장은 9월 22일 오후 2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강당에서 제15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을 연다. (02)928-0750



제2기 간화선입문프로그램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인재개발원 허경만 이사장은 9월 20일~11월 26일 '화두 참선으로의 초대'를 주제로 제2기 간화선입문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종합미디어센터 구축 등에 매진"

불교방송 홍승기 신임사장, 종정예방 등 '분주'



불교방송 홍승기 신임사장이 9월 13일 인사차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있다.

9월 8일 재단이사회로부터 제7대 사장에 임명된 불교방송 홍승기 신임사장은 1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행보에 나섰다.

첫 일정은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예방. 12일 이사장 도후 스님과 함께 해인사를 찾은 홍승기 사장은 해인사 퇴설당에서 종정 법전 스님을 친견했다. 법전 스님은 "방송국에 어려운 일이 많은 만큼 두루 살펴서 원만하게 운영하라"고 조언했다. 13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는 등 취임 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홍승기 사장은 11일 밝힌 취임사를 통해 "경기 침체, 방송광고 시장의 변화, 재정 운영 어려움 등으로 불교방송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토로했다.

홍 사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디지털 라디오로 전환, 인터넷 방송 설립, 영상산업진출 추진 등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재원확보 노력, 광고영업 강화, 후원회 조직 활성화, 대기업 관련정부부처 협력 증진 등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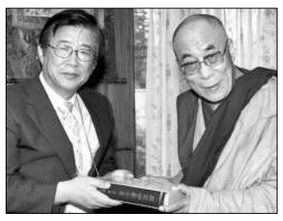
방송을 통한 불교포교 기본이념을 방송제작에 적극 반영하고, 본사 지방사 신뢰 회복, 공정한 인사원칙 등으로 불교방송의 내부 조직 안정을 기할 것도 약속했다.

"불교방송의 미래상은 종합미디어센터 구축, 국내 · 국제 포교의 전초기지화, 불교계의 대사회적 창구역할"이라고 진단한 홍 사장은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모든 임직원들의 단합과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사장 권한을 부서장에게 대폭 위임하면서 재정 확보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달라이 라마 동국대 100주년 축하메시지

김용택 부총장 티베트 방문



동국대 김용택 경주캠퍼스 부총장이 건학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 8월 16일 달라이 라마를 예방하고 축하메시지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 김 부총장은 "달라이 라마께서 불교종립대학인 동국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국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불교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이라며, 불교교육 확대로 생활불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9월 11일 전했다.

김 부총장은 또 "달라이 라마께서 경전 연구가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생명운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리적 연구도 더욱 필요하다고 말씀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장은 "양국 불교 교류를 위해 티베트 스님과 한국 스님 및 불교전공학생 두 명씩을 상호 교류 형식으로 초청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달라이 라마와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동영상은 10월 18일 경주현대호텔에서 열리는 '동국발전의 밤' 행사 때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김 부총장은 달라이 라마에게 <한국불교전서>를 기증했다(사진). **남동우 기자**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 국제신문 회장에 선임



서울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사진)이 국제신문 회장에 선출됐다.

국제신문은 9월 1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지광 스님과 권철현 前 경남 산청군수를 각각 이사로 선임하고, 이어 열린 이사회에 지광 스님을 이사회 회장, 권 前 산청군수를 부사장에 선임했다.

지광 스님은 1980년 한국일보 기자로 근무하다 민주화운동으로 강제 해직된 후, 출가해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재단법인 능인불교선양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철우 기자**

"지방청에 불자회 확대"

국세청불자회 한명로 회장 취임



"불심 깊은 공무원이 늘어날수록 국가가 튼실해진다는 생각으로 국세청 불자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9월 14일 조계사에서 열린 국세청 불자회(보리회) 회장에 취임한 한명로 도봉세무서장(57 · 사진)은 "먼저 서울 대전 광주 수원에 소재한 4개의 국세청 지방청에 불자회를 조직하고, 기존의 대구와 부산 지방청 불자회는 실질적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6개 지방청 불자회 회원들이 각 지역별 법회에 참석하는 교류 프로그램도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한 회장은 또 "봉사활동에도 주력할 계획이며, 전국공무원불자연합회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단독으로 활동해 왔던 국세청 불자회는 8월말 전국공무원불자연합회에 가입했다.

한 회장은 "뜻있는 불자들과 함께 한국불교스포츠문화원을 설립해 불교포교에 새 바람을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불교교사대학 서울캠퍼스 13일 개강



9월 13일 조계사 극락전에서 열린 대한불교교사대학 서울캠퍼스 입학식에서 학생대표가 학장 송묵 스님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대한불교교사대학 서울캠퍼스(학장 송묵) 제1기 입학식이 9월 13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입학식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직무대행 일관, 포교연구실장 진명, 대한불교교사대학 서울캠퍼스 학장 송묵, 부산캠퍼스 학장 정여 스님 등과 1기 입학생 60여명 등 총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대한불교교사대학 서울캠퍼스는 수도권 내에도 어린이포교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교계의 요청과 관계자들의 인식에 따라 만들어진 조계종 포교원 인가 특수교육기관2호다.

8년 전부터 대한불교교사대학 부산캠퍼스를 운영, 400여명이 넘는 어린이지도교사를 배출해 온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지현)과 포교원이 중심이 돼 설립을 추진했다. 서울캠퍼스는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송묵)가 위탁운영한다. **이은비 기자**

여주교도소 합동영가 천도재 봉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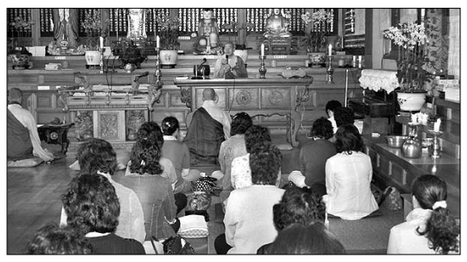
여주교도소 불교분과위원회(위원장 성무)는 9월 14일 여주교도소 대강당에서 합동영가 천도재를 봉행했다. 양평 송용사 주지 진응 스님 주관 하에 이뤄진 천도재에는 수용자 400명, 외부인 90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전통불교의식대학 학장 혜산 스님 등 5명이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석암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대한불교 석암장학회(이사장 정련)는 9월 8일 부산 내원정사 만불전에서 제63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2006년도 2학기 장학금 전달식에서 서강대학교 3학년 송지훈씨 등 대학생 14명에게 각 70만원씩, 학산여고 강주연양 등 고등학생 9명에게 각 50만원씩 모두 143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부산 환희불교대학 제2기 입학식



환희불교복지대학(학장 지현)은 9월 12일 제17기 호스피스 과정과 제2기 카운슬링 과정 입학식을 봉행했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호스피스 과정에 50명, 카운슬링 과정에 54명이 입학했다. 호스피스 과정은 12월 12일까지 매주 화 · 금요일, 카운슬링과정은 매주 수요일 수업이 진행된다.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1차분 완매로 인하여 2차분 한정제작. 인하된 가격으로 선착순 공급하게 되어 기쁩니다.」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현재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3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후 월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9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40만원, 한달후 30만원, 두달후 20만원) ※일시불은 80만원에 공급함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불자 세상보기

김 용 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백두산도 '삼키는' 동북공정

백두산은 한민족의 뿌리이자 민족의 영산이다. 한민족사는 백두산에서 발원했고, 반만년을 이어 왔다. 앞으로도 백두산은 한민족 번영과 동북아의 공존을 지켜 볼 상징적 성지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백두산 중국 땅 만들기'를 시도하면서 불자들의 우려가 자못 커지고 있다. 자칫 한중 선린관계와 북중관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이같은 시도는 당장 중지해야 마땅하다. 역사적으로나 실체적 사실로 봐도 백두산은 한민족사와 함께 해 왔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중국 동북 변경의 역사 및 현상계열에 대한 연구프로젝트'의 줄임말인 동북공정은 2002년 2월 시작되었다. 2년 전 고구려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중 양국 정부는 이 문제가 정치화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중국은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포함한 우리의 고대사를 왜곡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동북공정은 공식적으로 5년간 추진되어 2007년 2월 마감하게 되어 있지만,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백두산의 중국식 명칭인 '장백산 개발 프로젝트'도 동북공정 추진과 아울러 진행되고 있는 '동북공업기지진흥전략'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당초 낙후된 백두산 지역을 개발하고 관광을 진흥시키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진행된 백두산 개발 사업들이 단순한 관광 진흥 차원이라고 믿지 않는다. 이미 백두산을 중국 역사의 한 부분으로 채워 넣음으로써 사업의 순수성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중국은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추진하고 있고, 오는 2018년 제25회 동계올림픽 백두산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위해 백두산 인접 지역에 국제공항 건설도 서두르고 있다. 이는 중국이 백두산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태라 아니할 수 없다.

이 같은 움직임은 백두산에 대한 중국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또한 통일한국을 대비해 현 상태로 국경을 고착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중국의 이 같은 시도는 북한이 핵문제와 미사일사태로 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을 십분 활용한 것이다. 한국 정부 역시 북한 사태 전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의 백두산 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남북한이 정면대응을 하기 어려운 틈을 활용한 중국의 이 같은 사태 전개는 대국답지 못한 처사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일관되게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기반을 둔 일방주의적 외교를 비난해왔다.

국제 질서의 냉혹함인가. 이러한 중국정부가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나 역사왜곡에 대한 접근, 중일간 영토문제에서 취한 태도와 너무도 다른 중국의 태도는 대단히 이중적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잣대로 과거사와 현재를 재단하는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 시점에서 9월 10일 아시아 · 유럽정상회의(ASEM)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중국의 원바자오(溫家寶) 총리의 정상회담 결과를 우리는 주목한다. 당시 원총리는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답을 한 바 있다. 두 정상간의 언급이 구두선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정부는 중국의 동북공정이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손놓고 있거나 안이하게 대처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불자들 역시 백두산까지 뻗친 동북공정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우리는 현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어우러진 복잡하고도 속도감 있는 다원(多元)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우리의 젊은 세대를, 바른 안목을 가지고 개인의 생명력을 신장(伸張)하며, 조화와 평화의 사회를 구현해가는 인재로 키워나가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다.

종교는 인간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며, 인간으로서의 자긍과 자기발현을 돕고, 이웃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면 그 사명을 다한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포교와 선교를 위한 '종교교육'이 아닌, 종교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종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일찍이 불교계에서, 인류최초로 인간존엄을 선언하고 자유로 이끄신 부처님의 정신에 따라 여러 학교를 설립했다.

종립학교 '역사'를 '희망'으로

조계종립 동국대학교는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다. 금정중학교는 범어사 금어암에서 문을 연지 100년이 되었고, 광주정광중학교, 대전 보문중학교, 부산 해동중학교 등이 6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다. 오랜 역사를 면면히 이어와 뜻깊은 해를 맞은 종립학교들에게 큰 축하를 보낸다.

중 · 고등학교는 국민 또는 시민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완성하는 단계이다. 이때의 인성교육은 개개인의 평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개신교에 비해 종립학교의 수는 현저히 적지만, 긴 역사를 자랑하는 불교종립학교들은 그 명성을 지키며 미래 불교의 희망을 일구는 터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민의 53.1%가 종교인이고, 22.8%가 불교인이지만, 종교별 구성비에서 불교인구비율은 감소추세다. 젊은 세대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불교종립학교의 역할이 새삼 중요하다. 뜻깊은 100주년 · 60주년을 계기로 실질적인 청소년 포교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치원 세대부터 자연스럽게 인간존중 및 평화공존의 불교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배광식(서울대 치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환경시계

"자연을 이용하기를 꿀벌이 꽃가루를 채집하듯 하라. 꿀벌이 꽃의 아름다움이나 향기를 다치게 하는 일이 없듯, 사람도 자연을 이용할 때 자연의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움을 오염시켜서도 안 되며 자연에게서 회복력과 활력소를 빼앗아서도 안 된다." 〈법구경〉

9월 13일,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 설치된 '환경위기시계'가 작년보다 12분 빨라진 9시 17분으로 변경됐다.

환경위기시계란 환경전문가들이 인류존속의 위기감을 시간으로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밤 12시가 되면 인류가 멸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오후 6~9시는 '꽤 불안' 9시 이후는 '매우 불안'한 상태를 나타낸다. 이번 시간 변경은 1992년 환경위기시계가 작동한 이래 최고의 수치로, 인류가 환경파괴로 인한 멸망에 12분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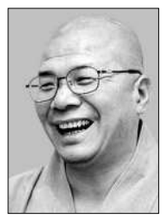
올 여름,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는 '환경위기'를 몸으로 체험했다. 우리나라는 46일이라는 유례없는 장마기간 동안 평년 강우량의 2배가 넘는 비가 내렸다. 미국은 불볕더위로 '폭염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인도네시아 자바섬 남부 해저에서 발생한 강진은 대형 쓰나미를 일으켜 최소 100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유럽에서도 가뭄과 폭염이 계속됐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올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혹서나 사막화현상, 강우량 증가, 잦은 지진 등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환경보호'가 식상한 구호문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 내가 선 자리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나부터 1회용품이나 세제 사용을 줄이는 '실천'으로 되살아나야 할 때다.

■ 여수령(취재부 기자)

기고 참선에 대한 오해



노력하는 자세 · 굳은 의지가 '기본'

최근 아란야선원에서는 김장용 무 밭과 배추밭 일구는 일을 했다. 귀농생활 몇 년에 접어든 부부가 도와주어 쉽게 마쳤다. 부인인 보살은 어떻게 하든지 남편을 참선방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농부생활 몇 년째 접어든 그는 구릿빛 피부에 농사일도 예사 솜씨가 아니다. 땅을 파고 비닐치는 일이 프로급이다.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거사에게 참선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

"농사일을 잘하는 사람과 함께 농사지으면 농사일을 잘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부 잘하는 사람과 지내면 공부도 잘 합니다."

소설가 김동리씨, 그는 한때 최범술 스님이 주석한 다솔사에 머문적이 있는데 이때 참선을 하려 했으나 다리가 아파서 못했다고 한다. 초등학교 때인가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쳐, 앉아서 좌선을 하려고 하면 다친 다리가 아파서 견디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참선에 대한 오해' 가운데 다리 문제가 제일 크다. 나 역시 참선을 시작 할 때 어려서 다친 다리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다. 허나 이제 결가부좌가 거뜬히 해결되었다.

다리가 참선을 하는가? 서서 하는 입선, 앉는 좌선, 걸어 다니면서 하는 행선, 눕는 와선 등으로 행주좌와 어묵동정 어느 시간에도 하는 것이 참선이다.

좌선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참선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이기 때문이다. 좌선법은 그만큼 독특하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좌선의 기초를 익힌 이후에 생활참선을 한다.

요즘 명상 가게에 나가보면 사무실에서도 명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명상 의자가 나와 있다. 인체공학상 좌선의 이상적인 체형에 맞도록 만들어져 있다. 노력만하면 얼마든지 자기에게 알맞은 좌선을 보다 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시대이다.

그 뿐인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시간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 운전자가 참선을 하는 방법은 하나의 일치된 형태다. 아무생각없이 운전만 하지 말고 운전을 하면서 자기 몸을 명령하고 운전하는 그 '주인공'을 돌아본다면 이것 역시 참선이다.

"운전자 시심마(運轉者 是甚摩), 운전하는 자는 무엇인가?"

"누가 이 몸을 운전하는가?"

시간에 쫓겨서 참선할 시간이 없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바빠도 숨은 쉬고 있지 않은가. 햇빛을 보고 땅 위에 서 있지 않은가. 아무리 바빠도 호흡하는 동안, 의식이 살아있는 한 참선이 가능하다.

건강 때문에 참선과 멀어진 사람도 많다. 기가 펄펄 뛰는 활어(活魚)가 참선자의 기상이기 때문에 이 생각은 아주 큰 오해이다. 좌선법의 자세를 살펴보면 불로장수의 선도법과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입장에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요가법이 들어와 있다. 참선법은 장생불사하는 기의 운동이 원활하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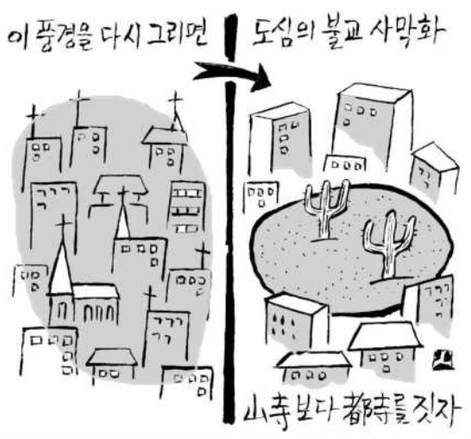
"상허하실(上虛下實 · 위로 허하며 아래로 실하고) 수상하화(水上下火 · 물기운은 위로 보내고 불기운은 아래고 보낸다)."

상하는 허리띠를 기준으로 삼는다. 불로장수의 법칙은 다음의 소나무 방송(放松)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온몸이 뜨거워서 건강이 나쁜 사람과 반대로 온몸이 차서 한 여름에도 추위를 타는 사람은 다 같이 기(氣)의 순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한다. 이런 사람은 소나무 자세 곧 방송(放松)을 권한다. 소나무 모양은 선정(禪定)에 드는 가장 좋은 좌선 자세에 비유한다. 소나무도 그냥 평지에서 볼 수 있는 소나무가 아니다. 높은 바위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이다. 가지는 절벽 아래로 길게 내려뜨린 말하자면 이완(弛緩)이 지극해진 상태이다.

이와 반대로 뿌리는 지극하게 긴장(緊張)된 상태이다. 이 소나무가 방송(放松) 혹은 유송(柳松)이다. 몸을 방송의 자세로 취하고 앉고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지묵(수원 아란야선원장)

'현대' 만평 심 민 섭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1)334-9490, 334-9519

전통따주기지도사 강좌(2박3일) 안내

1. 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따주기의 특징
-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합니다.
-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키고, 나쁜 피는 사혈합니다.
- 월 1회 따주기로 사전 건강관리
-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 학생지도(고교생, 대학생)
- 신도 포교
- 따주기 사회봉사
- 전통따주기지도사로 활동

4. 따주기로 건강관리 범위
- 뼈 및 수술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분야
- 마음과 육신

5. 강좌 인원
- 선착순 20명(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직접강의)

6. 9월 강좌일
- 2006. 9.8(금) ~ 10(일)

7. 특전
- 18시간 교육이수 후 수료증 수여
- 교재 · 사혈기 및 필수 부항 · 펌프 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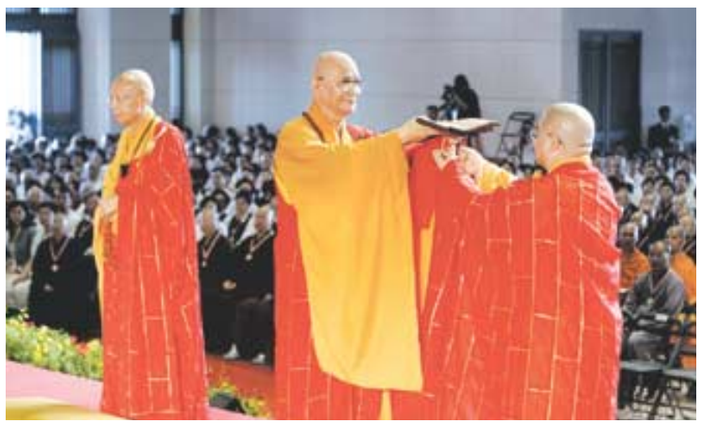
8. 강좌문의 054)637-3477
(장소: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내)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법 그릇’ 크기에 나이는 ‘불문’

대만 법고산 제2대 방장에 52세 궈똥(果東) 법사 취임


궈똥 법사


궈똥 법사(맨 오른쪽)가 방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가사와 108염주, 법고산 승단조직도, 성옌 법사의 지도방침서를 받고 있다.

대만불교계의 4대 산맥인 법고산 2대 방장에 세수 50대의 궈똥(果東) 법사가 선출됐다.

법고산(法鼓山) 승단은 9월 2일 타이페이 시 교외 베이토우(北投) 법고산세계불교교육원 대전에서 성옌(聖嚴) 법사, 성령사 진넝(今能) 법사, 쏭쭈오(送座) 화상 등 사부대중 3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방장 이·취임 법회를 열고, 출가한 지 12년 된 궈똥 법사를 법고산의 새 방장으로 추대했다.

세탑 52세에 불과한 신임 방장 궈똥 법사는 37세 때 늦깎이로 성옌 법사를 은사로 출가한 중진스님으로, 대만불교계에서는 법고산 개산조 성옌 법사의 방장 선출을 놓고 파격적인 ‘젊은 방장’ 선임으로 평가하고 있다. 법고산은 성윈(星雲) 스님의 불광산(佛光山), 외이지에(惟覺) 스님의 중대선사(中台禪寺), 쩡옌(證嚴) 스님의 자제공덕회와 아울러 대만불교계를 이끌고 있는 주요 불교단체다.

성옌 법사는 이 같은 방장 선출배경에 대해 “궈똥 법사가 비록 법고산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라고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출가 후 10년 넘게 삼보에 대한 신심과 구도심이 강하고 스승에 대해 의심한 적이 없는 출가자”라고 설명했다.

대만불교계는 특히 성옌 법사의 방장 선출방식이 철저하게 불교전통법에 의해 진행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법고산 방장 선출이 승단대표에서 후보자 5인을 선출해, 성옌 법사가 1명을 선발, 마지막으로 승단대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면 방장으로 임명되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성옌 법사의 12명 전법제자, 즉 법자(法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법에 논하고, ‘과연 법 그릇의 크기가 어떤가’를 가늠해 후임 방장으로 인가하기 때문이다. 법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들을 불러 법문했을 때처럼, 성옌 법사가 법을 전했을 때 있었던 제자들을 일컫는 말.

1993년부터 법고산 농선사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해 성옌 법사와 인연을 맺은 궈똥 법사는 성옌 법사의 법자가 됐으며, 법고산 승단의 남성신도 부도감, 호법총회 법사 등 중요 직책을 역임했다. 또한 10년간 염불단 지도법사를 맡고 있으며, 성옌 법사의 ‘영혼 환경보호’ 이념을 봉대해 사회전통의 장례개념을 개선하고 있다.

궈똥 법사는 이날 방장 취임식에서 “방장을 맡은 후에 계속해서 많은 선인을 청해 합심 협력해 교단과 승단, 중생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삼보와 호법 신도들의 대덕 대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법고산 방장이 바뀌자, 셩옌 법사의 향후 거취에도 대만불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고산 승단측은 ‘방장의 직위를 내려놓은 셩옌 법사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에 문제에 대해 “셩옌 법사는 여전히 법고산의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맡을 것이고, 법고대학의 설립에 관련된 일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셩옌 법사는 이와 관련, 대만 인터넷 언론 쭝꽝(中廣)지에서 “아직 완성하지 못한 법고대학 공사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절대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해서 교육사업을 완성해 신임 방장스님께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장에 유력시 됐던 타이페이 예술대학 총장 후이민(慧敏) 법사는 방장이 다른 일과 겸직할 수 없는 직위임을 감안해 셩옌 법사가 불교연구원 등의 교육 사업에 몰두하라는 지시로 방장에 선출되지 않았다.

대만=이상미 통신원

세계 最古 응현목탑 ‘기우뚱’



건조 950주년을 맞는 중국 북부 산시성에 위치한 세계최고(最古) 목조 불탑인 응현목탑(사진)이 기울고 있다고 인도PTI 통신이 전했다.

이 통신은 “잉시안 시에 있는 이 ‘불궁사 응현불탑’의 1, 2층 사이에 눈에 띌 만큼의 경사가 있다”며 “탑 안 300여 군데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높이가 65.86m인 이 불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목조탑으로, 베이징으로부터 380km쯤에 위치해 있다. 서기 1056년에 건립됐으며, 9각 형식으로 중국 고대 건축 및 목조기술의 최상위 표본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 관료의 말을 인용, “우리는 고대 탑의 안전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목조탑 구조를 보호하고 보수 계획을 준비하는 특별 기구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또 “응현목탑 건립 950주년 기념식이 9월 5일 열렸으며, 이날 행사에 3만여 명이 운집했다”고 밝혔다.

김철우 기자

달라이 라마 ‘법학’ 주제 강연

티베트 망명정부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공개석상에서는 처음으로 ‘법학(law)’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고 미국 UB뉴스센터가 전했다. 9월 21~22일 이틀간 미국 버팔로 대학 법과대학에서 열리는 이번 강연의 제목은 ‘법과 불교, 사회변화-달라이 라마와의 대화’.

달라이 라마는 이날 강연회에서 ‘불교가 법과 사회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설명하는 한편, 법조계 인사 및 학자들과 헌법의 사회질서유지 기능, 범죄자 처벌의 목적, 법원의 결정과 업의 결과 등에 관해 다양한 토론을 벌인다.

한-베트남 신랑신부 9쌍 결혼식

옥천 대성사, 인연맺기 결실



옥천 대성사의 선남선녀 ‘따뜻한 만남’ 제2차 한-베트남 인연맺기 행사가 또한 번의 결실을 맺었다.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베트남을 방문, 9쌍의 선남선녀 결혼식을 올려줬다. 지난 5월 베트남 여성과의 첫 결혼을 성사시킨 이후 두 번째.

특히 이번 결혼을 위해 베트남 현지 관음사 주지 정묵 스님과 신도, 베트남 교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 9쌍의 한-베트남 부부를 탄생시켰다.

혜철 스님은 주례사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젊은이들이 신랑신부의 만남을 통해 양국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보살피며 살아가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의 주인공 가운데 한명인 조성태(38)씨는 “다른 나라 신부를 맞는다는 것이 무척 망설여졌지만, 사찰을 통해 맺어진 인연이라 더 믿을 수 있었다”며 “신부가 입국하는 12월까지 베트남어와 베트남문화를 공부해 신부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낯선 나라에서 결혼생활을 해야 하는 베트남 여성들의 고충을 풀어주기 위한 해결책도 마련된다.

대성사는 베트남 스님을 초청해 베트남여성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한-베트남 부부들의 법회 참석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결혼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결혼생활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중국불교 변화 어떻게 볼것인가

철저한 실리 추구 … 티베트 독립 막으려 불교 이용

‘국가불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행보 주목해야

지난 4월 중국에서는 세계 30여 나라에서 온 불자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불교포럼’ 제 1차 대회가 열렸다. 중국 불교계가 제안하고 주최하였다고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있었다는 데 대하여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중국이 이 시점에서 왜 대규모 국제 불교 행사를 주최하는지에 대해 필자는 이미 이 난을 통해 “중국 정부의 불교 정책 변화는, ‘사회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고 불교가 필수가 된 현실 상황’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다”고 진단한 바 있다. (‘현대불교’ 4월 19일자)

우리 불교계도 위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중국 불교가 발전하고 있다”며 환영하고, 불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에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이런 추세는 단순하게 의례적인 ‘감사 인사’에 그치지 않았다. 조계종 포교원이 중국 내 한인불자들을 위한 수계 법회를 열면서 포교원 소임자스님 여섯 분이 모두 방중(訪中)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었고, ‘중국 정부의 우호적 태도’에 감동을 받은 듯이 보인다.

그뿐만이 아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에서는 ‘세계불교포럼’을 주관한 실무 책임자인 중국종교사무국 예사오원(葉小文) 국장을 초청해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특별한 조치까지 취하였다.

어느 학자는 “과거 중국에서 전해 받은 불교를 이제 우리가 다시 중국에 전해주어야 할 때”라며 한국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중국 포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중국 포교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의 종교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어느 곳에서도 종교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100% 자유롭기는 힘들겠지만 특히 중국에서는 과거 왕조 시절과 다름없이 국가에서 종교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세계불교포럼’을 통해 중국 정부가 ‘화합과 관용’을 강조했지만, 이 포럼 이후에도 여전히 자국의 정책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처벌을 계속하고 있다.

9월 7일 UNPO통신이 전하는 소식에 따르면, 중국 시추안(四川) 성 서남부 티베트인 거주지역인 카르제(Karze)에 있는 초캉 타크룽(Chokang Taklung) 사원의 주지 켄포 진파(Khenpo Jinpa)가 구금되었다.

8월 23일 무장 경찰들이 예고 없이 사원 안으로 들어와 샅샅이 뒤졌지만 범법 사실을 증명할 물증을 찾지 못하였다. 궁색해진 당국에서는 ‘구금 사실’만을 확인할 뿐 구속 사유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티베트 사원의 관계자들이 “1년 전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는 포스터를 게시하였던 것”이 구금 사유일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중국의 불교는 과거와 다를 바 없이 ‘국가불교’적 성격에 철저하게 따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성격은 불교에만 그치지 않고, 이슬람이나 가톨릭 등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티베트 독립과 자치를 막는 데 ‘불교’를 쓰고, 위구르 족 등 이슬람교도들의 독립을 저지하는 데에는 ‘이슬람’을 활용할 것이다.

‘한국 스님들에 대한 복수 비자 적극 검토’나 ‘도의(道義)선사 수계지(受戒址) 성역화 불사 지원’ 등 한국불교계에 대한 러브콜은 티베트문제 해결과 몽골 등 주변 불교국가에 대한 견제에 필요한 이른바 ‘이이제이(以夷制夷)’식 외교 전략의 일환이거나 한국 불자들의 성지 순례를 유도하려는 관광정책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로서는 중국의 불교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합종(合從)’ ‘연횡(連橫)’이든 아니면 제 3의 길이든 우리 나름의 중장기 방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 자유기고가

108산사에서 108배로 108번뇌 씻는다


▲ 삼각산 도선사 주지 선묵 혜자(禪默 慧慈) 스님.

일심광명(一心光明)으로 신심(信心) 다지고 소원성취 발원

선묵 혜자(禪默 慧慈) 스님과 함께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山寺) 가슴에 담고

108산사 순례법회 기도회와 함께 떠나십시오

선묵 혜자 스님과 함께 떠나는 108산사 순례법회 기도회가 성지순례 기도법회의 새장을 열어 갈 것입니다.

산사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 세월을 머금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구조물, 가슴 뭉클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선묵 혜자 스님과 함께 떠나는 108산사 순례법회 기도회는 108산사를 찾아 염불과 기도, 108참회, 축원, 신묘장구대다라니 사경, 발원문, 동참불자에 낙관, 해당 사찰 이름이 새겨진 염주알 보시 등을 봉행할 것입니다.

108산사 순례법회 기도회가 찾아 갈 108산사

●각원사 ●갑 사 ●개심사 ●거조암 ●건봉사 ●경국사 ●고란사 ●고산사 ●고운사 ●관음사 ●관음암 ●관촉사 ●광덕사 ●구룡사 ●금당사 ●금산사 ●기림사 ●김룡사 ●낙산사 ●내소사 ●내원사 ●내장사 ●대승사 ●대전사 ●대흥사 ●도갑사 ●도리사 ●도선사 ●도안사 ●동학사 ●동화사 ●마곡사 ●무량사 ●무위사 ●문수암 ●백담사 ●백련사 ●백양사 ●범어사 ●법주사 ●법흥사 ●보경사 ●보광사 ●보덕사 ●보리암 ●보문사 ●봉녕사 ●봉선사 ●봉암사 ●봉은사 ●봉정사 ●봉정암 ●부석사 ●분황사 ●불국사 ●불암사 ●불영사 ●삼화사 ●상원사 ●석굴암 ●석남사 ●선본사 ●선운사 ●송광사 ●수덕사 ●수도사 ●신륵사 ●신원사 ●신흥사 ●실상사 ●쌍계사 ●안국사 ●연곡사 ●연주암 ●영국사 ●오어사 ●옥천사 ●완주 송광사 ●용덕사 ●용문사 ●용연사 ●용주사 ●운문사 ●운주사 ●월정사 ●은해사 ●자재암 ●장곡사 ●전등사 ●정암사 ●제주 관음사 ●조계사 ●지지사 ●천은사 ●청암사 ●청평사 ●칠장사 ●통도사 ●파계사 ●표충사 ●해운사 ●해인사 ●향일암 ●현등사 ●화계사 ●화엄사 ●흥국사 ●희방사

▶문의 및 접수 : 삼각산 도선사 종무소(☎02-993-3161)

●선묵혜자(禪默 慧慈) 스님과 함께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出刊





선묵 혜자 스님과 함께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선묵 혜자 지음 _ 화남 펴냄 _ 정가 20,000원

‘산불끄는 앵무새’ 처럼 작은일부터 열심히…

지역 군법당의 ‘어머니’ 박미영 향지모임 회장




박미영 보살은 격월로 개최되는 향지모임 법회를 주관하며 신심을 키운다.

90여 회원들 매월 1만원씩 회비 모아 군법당 지원
5주에 한번 수계법회 열고 음식 만들어 나눠주기도
불우청소년 교복 지원 등 사회복지 운동에도 앞장

불자로서 향기롭고 지혜롭게 살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경기도 연천 향지모임 회장 박미영(50)보살은 “지역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말한다.

박 보살은 80년대 전남 장흥 관산고에 불교학생회를 창립한 남편의 영향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그뒤 남편을 따라 90년대 초반 수원을 거쳐 연천으로 이사를 왔다. 수원에 살 때는 인근 사찰 일요법회에 참석해 법문을 들을 수 있었으나 연천에서는 당시 일요법회를 봉행하는 곳이 군법당 뿐이었다. 그래서 인연을 맺은 사찰이 바로 5사단 통일 광복사. 군법당이지만 드물게 불교대학이 개설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불교를 배웠고 일요법회에 동참하면서 자연스럽게 군포교의 어려운 현실도 접하게 됐다. 초코파이 하나에 종교를 바꾸는 현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93년 불교대학 동기들과 군법당을 지원하는 자비회를 만들었다.

“연천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28사단 예하 17개, 5사단 예하 15개 등 50여개의 군법당과 10여개의 민간 사찰이 있습니다. 군법당 후원이 절실하다는 걸 알고부터 불교 미래를 위해 지원해야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불자 몇 명과 함께 우선 5사단 예하 군법당만이라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자비회를 만들었습니다.”

98년 자비회는 이름을 ‘향지모임’으로 바꾸었다. 향지모임은 ‘향기롭고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불자들의 모임’의 줄임말. 연천지역 불자 90여명의 회원들이 매월 1만원씩의 회비를 내 군법당에 필요한 초코파이, 음료수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한때는 약 30개 법당을 지원했으나 최근 조계종 포교사단 등에서 정기적인 후원을 하고 있어 지금은 처음 군에 들어와 불교를 접하는 5사단과 28사단 신병교육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5주에 한번씩 봉행되는 수계법회에는 햄버거 등 장병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준비해 직접 나눠주고 있고 5사단 신교대 법당, 정수 포교당, 육하 포교당, 백련사 등 지역 군법당 불사에도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통해 힘을 보태고 있다.

박 보살은 벌써 13년째 지역 군법당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 오고 있다. 매주 지역 군법당을 찾아 법회를 지원하고 있고 군법당 행사에 빠지는 법이 없다. 지난해 아들이 군대에 가면서 박 보살의 활동은 더 왕성해졌다.

매주 군법당을 위문하기에 특별한 원찰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박 보살은 두달에 한번씩 모이는 향지모임 법회를 주관하며 신심을 키우고 있다. 회원 모임 형식으로 간단히 법회를 보지만 법회와 설법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9월 11일 음식점을 경영하는 회원집에서 열린 법회에서도 앵무새 우화를 소개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산불이 났는데 앵무새 한 마리가 불을 끄겠다고 날개에 물을 적시며 날아다니는 모습을 제석천왕이 보고 그렇게 해봐야 불을 끌 수 없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때 앵무새는 저 산에서는 제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것 밖에 없습니다라며 계속 날개짓을 했답니다. 우리도 서로 서로의 힘은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불교와 지역 사회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 보살은 최근 지역 사회 운동에도 관심이 많다. 그래서 향지모임 회원들을 일일이 설득해 2000년부터 지역 지역내 소년소녀가장과 독거어르신을 돕고 있다. 읍사무소 등의 추천이 아닌 회원들이 직접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 어리신이나 소년소녀가장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매년 10여명을 선발해 현금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

또한 3년전부터 중학교에 입학하는 불우청소년들을 매년 3명씩 선발해 교복을 맞추어 주는 운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교복 한 벌이 30만원정도여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불우청소년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수 없다. 다행히 향지모임 회원 가운데 교복가게를 운영하는 보살이 있어 원가로 후원을 받아 올해부터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도 선발할 계획이다. 처음에는 지역 주민들도 한두번에 그치겠지 했지만 박 보살의 원력과 향지모임 회원들의 단합된 신심이 지금까지 이같은 장학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군종병이나 군법당에 나왔던 장병들이 전역을 해 향지모임을 찾아올때 가장 행복하다는 박미영 보살. 앞으로 향지모임의 후원자를 대폭 늘려 마음껏 군법당을 돕고 싶다는 말 속에 향기와 지혜가 녹아 있었다. 박 보살은 향지 모임 회원들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연천/글=김두식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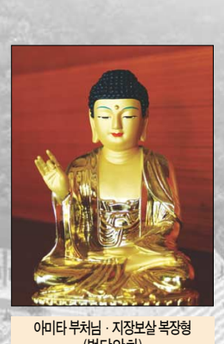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삼 화 총 림
지장기도도량 백화사 추모불사

아무나 모시지 않습니다.
누구나 올 수 없습니다.
선택받은 귀한 분들 사후에도
품격있게 부처님의 품안에서
자화사리로 모십니다.

삼화총림 백화사는 그 동안 불보살님들의 가피와 모든 불자님과 대중스님들의 정성으로 창종 3년 만에 사찰부지 대지 9,000평과 임야 15,000평, 대웅보전, 요사체 및 지장전이 본 종단에 기증 되었습니다. 이에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고 불국정토를 이루어 불자님께는 법음을 전하고 종도 스님들은 수행 공간으로 활용하는 참 도량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화사리란?
사리란 수행의 결정체입니다.
큰 스님들 열반시 다비식 후
습과하여 모셔집니다.
일반인들도 고온 처리방법을 통하여
영롱한 결정체를 습과합니다.
구슬과 보석형태로 부처님 몸속에 모셔집니다.

불 사 유 형


아미타 부처님 · 지장보살 복장형 (법당안치)
자화사리를 아미타 부처님 · 지장보살님 복장에 직접 안치합니다. 부처님, 보살님께서 조상님을 영원히 품에 안고 계십니다.


육지장보살 형 (연화대 하단 안치)
중생을 6도의 윤회에서 구제하여 극락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지장보살님께 친족 · 가족을 함께 안치할 수 있습니다.
• 안치능력 : 가족 문중 가능
• 높 이 : 210 Cm • 재 질 : 천연화강암
• 특 징 : 연꽃 무늬단에 입구를 통해 봉안


부도탑 형 (연화대 하단 위치)
큰 스님의 부도탑 형식으로 친족 · 가족 모두 편안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 안치능력 : 가족 문중 가능
• 높 이 : 210 Cm • 재 질 : 천연화강암
• 특 징 : 탑형태로서 기판부 하대석입구를 통해 봉안




연화부수형 천하명당 지장기도도량
여주 보금산 백화사로 모십니다

백화사 추모불사의 특징
• 한번 안치로 일체 관리비 없이 영구히 모십니다.
• 영롱한 구슬형태인 자화사리로 부처님 품 안에 안치 합니다.
• 49재, 일일축원 기도, 백중기도, 설.추석 합동축원 등 스님들의 불공으로 영현의 평안을 빌어드립니다.
• 서울 근교에 위치하여 언제든지 추모할 수 있습니다
• 주변에 다양한 관광지가 있어 가족나들이에도 최적입니다.
• 연화부수형 명당터로 고인의 영현은 평안하며 후손들은 반드시 발복할 것입니다.

추모불사 서울사무실 대표전화 02-560-3421~2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 상록회관 306호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79〉 중도법문

이즈음 철지난 휴가를 독려하는 여행사들의 광고문이 눈길을 끈다.

"남들이 쉴 때 일했고, (그래서 지금) 남들이 일할 때 쉰다."

감성을 자극하면서도 중도법문이 따로 없음을 보여준다. 요즘 선사의 게송은 주로 광고회사의 카피라이터 손에서 나오는 것 같다. 이에 질세라 어느 자동차회사의 광고문도 그 못지 않는 내공을 보여준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쳐다본다는 것은 …. (처음에는)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가만히 다시 생각해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한때 어느 대중가수가 불렀던 "… 아하!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그 겨울의 찻집')고 하는 가사만큼이나 잔잔한 감동을 준다. 중도법문은 이미 생활법문이 되어 버린 것이다.



60~70년대 자주국방과 경제자립을 외치던 시절에 자주 들었던 "싸나는 다섯가지 신통력 밖에 없으니 어떤 것이 나머지 한 신통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했다.

"선인아! 나에게 그 한 신통을 물었느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 운개 본(雲盖本)선사는 이렇게 착어(着語)했다.

"미인은 벌써 하늘로 날아갔거늘
어리석은 서방님은 여전히 아궁이 앞에서 기다리는구나."

그 시의 배경은 이랬다.

옛날 고대중국에 사단(謝丹)이란 노총각이 살았다.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닐다가 큰 조개를 주었다. 이를 들고서 집에 갔는데 그 조개에서 미인이 나왔다. 이후 그녀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인이 말했다.

"서방님! 아궁이에 불을 좀 넣어주세요. 나는 물을 길어오리다."

그러고는 나가더니

선어록 곳곳에 나타나는 중도법문
감성 자극하는 CF에 줄줄이 등장

우면서 건설한다"라거나 "뛰면서 생각한다"는 고전적 중도법문들은 시대가 바뀌어 감에 점차로 세련된 표현으로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앞으로는 또 무슨 기발한 소리가 나오려나 광고문를 열심히 살펴야겠다.

선가의 대표적 중도법문이기도 한 '절름발이 자라요, 눈 먼 거북이로다'라는 말과 '남산에 구름이 일어나고, 북산에는 비가 오도다' 라는 말도 선어록 곳곳에 자주 등장한다. 염관제안선사는 '허공으로 북을 삼고 수미산으로 망치를 삼는다'고 하였고, 파릉 선사는 '닭은 추우면 나무위로 올라가고, 오리는 추우면 물로 내려온다'고 한 것이나 설봉 선사의 '밥 광주리 앞에서 굶어죽고 물가에서 목말라 죽는다' 는 것도 모두 이 형식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선문염송 14칙 '오통(五通)'에는 부처님과 외도선인이 등장하여 신통력에 대해 논한다. 부처님에게 다섯가지 신통력을 갖춘 선인이 물었다.

"부처님은 여섯가지 신통력이 있으신데 돌아오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다. 그런데도 그 총각은 아궁이에 불을 때면서 그 여자를 마냥 기다리고 있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부처님의 물음에 제대로 된 말씀인지 아닌지는 내 안목으로는 구별할 길이 없지만 이 답변 역시 중도법문의 형식에 참으로 충실함을 알 수 있다.

송나라의 만암치유(萬庵致柔) 선사의 게송도 마찬가지이다.

산호베개 위를 흐르는 두줄기의 눈물이여!
한줄기는 그대를 그리워하는 것이요
또 한줄기는 그대를 원망하는 것이라.

두 줄기의 눈물을 통하여 애증(愛憎)을 동시에 표현하는 유명한 중도시(中道詩)라고 하겠다. 하긴 보통사람들도 헤어질 때는 누구나 '시원섭섭하다' 라고 중도적으로 말한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머리 맑아지고 몸 가뿐… 집중력 ↑

'때 아닌 때에 먹지 말라(不非時食)'는 부처님 가르침이 있다. 때 아닌 때라는 것은 정오를 말하며, 이 때가 지나면 음식을 먹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부처님 당시부터 수행의 방편으로 이어져 온 오후불식(午後不食). 옛날 어떤 큰스님은 곁방에서 오후에 밥 짓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불법이 쇠퇴하는 것을 걱정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사미십계의 아홉 번째 계율이기도 한 오후불식. 과연 오후불식은 수행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오후불식' 수행에 어떤 도움될까?



참선수행하는 불자들. 오후불식 경험자들은 오후불식이 수행을 하는데 정신적 · 육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수행에 미치는 영향

제주 원명선원장 대효 스님, 동국대 교수 법산 스님,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 위빠사나 수행처인 보리수마을 지도법사 붓다락키타 스님은 오후불식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행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스님들은 오후불식의 가장 큰 장점으로 집중력을 꼽았다. 오후불식을 하면 몸이 가벼워지면서 졸음도 줄일 수 있으며, 속이 편안해서 정신을 집중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욕심을 줄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음탕한 마음도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불자들에게 단식참선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대효 스님은 "일주일 단식수행을 하는 불자들의 경우 대부분 뛰어난 집중력을 보이면서 공부속도가 빠르다"며 "오후불식은 수행방편이기는 하지만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점에서 마음공부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산 스님 역시 "정신을 맑게 하는 것은 수행의 중요한 요소이며 가능한 한 오후불식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고, 법현 스님은 "오후불식이 어렵다면 소식(小食)을 하는 것도 수행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10년째 하루 한끼만 먹는 일종식(一種食)을 해오고 있는 붓다락키타 스님은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수행의 기본이자 수행자가 가져야할 자세"라며 오후불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후불식 해보니…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월정사 단기출가 프로그램에 참가해 3주간 오후불식을 했던 정식환(37 · 경기 광주)씨와 조훈(39 · 인천 용현동)씨.

정씨는 "처음 해보는 오후불식이었지만 그리 힘들지는 않았으며,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지금도 하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훈씨 역시 "몸은 힘들었지만 무엇보다도 졸음이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 좌선을 하는데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당시의 느낌을 전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철야정진을 해 온 김덕희(53 · 부산 연산동) 보살은 정진 때마다 오후불식을 해 온 지 1년 째. 이제는 오후불식이 습관처럼 편안하게 정진을 할 수 있게 됐다. 아니 오후불식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철야정진을 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될 것 같다고 말한다. 김 보살은 "정진 도중 차담시간에 음식을 조금 먹은 적이 있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집중이 안돼 방해가 됐었다"고 말했다.

인천 용화선원의 한 스님은 "8명의 불자들이 오후불식을 하며 수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기운이 없어하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오후불식 다음날 아침에 몸이 가볍고 정신이 맑아 매우 좋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빠사나 수행처인 서울 보리수선원의 신도 박옥동(37 · 서울 압구정동) 거사는 "먹고 싶은 충동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물을 많이 마신다"면서 "먹던 습관

> 헐떡이는 마음 먼저 정리를
> "오후에 많이 먹으면
> 상대적으로 신장 · 간기능 저하"
> 수험생도 응용하면 '도움'

때문에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문제일 뿐 오후불식을 하다보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의할 점

전문가들은 오후불식이 수행하는데 좋다고 해서 무작정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자칫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체력이 약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오후불식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오후불식이 어렵다면 소식을 하며 수행을 하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된다.

또한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랜 기간 오후불식을 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며칠 정도 날짜를 정해서 오후불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자신의 몸에 맞게 일정을 정하는 것이 좋다.

오후불식을 남이 한다고 따라하는 식이 돼서도 안 된다. 대효 스님은 "오후불식을 하기 전에 먼저 헐떡이는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렇게 발심한 뒤에 해야만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먹는 것을 참는 것이 아니라 수행이라는 뚜렷한 목적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학에서 보는 오후불식

3년째 오후불식을 해오고 있는 서울 종로 위강원한의원 전병룡 원장은 "수행은 물론 건강유지에 오후불식만큼 좋은 방편도 없다"고 말한다.

전 원장은 위장질환이나 신장질환, 우울증 등의 신경성 질환, 비만, 고혈압, 당뇨 등에 오후불식이 매우 효과가 있으며, 실제로 오후불식 처방을 내리기도 한다고 밝혔다.

위의 기능이 정점에 달하는 것은 정오쯤이며, 그 이후는 위 기능이 약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신장이나 간 기능이 왕성해지는데, 오후에 많이 먹으면 상대적으로 신장이나 간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뇌의 혈액순환도 나빠져 머리가 무겁고 두뇌활동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또 육식을 하지 않아도 오후 늦게 먹으면 피가 탁해지기 때문에 오후불식이 좋다고 강조했다.

전 원장은 체력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수험생들도 과일주스 정도 외에 오후불식을 하는 것이 학업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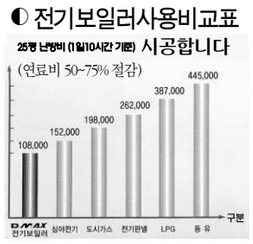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진심으로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어 해탈을 원하시는 분들께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원래 불법이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의 자비와 중생의 수요로 인해 불법이 생긴 것입니다.
- 당대 불법수행으로 큰 깨달음을 얻으신 금보리 상사님의 말씀
보리법문의 창시자 금보리 상사님은 어려서부터 청장고원(青藏高原)에서 수행하셨습니다. 18년의 고수고행(苦修苦行) 끝에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원만한 자비와 수승한 법력(法力)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대원을 발원하여 세간(世間)에서 포교를 하고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보리상사님은 자신의 수행과 득도한 경험을 통해 지금 우리 현대인의 수행과 깨달음에 가장 적합한 수행방법들을 창시해 내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7일간의 실증실수(實證實修)를 통해 보리법문만의 우수함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대에 맞는 적당한(應機) 수행방법을 통해 여러분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이 상사님의 제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보리수행방법을 통해 무수히 많은 수행자분들이 큰 성취를 얻으셨습니다. 이생에서 해탈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신다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不可不修). 여러분이 "금보리(金菩提)" 세 글자를 들으시고 희열과 놀라움을 느끼셨다면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사님께서 제자를 보내 한국에서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연이 있는 대중들을 위해 7일간의 수행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연이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수행반 일정 : 2006년 10월 13일(금) - 10월 19일(목)
■ 주 소 : 서울 서초구 방배동 899-16 한국보리법문
■ 문의전화 : 02)3471-9183 / 02)586-6176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12월 기준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6.8원/kw	36.8원/kw	640원/㎥	66.8원/kw	1250원/㎥	1000원/ℓ
열효율(%)	100	95	90	100	90	85
연료소비량(월)	588kw	1650kw	124㎥	1569/kw	124㎥	182ℓ
월간난방비	39,200원	60,700원	79,360원	104,800원	155,000원	182,000원
단가지수	100	155	202	267	3950	464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200여곳 시공한 전문 시공 업체입니다

■ 시공단면도
◐ 전기보일러사용비교표
25평 난방비 (1일10시간 기준) 시공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큐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설치하면 좋은 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식당 등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요사채 신축
석가래 교체
기 와 교체
전 지붕 공사 일체
기와공장 천안
011-9820-0112
041)554-0112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조청
♣ 山寺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융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조청원

다른 사찰 청년회는 문 닫는데 수원 봉녕사 청년회 멋진 창립

비결이 뭐야?

사찰 청년회가 하나 둘씩 사라지는 상황에서, 성공적인 청년회 창립을 이끌어낸 사찰이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수원 봉녕사(주지 묘엄)가 그곳이다.

9월 9일 열린 창립법회는 수원 지역에 거주하는 젊은불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봉행됐다. 청년회 창립법회에 10명은커녕 3~5명만 참석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는 것을 감안하면, 첫 출발부터 순조로운 셈이다.

물론 쉽게 '창립'의 문턱을 넘어 선 것은 아니다. 지도법사 정인 스님(봉녕사 포교국장)은 "창립을 하고 싶지만 준비과정에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봉녕사 청년회가 창립법회를 봉행하기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



청년회 창립, 어렵고 막막하다. 하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면 그리 먼 이야기도 아니다. 수원 봉녕사는 원력을 반년전부터 세워 한달의 준비, 두달의 홍보기간을 거쳐 청년회를 창립했다. 사진은 9월 9일 열린 봉녕사 청년회 창립법회 모습.

스님·신도 등 사찰 전체의 관심·지원이 필수
다른 사찰 벤치마킹·경험자 조언 듣기도 중요

1 목표 설정

봉녕사가 청년회를 창립할 계획을 세운것은 지금부터 6개월전. 승가대학(강원)과 율원을 운영, 사찰의 특성상 아이들이 떠들고 뛰어놀 공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워서 젊은 불자 대상으로 포교를 펼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도회로 이어지는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고, 젊은 불심을 잡아 사찰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사찰 특성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일은 사소해 보여도 '기초공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정인 스님은 "사찰의 모든 대중이 청년법회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스님과 대중들의 원력이 없으면 인재불사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 수원포교당서 노하우 전수받기

봉녕사가 매끄럽게 창립할 수 있었던 비법은 정인 스님이 한 달 간 받은 '특별과외' 덕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님은 '잘 되는 청년회의 운영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한 달 동안 꼬박 인근 사찰 청년회 법회를 참석했다.

스님이 '벤치마킹' 한 사찰은 바로 수원포교당 청년회다. 수원포교당 청년회는 19년간 지역 청년불자들의 포교 구심점이 돼왔고, 현재까지도 매주 30여명이 넘는 청년불자가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

수원포교당 청년회 역시 정인 스님의 취지를 듣고 흔쾌히 협조에 나섰다. 그간 수원포교당 청년회가 벌였던 행사의 진행과정, 회계출납 등이 상세하게 적힌 사업계획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가 하면, 청년회 운영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임원단을 파견해 창립법회 진행을 도왔다.

수원포교당 청년회 홍보팀의 컨설턴트(?)를 받은 정인 스님은 두달 간 봉녕사에서 열리는 일반법회와 신도모임마다 참석해 창립법회 공지를 빼놓지 않았다.

온라인 홍보에도 신경썼다. 홈페이지에는 7월 1일부터 행사를 알리는 게시물을 올렸고, 마지막 2주 동안은 팝업 공지창을 띄웠다.

3 신도회·거사림을 '멘토'로

정인 스님은 신도회와 거사림회를 청년회의 '멘토'로 설정했다. 청년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후원단체를 설정한 것이다.

'멘토'가 된 거사림회 임원진은 직접 창립법회에 참석해 청년불자들의 새출발을 축하하고, 더불어 축의금도 전달했다. 또 신도회 불자들은 이날 후원에서 과일을 내오고 다과를 준비했다. 처음 법회에 참석하는 청년불자들이 서로 서먹서먹해지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수원포교당 청년회 회장 이하 임원 5명도 창립법회에 참석해 부드러운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들은 정인 스님과 함께 만든 <봉녕사 청년의식집>을 입구에서 나눠주고 법회에서는 목탁을 치고 피아노 반주를 맡는 등 의식집전을 담당했다.

4 "다시 나오고 싶게"

9일 창립법회가 끝난 뒤 가진 다과시간. 20여명의 불자들이 둥글게 둘러 앉아 어떻게 청년회에 가입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한 청년이 "잘 부탁드립니다. 고3입니다"라고 말하자 여기저기서 "헉!" "그렇게 안 봤는데!"하는 소리가 터져 나온다. 당사자가 웃음을 참으며 "봉녕사에 학생회가 없어 청년회라도 가입하고 싶다"고 말하자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다.

다른 불자도 "그간 거사림회에 끼어 있었으나 이제 동년배의 법우들과 함께 불법을 공부할 수 있어 기쁘다"며 "봉녕사에도 청년회가 생기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들 자리를 털고 일어나길 아쉬워하자 정인 스님이 먼저 "오늘 스님이 화끈하게 쏩니다. 시내 찻집으로 갑시다"라고 외쳤다.

수원포교당 문미선 부회장은 "처음 법회에 참석하는 젊은이들은 대부분 부모님의 권유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낯설고 서먹해 한다"며 "본인이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면 일회성 참석으로 끝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계 맺기를 통해 신뢰감을 주는 것이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5 회원 확보 방안 모색

공간만 만들어놓고 할 일은 다했다는 듯 '이제 알아서들 해나가라'라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금물이다.

특히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를 선출하고, 책임지고 연락할 연락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출된 회장단과 각 부 임원진은 매주 법회 시작 전 회원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해, 끈끈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수립해 나간다.

또 전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칙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 향후 큰 단체로 발전할 경우를 생각해 기틀을 다진다는 생각으로 회칙을 정해야 한다.

청년회를 운영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불자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대다수의 조계종 사찰의 경우, 새로운 불자들을 대상으로 신도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때 기초교육 수료자들의 신청서를 확인해보면 연령대가 파악되므로, 기초교육을 수료한 젊은 불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청년회를 홍보, 가입을 유도하도록 한다.

청년회 창립을 생각하고 있지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을 찾기 쉽지 않고, 여건이 어려워 고민 중인 사찰이 있다면 대한불교청년회(02-738-3386)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글·사진=이은비 기자

탐방

숙명여대 불교학생회

"안녕하세요!"

"어머. 오랜만이에요, 언니!"

9월 11일 오후 8시. 숙명여자대학교 학생회관 402호 문은 늦게까지도 계속해서 열렸다. 반가운 얼굴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미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학생들은 열렬히 환영했다. 숙명여대 불교학생회(지도법사 일주 · 이하 숙불회) 동아리실에서 월요일마다 벌어지는 풍경이다.

숙불회는 올해로 41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다. 1963년 당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태동을 이끌어낸 주축 대학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80~90년대 대학가 풍속이 바뀌면서, 회원수가 급격히 감소해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년 간 신입생을 상대로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친 결과, 현재는 튼튼한 학생회를 자랑한다.

이는 '기수'를 따지는 등의 경직된 동아리문화에서 탈피, 모두에게 열려있는 숙불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前 회장 최정민(가족자원경영학과 04)양은 회원을 늘리기 위해 일반 학생들에게 포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 연중상시 문이 열린 개방적인 분위기로 숙불회를 탈바꿈시켰다.

때문에 숙불회에는 새내기 뿐 아니라 뒤늦게 가입한 2~3학년들도 많다.

지난해부터 독특한 전통도 생겼다.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에 회장 및 임원단이 함께 사찰을 찾아 '신입법우 유치 발원' 기도를 올리는 것이 그것이다.

최양은 "양적인 결과에 치중하기보다 진심을 다해 법우들에게 부처님 법이 전해지기를 기도하면 포교는 저절로 된다"며 원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의 활동은 젊은 여성불자 특유의 '원력'과 '신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 흔히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이성친구들과 만남을 갖거나 유흥으로 결속을 다지는 대학생들이 많지만, 숙불회는 '법회'와 '기도'를 통한 화합을 이끌어낸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사실은 매주 월요일 40여분에 이르는 절수행과 기도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여성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일까? 숙명여대 불교학생회는 자매처럼 끈끈하고 화기애애한 결속력을 자랑한다. 11일 지도법사 일주 스님과 숙불회 회원들이 모여 창립제 준비회의를 하고 있다.

기도법회 통해 화합과 결속 다져

41년 전통 비결은 '원력과 신심'

올해에는 내부적 결속 뿐 아니라 대외활동을 늘려 적극적인 포교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이미 (사)풍경소리와 협약을 맺고 캠퍼스 곳곳에 풍경소리 게시판을 부착했다. 또 10월 중에는 숙불회 회원뿐 아니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열린법회'를 봉행한다.

김보라(경영학과 05) 회장은 "적극적 홍보를 통해 앞으로 숙명여대 학생들 중에 '숙불회'의 존재를 모르는 이가 한 명도 없도록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9월 30일 오후 4시 숙명여대 젬마홀에서 열릴 '제41회 숙불회 창립제'를 앞두고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들은 "창립제를 통해 일반 학우들은 물론, 연락이 끊긴 동문선배들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만들고 싶다"며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402호를 찾아달라"고 입을 모았다.

글·사진=이은비 기자

엉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 빙의 이젠 제대로 알자! "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서울출판 Tel. 02-313-5047 Fax 02-393-9696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제4회 대원상(大圓賞) 시상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설립자이신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한국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현대화를 위하여 불교 포교에 모범적으로 정진하고 있는 불자 및 단체를 선정, 제4회 대원상을 시상합니다. 이는 모든 불자들에게 귀감이 되어 불법 홍포와 진흥의 바탕이 되도록 함이고, 또한 젊은 불자들에게 불교 포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마음으로 신행과 수행에 정진토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상부문
• 대 상 : 승가 부문 1인 - 상패 및 상금 1,500만원
재가 부문 1인 - 상패 및 상금 1,500만원
단체 부문 1곳 - 상패 및 상금 2,000만원
• 특별상 : 3곳 - 각 상패 및 상금 500만원

수상자 선정
① 대상 승가 부문은 '대원상심사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수상합니다.
② 대상 재가 부문 및 단체 부문, 특별상 부문은 추천 서류를 일괄 접수하여 수상자를 구분 선정합니다.
③ 특별상은 접수한 재가 부문 및 단체 부문 중에서 교계에 알려지지 않은 숨은 불자, 단체들 중에서 선정합니다.

수상 후보자 추천
① 수상 후보자 추천 접수는 일반 추천 접수와 '대원상수상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통한 추천 접수를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② 재가 부문 수상 후보자 본인이 직접 추천할 수 없고, 단체 부문도 수상 후보 단체의 대표나 임원 등이 직접 추천할 수 없습니다.
③ 개인은 불교 포교 활동 경력 10년 이상인 불자이어야 하고, 단체는 단체 설립 5년 이상인 곳으로 활동 회원이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합니다.
④ 각 부문 수상자는 해당 부문과 관련하여 활동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주로 검토, 선정합니다.
⑤ 후보자들이 일정 자격수준 혹은 불교 포교 활동 공적이 본 상의 권위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① 제 4회 대원상 수상 후보 추천서 (양식은 본 원 홈페이지 www.kbpf.org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관련 부문 실적 자료 첨부

서류 접수 및 문의처
① 접수 기간 : 2006년 10월 1일 ~ 10월 31일
② 접수 및 문의처 : 본 원 사무국,
우121-74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15층
• 전화 : 02)719-1855, 2606
• 홈페이지 : www.kbpf.org / e-mail : kbpf@kbpf.org
③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 (당일자 소인 유효)

시 상
① 시 상 일 : 2006년 12월 1일(금)
② 시상장소 : 추후 개별 통보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홍 승 희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39> 부처님의 계율에 의지하라

불교는 행복한 삶을 끊임없이 피어나게 하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이다. 맑은 삶, 고요한 삶, 지혜로운 삶을 불교에서는 행복한 삶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계(戒) 정(定) 혜(慧) 삼학(三學)을 한껏 피워낸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 따라서 우리 불자들은 스스로 "나는 행복한가?"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진정 맑고도 고요한가?"라고 되돌아보아야 한다. 맑고 아름다운 삶으로서 계율의 실천은 행복한 삶의 주춧돌이자 그곳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어느 누구도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며 혹은 사람들과 나쁜 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노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바르게 참선하는 수행자도 역시 '살생' '음행' '투도' '망어' 등 부처님이 일러주신 계율을 잘 지켜서 몸과 입과 뜻을 잘 다스려야 한다. 몸과 입과 뜻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우리는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이라고 한다. <선가귀감> 39장에서는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몸과 입과 뜻을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놀리는 수행자를 경계한다.

無德之人 不依佛戒 不護三業 放逸懈怠 輕慢他人 較量是非 而爲根本

'덕(德)'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의 계율에 의지하지 않으며 몸과 입과 뜻을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쓴다. 게을리 이럭저럭 지내면서 남을 업신여기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으로 근본을 삼는다.

'덕'이 없는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도(道) 닦는다고 말하면서 출가의 본뜻을 잊고 삿되고 악한 길만 따라 바른 깨달음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허망하게 불조(佛祖)의 기연(機緣)과 고인(古人)의 공안(公案)만을 올바른 법이라 하여 집착하고, 그 법을 전수하며 최고의 보배로 삼으면서 계율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의 인과를 무시하여 너와 나의 다툼만 늘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만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무리들은 마구니나 외도의 경계에 떨어져 영원히 그들의 권속이 되어버리기 십상이다. <열반경>에서는 "계율을 깨뜨린 비구는 몸에 위의와 덕성이 없다"라고 하였다.

부처님의 계율이란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에 해당하는 몸과 입과 뜻을 잘 다스려서 아름다운 삶을 잘 살게 해 줄 수 있는 행복한 지침이니, 이 계율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첫째 몸을 다스리는 것이니, 살아 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不殺生], 남의 소유물을 몰래 훔치지 말아야 하며[不偸盜], 사람들과 잘못된 관계를 가져올 수 있는 어두운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한다[不婬行]. 둘째 입을 다스리는 것이니,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 시켜 대중의 화합을 깨지 말아야 하고[不兩舌], 험하고 거친 말로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하며[不惡口], 명성이나 이익을 얻으려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不妄語], '없는 말'을 화려하게 꾸며 남을 현혹시키지 말아야 한다[不綺語]. 셋째 뜻을 다스리는 것이니, 함부로 욕심내어 분수에 넘치는 일이 없어야 하고[不貪心], 뜻하는 일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마구 화를 내지 말아야 하며[不嗔心], 이렇게 욕심내고 화를 내게 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없어야 한다[不癡心].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이 열 가지 좋은 업을 합쳐 십선(十善)이라 하고, 그 반대는 십악(十惡)이라 한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一破心戒 百過俱生

부처님 뜻에 맞추어서 다듬어진 마음이 한번 깨지면 온갖 허물이 함께 일어난다.

계율 실천은 아름답고 행복한 삶의 첫 걸음

삼업 잘 다스려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말아야

심계(心戒)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추어서 잘 다듬어진 마음이고 백과(百過)는 온갖 허물을 말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추어서 다듬어진 마음을 제대로 지키기만 하면 온갖 허물이 사라져 '십선'을 실천하여 바른 법을 일으키는 올바른 사람이 된다. 이 마음이 무너지면 온갖 허물이 일어나 '십악'을 행하여 삿된 소견을 갖게 되는 마구니가 된다. 부처님 법이 약해지는 말법시대에는 제멋대로 사는 마구니들이 많이 늘어난다. 서산 스님은 다시 말한다.

如此魔徒 末法熾盛 惱亂正法 學者詳之

이와 같은 마구니 무리들은 말법시대에 불붙듯이 일어나 정법을 어지럽힐 것이니,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법(正法)이란 부처님 가르침으로서 올바른 법을 말한다. 말법시대는 부처님 가르침이 올바르게 행해지지 않아 외도들의 삿된 법이 치성할 때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정법시대라도 삿된 견해에 떨어져 있다면 말법시대에 사는 사람이요, 세태가 험악한 말법시대라도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산다면 정법시대에 사는 사람이다.

참선하는 수행자라도 몸과 입과 뜻을 잘 다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이 배운 법만을 옳은 것이라고 내세워 수행자 위의를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처신한다면, 삿된 소견에 떨어져있는 것이니 말법시대 사람이다.

반대로 부처님 계율에 의지하여 몸과 입과 뜻을 조심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근본을 삼고 참선하는 수행자라면 정법시대에 사는 사람이다.

참선하는 수행자라면 모름지기 몸과 입과 뜻을 잘 다스려야 한다. 번잡한 일을 없애기 위하여 시끄러운 곳을 멀리 떠나 늘 고요한 곳에 머물러 공부해야 한다. 언제나 부족한 것으로써 만족하여 욕심이 없는 '소욕지족(少欲知足)'의 삶을 살아야 하고, 남이 하기 어려운 고행이라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두타행(頭陀行)'을 실천해야 한다. 작은 죄에도 두려움을 내고 부끄러워하며 그 허물을 뉘우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

부처님 계율을 존중하여 다른 사람의 헐뜯음을 막음으로써, 부처님 계율을 비방하는 중생들이 생기지 않게 하여 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게으름을 멀리하고 부지런히 용맹 정진하여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참선만이 깨달음을 가져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수좌(首座)

절에 가면, 스님들 앞에 붙는 호칭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방장, 주지, 원주, 노전, 부전 등…. 불교에 문외한인 사람에게는 사찰에 찾아가 스님을 뵐 경우, "어떤 호칭으로 불러야 하지?" 하며 당황스러울 때가 있지요.

호칭은 그 사람의 역할과 소임을 담고 있습니다. 가령 원주라면, 절 집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실무책임자입니다.

문제 하나를 내볼까요? '수좌(首座)'가 무엇일까요? 한자의 뜻만 새겨 봐도 얼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수좌는 선원(선방)에서 최고 어른스님입니다. 수행의 모범이 되는 스님으로, 총림(선원, 율원, 강원을 모두 갖춘 큰 사찰)에서는 방장스님이 없을 경우, 수좌가 모든 역할을 대신할 정도로 높은 직책입니다. 때문에 수좌는 수행자들에게는 정신적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뜻의 수좌가 최근에는 선방에서 참선을 주로 하는 스님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고 있지요.

지역의 어느 대학을 보니까, 직책을 이렇게 해놨더군요. 총장, 명예총장, 법무 담당 부총장으로 말입니다. 여기 빗대 설명하면, 방장은 종합대학교 총장, 조실은 명예총장, 수좌는 선원 담당 부총장 정도쯤 될까요? 방장은 총림에서, 조실은 선원이나 큰 절에서, 수좌는 선원에서 최고 어른스님이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수좌를 선원 담당 부총장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장과 조실스님을 보좌하며, 총림에서 제1 순위인 선원에서 대중을 지도하기 때문입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I Love Buddha

용정운(www.buddhaillust.org)

열린 마음=부처님 마음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114)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60강 혜능과 지눌의 맞장구

혜능의 구결 가운데, 얽힌 힘줄 몇 군데를 짚어보자. <금강경>의 무소득(無所得)을 두고서 그는 이렇게 부연했던 것을 기억한다.

[혜능] "그가 깨달은 것은 단 하나, 자성이 본래 청정하며 본래 번뇌 장애가 없다는 것, 그리고 적이상조(寂而常照)가 곧 자성불(自成佛)이라는 이치 하나이다." 但悟自性本來淸淨, 本無塵勞, 寂而常照, 卽自成佛.

(1)"자성이 본래 청정하다"

– 불교 특히, 선문(禪門)에서 늘 듣는 말이 "자성(自性)은 청정(淸淨)하다"는 것일 게다. 여기 자성은 대체 무엇일까. 오랜 무문 토굴과 화두 일념을 통해서야 여기 다가갈 수 있을까. 또 초기불교는 "자성이 없다"고 말하는데, 왜 여기서는 자성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도 모자라, 그게 절대 청정하다고까지 말하는가.

앞질러 말하면, 이 둘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둘은 서로 다른 자성(自性)을 말하고 있지만, 두 주장은 상호 보완적이다.

초기불교의 무아 논의는 여기 생략하기로 한다. 한 마디만 짚자면, 여기 "없다는 자성(自性)"은 세계를 향한 자기의식의 중심을 가리킨다.

지금 혜능이 말하는 자성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아참, 여기 자성(自性)은 불성(佛性)과 같은 말이라는 것은 미리 말해두어야겠다. 오늘 해설은 내 무딘 사설보다 고려 지눌 스님의 깊은 속내를 듣기로 한다. 출전은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수심결(修心訣)>이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책 제목 그대로, "마음 닦는 핵심 비결"과 연관되어 있으니, 잘 새겨들어야 한다.

(2)그렇다면 너는 곧 부처이다.

지눌은 자성이 대체 무엇이고 그게 어디 있느냐는 학인들의 물음에 이렇게 말했다.

– "네 몸에 있는데, 다만 네가 못 볼 뿐이다. 너는 하루 내내 배고프고 목마른 것을 알고 춥고 뜨거운 것을 알고, 기뻐하기도 하고 성질내지 않느냐. 그게 바로 '그것'이다." 지눌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렇다면... 당연히 너는 곧 부처이다!"

그럼, 이 자성을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는가. 지눌은 다시 친절을 베푼다.

– "네 마음이 이미 그렇다니까, 못 알아듣고선 무슨 수를 써야 하느냐고 묻느냐. 무슨 수를 쓰자고 들면 지식이 개입되고, 그럼 일은 어그러져 버린다.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제 눈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으니, 사물이 보이는 것으로, '내 눈이 있구나' 하면 되지, 다시 그걸 찾아다닐 일이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 찾을 생각도 말고, 안 보이네 어쩌네 하는 생각도 하지 말게. 내 마음의 신령스런 작용도 이와 마찬가지라, 이미 활동하고 있는데 어디서 다시 찾을 것인가. 찾으려고 들면 못 찾을 것이고,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 바로 견성(見性)한 것이야."

배고프고 성질내니… 너는 부처다



(3)적이상조(寂而常照), 비어있는 곳의 신령한 지식(空寂靈知)

학인 하나가 "당최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지눌의 고구정녕이 이어진다.

– "도(道)는 알고 모르고에 달려 있지 않다. 너는 제발, '나는 지금 모른다.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 하는 마음부터 접고, 내 말을 새겨들어라. 네게 보이는 사물은 다들 이미지에 불과하고 너의 수많은 생각 또한 본시 신기루에 불과하다. 이렇게 안팎이 비어있는(空寂) 곳에, 신령스런 지식(靈知)의 작용이 환하게 밝다! 알거라, 이것이 너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이고, 아울러 삼세(三世)의 제불(諸佛)과, 역대 조사(祖師)와 천하 선지식들이 그릅 안에서(密密) 전해온 진리의 인증(印)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사다리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처의 지위(佛地)에 오른다. '걸음걸음이 삼계(三界)를 건너 있고, 그리운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의심이 끊어졌네.' 그때 너는 인천(人天)의 스승이 되어 지혜와 자비의 두 날개로, 자리(自利)와 이타(利他)를 갖추어, 지상과 천상의 공양을 받을지니, 하루 만냥의 황금을 흘어 쓸 것이다. 네가 이리 된다면 진정 대장부이니 일생 해야 할 일을 마쳤다!"

혜능이 '적이상조'라고 하는 것을 지눌은 '공적영지'라고 했다. 적(寂)은 주변의 소음이 사라진 곳, 즉 번뇌와 염려 등의 진로(塵勞)가 탈각된 마음을 상징하고 있다. 그 오랜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만큼, 우리 마음은 본래의 신령스런 작용을 회복한다. 그 영지(靈知)를 혜능은 '비춤(照)'이라고 불렀다. 흡사 구름 없는 태양이 세상을 구석구석 비치듯, 편향과 외곡, 자기 중심이 없는 마음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비출 수 있다. 그때 즉 '자성불(自成佛),' 저절로 부처를 완성한다.

어제 운전을 하다가 버스에 꽁무니를 치일 뻔했다. 무심코 지나가다 흘낏 보니 조금 싼 주유소였던 것이 기억났고, 핸들을 꺾을 때, 나는 주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 마음이 문득 편의와 이익에 점유되고 나면, 사물을 공정하게 전체적으로, 여유있게 보기를 놓치고 만다. 사방이 갑자기 캄캄 어둠에 싸이고 욕망으로 난 한줄기만 길이 열리는 것을, 경계, 또 경계해야 한다. 나는 버스의 승객들에게 정중히 거듭 사과했다. 나 자신에게도….

(4)저 물소리 속으로 들어가라

그럼, 이 '비어 있되 신령스런 마음(空寂靈知之心)'을 어떻게 캐치할 것인가. 누구에게나 있다는데… 지눌은 대답에 지쳐, 한심한 얼굴로 타박한다.

– "그놈, 아직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나한테 묻는구나. 네 본심을 바로 가리켜 줄 테이니, 깨끗한 마음으로 잘 들어라. 다시 말하마. 하루 내내 보고 듣고, 웃고 떠들며, 화도 내고, 좋아라고도 하며, 옳다느니 그르다느니 가르고, 이런 저런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는데, 물어보자. 이게 대체 누가 하는 일이냐. 몸이 한다고? 시체는 냄새도 못 맡고 눈도 꿈뻑거리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몸도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니 몸이 그것을 한다고는 못하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필시 너의 본심(本心)이다! 그 밝은 신령이 있어 감이수통(感而遂通), 사물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줄 안다. 그래서 방거사가 왈, '신통하구나, 묘한 작용이여, 내가 물을 긷고 섶을 져 나르다니...'라고 했던 것이다. 그럼, 이 자리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여러 문이 있지만 하나만 가르쳐 주마. '저기 나무 위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느냐.' '예!', '그 듣는 것의 바탕으로 들어서면, 거기 수많은 소리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수많은 소리들, 그것들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기특하구나. 여기가 소리를 통해 진리로 들어서는 곳(觀音入理之門)이다. 내친 김에 하나 더 물어보자. 거기 일체의 소리들도, 일체의 분별도 없다고 했겠다, 그럼 그건 맹탕 아무것도(虛空) 없다는 것이겠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환하게 밝고, 어둡지 않습니다.' '그 맹탕 아니고 환한 무엇은 어떤 몸을 하고 있는고?' '형태가 없어, 말로는 그릴 수 없습니다.' '옳지, 거기가 여러 부처와 조사들의 목숨이 달린 곳이다. 다시 의심하지 마라.'"

지눌은 덧붙인다.

– "그것은 크기도 따질 수 없고, 끝도 없으며, 안팎이나, 오고감, 나고 죽음도 말할 수 없다. 깨끗하고 더럽다도 있을 수 없다. 시간이 없으므로, 변화도 없고, 그러므로 '미혹에서 깨달음으로'의 전환도 우스운 말이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도 없고, 형태도 이름도 없기에, 그래서 '본래 공적(本來空寂)'이라 한다. 그러나 이것을 무정(無情)한 벽돌로 여겨서는 안 되는데, 거기 신비로운 이해와 작용(性自神解)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음악인 성공조건 재능이 아닌 '열정'

조선 제일의 명창으로 알려져 있는 석개는 원래 여종이었다. 거기에다 얼마나 못생겼던지 '얼굴은 늙은 원숭이 같고 눈은 대추씨 같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을 정도다.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석개는 나물 캐러 산에 가면 노래 한 곡을 부를 때마다 바구니에 자갈 하나씩을 집어넣고 바구니가 가득 차면 노래 한 곡을 마칠 때마다 자갈 하나씩을 꺼내면서 노래만 부르다 날이 저물면 빈 바구니를 들고 돌아오기 일쑤였다.

그래서 매일 흠씬 매를 맞고 미쳤다고 따돌림을 당했다. 그래도 그녀는 노래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석개를 내치지 않고 노래 교육을 시켰다. 이런 노력으로 훗날 석개는 조선 최고의 명창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 책 <열정>은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였던 옛 음악인들의 이야기다.

석개를 비롯해 박연, 우륵, 월명사 등 명창, 명연주자들을 비롯 화가, 서예가, 문장가 등 9명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 이들은 한 시대에 성공한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중에는 억세게 운이 좋은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안목 있는 사람을 후원자로 만났고, 어떤 이는 실력 좋은 스승을 만나 인생 역전에 성공했다. 이 중엔 타고난 재능이 뛰어난 이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이런 이유만으로 제 이름을 세상에 드날릴 수 있었을까.

과연 그들이 성공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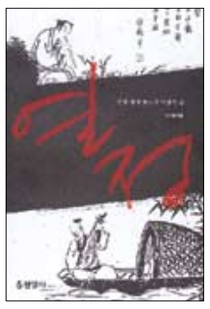
찬찬히 이들의 삶을 들여다 보면 답이 나온다.

저자는 이들이 운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세상 일은 열심히 한 뒤에 이루어진 열매라고 말한다. 그 어떤 계산도 하지 않은 순수한 열정이 이들을 명창, 명연주자, 명필가로 만들었지 요행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저자는 자신 안에 살아 있는 열정을 쏟았을 때, 운이 따라왔고 기회가 주어졌으며 든든한 배경이 생겼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삶이 변했다고.

재능이나 여건보다는 삶에 대한 태도가 남달랐던 옛사람들의 곧은 스토리를 통해 내 안에 숨쉬고 있는 열정이 삶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열정
서신혜 지음
현암사 | 8500원



김홍도의 <운상신선도>. 김홍도의 운상신선도는 피리소리가 들렸다는 신선의 행차 모습을 그린 것이다. 동자가 대금을 불며 앞장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음악 마니아들은 일정한 진화 패턴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를 테면 국악 마니아들의 진화 패턴은 판소리→ 산조→ 정악 순이라고 한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세계의 민속음악>의 저자 박창호(56 · 민속음악 및 고음악 평론가)씨는 자신의 진화 패턴이 그랬고, 대부분의 음악인들을 연구한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박씨는 판소리가 첫 대면에 강렬한 느낌을 주는 인상파라면, 산조는 정갈하지만 화려한 칸딘스키의 추상화이고, 정악은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직선만으로 그림을 그리는 미니멀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박씨는 음악도 깊이 들어갈수록 익숙한 것 대신 낯선 것을 추구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진화의 전 단계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외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조미료가 덜 들어간 음식을 찾는 이치와 같다고 주장한다.

한 민족의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민속음악을 듣는 것이라고 한다. 민속음악에는 각 민족이 이어온 역사와 삶이 녹아 있기 때문.

인생 녹아있는 민속음악

이 책은 켈트 · 노르만, 슬라브, 라틴, 비잔틴, 마그레브 · 터키,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힌두스탄, 라마야나, 인도차이나, 극동아시아, 서인도제도, 태평양제도 등 영미권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민속음악을 다루고 있다.

또 각 문화권 음악을 대표하는 음반 소개와 함께 켈트족 백파이프, 비잔틴 문명 주르나, 중앙아시아 입풍금 등 민속악기에 대한 옛 그림이나 조각, 사진, 화보도 싣고 있다.

특히 인도의 라가, 이슬람의 마캄, 이란의 라디프 등 대표적 세계민속음악에 대한 설명도 다루고 있다.

라가 음악은 힌두교의 최고 경전인 '베다'를 낭송하면서 시작됐다. 라가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정열, 색깔, 애착 나아가 인간의 마음을 채색하는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렘베티카는 고대 그리스의 민속음악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 기반 위에 다시 지중해 연안의 여러 음악요소가 가미됐다고 한다.

저자인 박씨는 33살에 늦깎이로 서강대 철학과에 들어가 클래식 동호회를 만들었을 정도였다. 이런 인연은 프랑스 파리 제10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기위해 공부하던 박씨에게 음반해설 요청이 들어가게 하는 요인이 됐다. 이 때문에 박씨는 프랑스 도서관이나 고문서 보관소를 뒤졌고, 희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보니 자연스레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됐다. <세계의…>에는 그렇게 모은 자료가 담겨 있다.



세계의 민속음악
박창호 지음
현암사 | 1만6500원

김원우 기자

네티즌 강추

"진정한 배움은 자비라네" 가르침 따라 수행



달라이 라마와 함께 지낸 20년 청전 지음, 지영사

'요즘은 진정한 수행자가 없다.'

나도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다. 나는 한동안 진정한 수행자가 있는가에 의문을 가졌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 분명 진정한 길을 곧게 가는 사람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기뻤다. 그리고 한쪽으로만 치우친 나의 생각도 부끄럽다, 세상의 이치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

달라이 라마에게서 20년 동안 가르침을 배우면서 수행자로서의 길을 가는 여행을 함께 따라가는 재미가 크다. 진정한 배움은 자비라고 말하고 그 자비를 라닥지역의 의료봉사를 통해서 실천하는 수행자. 그 척박한 삶을 간접적으로 들여다 보니 세상에 이런 곳도 있는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어떤 지역이길래….

누군가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자가 되고 싶어진다. 말로 하지 않아도 직접 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수행자를 만나서 너무 기쁘다.

(indo2195, kyobobook.co.kr/booklog/myBooklog.laf?memid=indo2195)

음악과 문학과 삶을 넘나드는 황홀한 즐거움



바흐를 좋아하세요? 송영 지음, 바움

음악과 문학과 삶을 넘나드는 황홀한 즐거움을 주는 소설가 송영의 음악 에세이다.

저자는 오랫동안 여러 매체에 연주회와 연주가에 대한 감상을 피력했었다.

또 음향기기에 대한 평까지 다양한 종류의 음악 에세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저자의 이 책은 자신이 직접 체득한 고전음악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서, 음악이 삶에, 삶이 음악에 영향을 주고 받는 방법도 명쾌하게 들려주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클래식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이 책을 보며 음악을 들으면 지루하지 않을 것 같다.

특히 클래식을 들으며 읽으면 좋을 책이다.

곁들여서 클래식 음악, 음악가, 작곡가에 대한 뒷얘기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또 초보자들에게는 어떤 음악을 들어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도움도 줄 것 같다. (suecream80, book.naver.com/bookdb)

책속의 밑줄긋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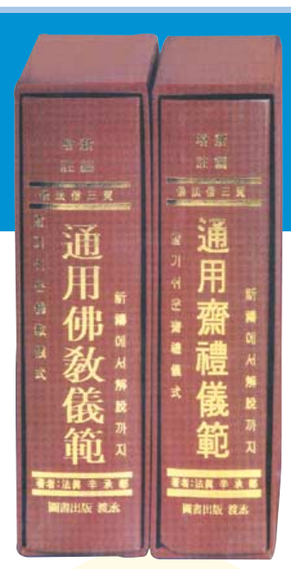


○…왜 태극권을 배우려 하느냐는 말에 현대인들은 '건강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심신의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물과 권력을 얻는다 해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쉬움만 더할 뿐입니다. 사랑은 더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건강한 몸없이 어떻게 애정의 향수에 젖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이(不二) 태극권 수련의 묘미는 건강과 철학, 그리고 명상을 함께 얻는다는데 있습니다. 서양에서 전해온 스포츠가 주로 신체의 근육을 움직이게 해서 심신의 건강을 돕는 운동법이라면, 동양에서 만들어진 요가나 선은 우리에게 심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내면의 무한한 세계에 노니는 명상의 맛 또한 함께 느낄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태극권 수련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건강과 명상도 얻고, 우주의 이치를 체득할 수 있는 철학의 안목도 함께 얻는데 있습니다. 태극권 수련은 동공(動功)과 정공(靜功), 오도(悟道)로 구성돼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통해서 천인합일의 선경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불이태극권> 본문 8쪽에서, 정암 지음, 하늘북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알기쉬운 佛教 儀式
新刊 通用佛教儀範 案內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여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딴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1장 송 주 편 | 제2장 예 경 편 | 제3장 전각예경편 | 제4장 불 공 편
제5장 모든법회 | 제6장 방 생 | 제7장 제불보살복장단의식 | 제불보살 파불의식
제8장 점 안 편 | 제9장 이 운 편 | 제10장 수 계 편 | 제11장 고 사 편



編 · 著者
法眞 辛承都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승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內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 중에 유인이 最上最貴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祖師님께 집필하신 의식집이야 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해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1장 시 식 편 | 제2장 장 의 편 | 제3장 다 비 편 | 매 장 埋 葬
제4장 四十九齋 입재(入齋) 삼우재(三虞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제5장 재 공 편 상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니 지장청 영산대재 괘불이운 건회소 영산작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십왕생칠재(預修十王生七齋)
제6장 기 제 사 | 제7장 靈魂結婚壇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 · 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 - 04 - 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일타 스님의 참선 수행 이렇게



선수행의 길잡이
김현준 역
효림 | 6000원

일평생 참선정진에 몰두하며 조계종 원로의원을 지낸 일타 스님이 평소 강조해 왔던 참선수행 지침을 모은 책이 나왔다.

<선수행의 길잡이>는 1999년 열반에 든 일타 스님의 선법문집. 이 책은 95년부터 월간 <법공양>에 연재함으로써, 많은 독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글을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이 보충하여 엮었다.

일타 스님은 이책에서 '참선이란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을 잡는 수행법이요 부처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단정한다. 그런다음 '좌선의 앉음새'와 수행의 생명줄인 '참선과 호흡법'에 대해 호흡 방법을 도표로 풀이하고 수식관 요령도 일러준다.

또 '화두'에서는 한국전통의 간화선법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화두 드는 요령을 설명한다. 덧붙여 어떤 것이 활구이고 사구인지를 설명하고, 초보자들을 위해 염화두법도 제시한다.

스님은 큰 의심과 믿음과 뜻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밝히고, 큰뜻을 세우고 마음을 독려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들려준다.

이밖에도 참선수행의 방해꾼인 번뇌와 혼침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경험담을 토대로 설명하고, 참선공부를 소찾는데 비유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해설해 준다.

55가지 꽃으로 본 부처님 가르침



부처와 꽃을 보러가다
스젠제 지음 | 선재 역
비채 | 1만9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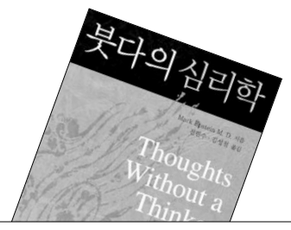
대만의 선승이자 문필가로 이름 높은 스젠제 스님은 대자연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은 끝없이 생겨나고 소멸하며 변화하는 세상의 이치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르쳐주기 때문이라고. 또 갖가지 꽃과 나무, 꽃나무를 따르는 벌과 나비는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해주며 무한한 여유와 생기까지 가져다준다고 한다.

<부처와 꽃을 보러가다>는 이 꽃이 피고 지는 자연의 현상을 관찰하면서 55가지 꽃에 비유하여 부처님 가르침을 풀어낸 불교 수상집이다.

스님은 우리에게 친숙한 55가지 꽃과 나무를 징검다리 삼아 번뇌, 집착 아집, 욕망, 무상, 무아, 공, 자비, 열반 등의 불교 용어와 불법의 원리를 끌어낸다. 이렇게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통해 불교 가르침을 알기 쉽게 풀이해준다.

불교와 정신치료 통합 시도



붓다의 심리학
마크 엡스타인 지음 | 전현수 · 김성철 역
학지사 | 1만5000원

두 분야 20년간 연구해온 美 정신과 전문의
잊혀진 기억 끌어올리는 매개물로 '명상' 활용

많은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는 잠재되어 있는 힘을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특히 불교교리에서 파생된 분야인 정신치료 또는 심리상담쪽이 더욱 그렇다.

그동안 동서양 학자들은 불교를 통해 정신치료나 상담의 한계를 보완해 줄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불교와 정신치료의 통합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20년동안 불교와 정신치료의 두 분야를 병행해 연구하고 경험해온 정신과 전문의이자 정신치료자 마크 엡스타인(Mark Epstein M. D.)이 명상과 정신치료의 통합을 시도했다.

<붓다의 심리학>은 불교와 정신치료의 통합을 다룬 책이다. 두 분야의 통합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분야의 통합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세계적인 프로젝트로, 동서양의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축적되었을 때는 엄청난 연구 성과물이 나와 정신치료 분야의 중요한 흐름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책은 제 1부 '마음에 대한 붓다의 심리학', 제 2부 '명상', 제 3부 '치료'의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마음에 대한 붓다의 심리학'에서는 먼저 고통의 원인이 곧 해탈의 원인이기도 '윤회'에 대해 알아본다. 두 번째 통찰은 '굴욕'이다. 심리학 용어인 굴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검토하도록 요청한다. 세 번째 갈애는 고통의 원인이 집착, 갈망에서 오는 것임을 알려준다. 네 번째 '해방'은 자신의 갈망을 똑똑히 확인하고, 탐욕, 분노, 무지의 제약으로 부터 벗어나 자신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무조건적 자유'에 도달했을 때의 얘기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공'을 통해 집착할 것이 없음을 아는 것이다.

붓다의 심리학적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 불교적 관점에 대한 예비 교육을 받은 다음 할 일은 바로 '명상'이다.

'명상'에서는 기초적인 불교적 주의집중법 즉 순수한 주의집중, 집중, 마음챙김, 분석적인 탐구의 명상 수행이 현대 정신역동적 관점의 최전방에 있는 문제들을 다룬다. 저자는 순수한 주의집중이란 연속되는 지각의 순간들에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명료하게 집중하여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저자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감각적 경험과 네 반응을 구분하라. 그리고 매 순간마다 네가 겪는 경험에 세세한 주의를 기울여라.'라고 순수집중의 의미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다뤄지는 '치료'는 정신치료의 실제에 관한 프로이트의 논문 '기억, 반복 그리고 훈습'을 통해 붓다의 가르침이 정신치료의 실제와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가를 다룬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성공적인 치료를 위한 첫 번째 요소는 잊어버린 소아기의 경험을 기억해내는 것이다. 이 기억을 끌어내기 위해 정신치료자들은 자유 연상이나 꿈의 해석 등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추가된 것이 명상이라는 것이다. 불교와 정신치료의 통합은 사람들이 잊혀진 기억을 효과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다.

명상을 통한 정신치료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봐야 할 책.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interview

첫 시집 낸 유필화 교수



"불교사상 기반으로 경영의 지혜를 시어로"

"시집에는 삶과 사랑, 불교사상, 전공인 경영학등 나의 총체적인 것을 담았습니다. 불교사상을 기반으로 한 경영의 지혜를 시로 풀어낸 것은 경영인들과 무교인들에게 포교하고픈 마음도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첫 시집을 발간한 성균관대 유필화 교수(사진).

유 교수의 시집 제목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는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유 교수는 "8고(八苦)중 5고인 애별이고(愛別離苦), 즉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헤어진다는 진리를 일반인들에게 화두로 들려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 시집은 '사랑의 연가' '경영의 지혜' '참나(眞我)를 찾아서' '나의 세계관' 등 총 4부, 53여편의 시에 수록되어 있다. 시 작품 곳곳에는 유교수가 직접 찍은 분위기 어린 사진도 함께 담겨있다.

특히 '참나를 찾아서' 편에 나오는 '연둣빛 호기심' '깨달음' '나의 묘비명' '만해 앞에 서다' '나는 대학교수' '나는 누구인가요' '소피 숄을 생각하며' '우리는 한국인' '외국어'등 시는 저의 인생관과 종교관이 돋보인다.

"10년전부터 매일 오전 5시면 기상해 40분간 참선에 든다"는 유 교수는 "수행을 하다보니 화도 줄고 늘 활기가 넘치게 되는 것 같다. 신선함을 잃지 않음이 우리의 진면목(眞面目)인 만큼 이 시집은 그러한 본래의 나를 찾아가려는 조그마한 노력의 소산"이라고 밝혔다.

유 교수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 그리고 이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간직하겠다는 결의를 품고 53 선지식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53편의 시를 썼다"며 "책과 인연이 닿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을 주었으면 한다"는 원을 밝혔다.

한편 유필화 교수는 한국마케팅학회 회장을 지낸 중견 경영학자이다.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경영학 석사, 하버드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여권의 경영학관련 저서를 국내외에서 출간했으며, 현재 성균관대 SKK GSB 부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송암 지원 지음
도피안사 | 1만8000원

21세기형 新가정의 모습은?

20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21세기형 신(新)가정을 꿈꾼다.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지극히 연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불교적인 입장에서 가정을 주제로 하여 가족간의 친밀감과 유대를 위한 부부 관계, 청소년 자녀와 부모 관계, 성인 자녀와 부모 관계로 나누어 21세기 신가정을 만들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책에는 송암 지원 스님의 '연기(신가정)는 인간 삶의 본질' '우리에게 가족과 가정은 무엇인가, 새로운 가정의 가치를 찾아서' 이기영 박사의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금하 광덕 스님의 '여성은 행복을 창조한다'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결혼과 가정, 조상과 영가 천도에 대하여' 등의 내용이 실려있다.

이 책은 광덕 스님(1927~1999)이 1976년 월간 <불광>에 연재한 내용과 지난해 본사와 도피안사가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를 주제로 개최한 법회의 각 발표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운명을 바꾸는 법(Changing Destiny)
정공 법사 지음 | 이기화 역
불광 | 1만2000원

선행이 쌓이면 운명이 바뀐다

사람의 나쁜 운명을 좋은 운명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지금 이 순간 악행을 삼가고 선행을 쌓는 것이다.

이러한 운명을 바꾸는 방법과 사례를 밝힌 책이 바로 <요범사훈(了凡四訓)>이다. 이 책은 명대(明代)의 관료 원요범(袁了凡, 1533~1606)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아들을 훈계하기 위해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네 가지 가르침'에 대한 글을 썼으며,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수백년 동안 자녀교육서로 널리 알려졌다.

이번에 국내에 시판된 <운명을 바꾸는 법>은 대만의 고승 정공(淨空) 법사가 현대인들을 위해 쉽게 강의한 내용을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9월 8일 정년퇴임한 이기화 교수가 번역한 것.

yosiamun.com 추천도서

· 방거사어록 강설	불광출판부, 혜담 지상 스님, 1만5000원
· 만화 성철큰스님1 · 2	열린박물관, 원택 스님, 각9800원
· 오늘부처의일기를써라	은행나무, 원혜 스님, 1만4000원
· 와온 바다에서 茶를 마시다	예문, 한승원 외, 9800원
·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화남, 선묵 혜자 스님, 2만원

도서주문 (02)2004-8219

조계종출판사가 불교출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겠습니다.


간화선
• 값 15,000원


불교입문
• 값 7,000원


간화선 입문
• 값 8,000원


절 수행 입문
• 값 6,000원


한글통일법요집
❶ 천도 · 다비의식집
• 값 12,000원


한글통일법요집
❷ 상용의식집
• 값 16,000원


반야심경
• 값 7,000원


천수경
• 값 8,000원

조계종출판사 발간도서

■ 신도교육 교재
『불교입문』 값 7,000원
『불교의 이해와 신행』 값 9,000원
『불교사의 이해』 값 9,000원
『불교문화』 값 9,000원

■ 수행
『간화선-조계종 수행의 길』 값 15,000원
『간화선 입문』 값 8,000원
『절 수행 입문』 값 6,000원
『수행법 연구』 값 25,000원

■ 법요집
『한글통일법요집1-천도 · 다비의식집』 값 12,000원
『한글통일법요집2-상용의식집』 값 16,000원

■ 경전 시리즈
『예불문』 값 6,000원
『반야심경』 값 7,000원
『천수경』 값 8,000원

■ 불교 경전
『아함경』 값 15,000원
『화엄경현담 · 주해집』 값 140,000원
『直指』 값 20,000원

■ 승가대학 교재
『서장』 완성판, 값 20,000원
『절요』 완성판, 값 10,000원
『도서』 시험판, 값 10,000원
『선요』 시험판, 값 10,000원

■ 지도자 지침서
『포교방법론1』 값 12,000원
『포교방법론2』 값 8,000원
『불교상담』 값 10,000원

■ 불교 일반
『조계종사-고 · 중세편』 값 15,000원
『조계종사-근 · 현대편』 값 13,000원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값 20,000원
『불교 명구 모음집』 값 25,000원
『침묵이 아니면 진리를』 값 8,000원
『현대사회와 불교생명윤리』 값 10,000원
『포교사고시예상문제집』 값 8,000원
『불교상식』 값 4,000원
『불교 첫걸음』 값 2,000원
『아름다운 인연 불교를 찾아서』 값 2,000원

■ 어린이 · 청소년
『고추잠자리』 값 6,000원
『물, 뱀이 마시면 독 소가 마시면 우유』 값 6,500원
『빨리 가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거야』 값 7,500원
『대자유인 선사』 값 7,000원
『너에겐 나무, 나에겐 부처님』 값 8,000원

■ 영문
『WHAT IS KOREAN BUDDHISM』 값 20,000원
『GUIDE to KOREAN BUDDHIST TEMPLES』 값 7,000원

■문 의 | 조계종출판사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빌딩 8층 | 전화 (02)733-6390 | 팩스 (02)720-6019



‘향2’.

“경주는 내 그림의 화두… 충만한 자부심 안겨줘”

‘천년 신라의 꿈’ 초대전 연 박대성 화백

9월 8일부터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는 수묵의 불국토로 변했다. 은은한 먹빛 부처는 화폭 곳곳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낸다. 동서양의 경계를 오고 가는 작품은 동양의 여백과 서양의 기교를 한 자리에 담아 거리낌없이 자신을 표현한다.

한국화의 대가 박대성 화백이 경주 남산 아랫자락에 작업실을 차린지 6년만에 그 동안의 결실을 기획초대전 ‘천년 신라의 꿈’에서 모두 풀어냈다.

“독학으로 그림 공부를 하다보니 첫 출발은 사실적인데서 출발했다”는 박 화백은 “현장을 충실히 담는데서 출발했던 내 그림의 시작은 세월이 흐르면서 붓은 적게, 뇌리에 강렬하게 남은 이미지는 크게 그리게 됐다”고 작품의 경향을 설명했다.

그림 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단상은 그림 한 켠에 곱게 적혔다. 초서체와 추사 김정희 선생을 좋아하는 박 화백이 직접 쓴 글씨들은 글과 그림의 경계를 넘나든다.

10월 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2층 제3전시실. 박 화백이 마음먹고 ‘대작’들로만 꾸며놓았다. 석굴암 본존불과 십대제자가 배열된 안쪽 코너 ‘법열’은 벽을 세워 마치 석굴암에 들어온 것처럼 장엄한 느낌을 살렸다. 합장하고 향이라도 사를 분위기다.

‘법열’ 앞에는 탁본 기법으로 신라를 그린 ‘천년 신라의 꿈-원융의 세계’와 금강산과 중국산의 이미지를 혼용해 하늘에서 내려다보듯 그려진 ‘현율(玄律)’, 인왕산과 화엄사 각황전을 환상적으로 배치한 ‘백운(白雲)’ 등이 시선을 돌릴 수 없게 만든다.



석굴암 본존불을 현대적 감성으로 담아낸 ‘법열’.

제2전시실에 걸린 가로 10m에 달하는 ‘불보의 세계’는 통도사 입구에서부터 금강계단 영취산에 이르기까지 낮밤을 한 화폭에 담았다. “절의 경치가 워낙 뛰어나서 ‘절경’”이라 말하는 박 화백은 통도사를 제일 좋아한다. “영축산도 좋고, 절 건축이 퇴락하고 불사를 적당히 한 역사와 숨결이 배어나는 절”이기 때문이다. 사찰에서 함부로 개불 단청 불사를 하는 것은 문화재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기도 했다.

화업 50년에 들어선 박대성 화백은 “인생에 있어 무언가를 찾아 헤매면서 막연하게 그림이 좋았다”며 “이제 그림은 ‘화두’가 됐고 그림을 그려온 내 생은 어떤 삶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자부심을 안겨주는 삶”이라고 고백한다.

박 화백에게는 24시간이 모두 작업시간이다. 그림 그리기에 몰두한 그 순간만이 아니라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그림을 놓지 않는다. 그림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24시간 풀가동체제다.

박 화백은 1995년 불국사 그림으로 화단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때를 회고하며 당시 불국사 주지 설조 스님과 부주지 성찬 스님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현했다.

“무턱대고 찾아가 방 하나 달라고 조르는 낯모르는 화가에게 설조 스님과 성찬 스님은 방을 내주셨어요. 불국사 무상출입에, 밤에도 다니도록 허락해 주셨죠. 근 1년을 머물며 불국사의 사계를 담았습니다. 각각 가로 8m, 세로 9m짜리 대작 불국사 그림들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시에서도 탄성을 불러일으키며 화제가 됐지요.”

설조 · 성찬 스님에게 아직도 마음의 빚을 지니고 산다는 박 화백은 “미래불사는 이런 문화작업에서 나올 수 있다”며 불교사찰 등을 소재로 작업하는 예술인에 대한 스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했다.

가톨릭신자인데 왜 이렇게 불교 이미지에 매달리는지 궁금했다. “불교집안에서 자란 탓도 있지만 우리 전통문화는 불교문화의 뿌리가 깊고 사찰이 좋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70년대 신부님의 도움으로 어려움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기에 가톨릭에 귀의했지만 평생 절만 찾아다니며 그림을 그렸다”고 인연을 설명한다.

이제 박 화백은 풍경 그림을 조금 멀리하려 한다. 지난해 회갑이 지난 박 화백은 그림인생을 회향하면서 다시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에 나서고 싶다는 소망을 말한다.

“앞으로 풍경보다는 현대 조형언어에 맞는 성화 불화를 그리고 싶어요. 전통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대적인 종교그림을 그리는 것이 남은 꿈입니다.” (02)720-1020

글=강지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탁본기법을 도입한 ‘천년 신라의 꿈-원융의 세계’는 신라가 가진 이미지를 곳곳에 담았다. 작품앞에 선 박대성 화백.



‘화음6’.

> “획기적인 불국사 그림으로 화단에 ‘충격’ 붓질 줄이고 이미지는 강렬하게 작업 현대 조형언어로 표현한 종교 그림이 ‘꿈’”

선과 선이 만나 마음으로 흘러간다

법관 스님 ‘心象心流’展

무의식적으로, 붓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색칠한 작품, 서양화의 틀에 동양화의 재료를 부은 작품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다.

법관 스님(능가사 주지)이 지난해부터 그려온 작품들을 들고 ‘심상심류(心象心流)전’을 개최한다.

서울 관훈동 윤갤러리에서 9월 19~26일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총 25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강렬한 색상과 복잡한 선으로 대변된다. 복잡한 선이 이리저리 얽혀있지만 눈에 거슬리지는 않는다. “선이 다른 선을 만나 흘러가기 때문”이라고 스님은 이야기한다.

그동안 그려왔던 선화의 단조로움을 벗어나 복잡한 선들을 물 흐르듯 그려냈다. 마음가는대로 흐르는 선 위에 마치 단청처럼 강렬한 색상을 덧입혔다. 스님



수행하는 틈틈이 ‘차 한 잔 마실 시간’ 만큼 투자해 그려낸 스님의 작품들은 선화의 또다른 모습이다.

에게 눈에 보이는 복잡함의 실상은 단조로움이다.

법관 스님은 “실제로 작품을 오래 길게 하지 않고 마치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들이는 것처럼 그림에 시간을 할애한다”며 “그림에 하루종일 매달리기는 싫고 그저 그리는 그 순간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작품을 설명했다. 또한 “수행이라는 본분이 있다 보니 작품은 전부가 아닌 일상의 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미술평론가 신향섭씨는 “법관 스님의 작품에서 수많은 선들이 엮이면서도 시각적인 혼란을 피해 하나의 완결된 조형세계를 구축해가는 것을 보면 그 감각이 놀랍기만 하다”며 “법관 스님의 그림은 보는 사람에 따라 산과 강 사람과 동물을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의 만물이 함축되고 응축된 만유의 세계”라고 평했다. (02)738-1148

강지연 기자





여러분 아직도 레이키(Reiki 靈·氣)를 모르십니까?

레이키는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씨가 발견하고 개발해 20세기 전반기에 약손요법, 氣주입법, 氣치료법으로서 일본의 대중사회에 일대 유행을 일으켰던 대체요법 보완요법의 체계입니다. 바로 氣요법가가 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1980년 부터 미국에서 붐을 일으키면서 전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한 후 현재는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국민의 질병예방, 건강관리, 질병의 치료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레이키는 특히 여러가지의 심신상과성 질환과 스트레스 관리에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교육비 55만원, 교육기간 2~3일
▶ 교육내용
- 자기치료법 • 타인치료법
- 원격치료법 • 마음의 버릇 치료법
- 영성향상법 • 면역력강화법
- 동식물에 대한 氣 주입법, 종합요법 등

▶ 교육 후 1개월 내외 무료복습 · 보충 교육제도실시

인터넷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회장 박희준)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방향으로 10분

손수 움직여 보여줄 뿐!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풍운 스님 (논산 영주사 조실)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 선과 악이 둘이 아니라는 풍운 스님은 이것들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도라고 강조했다.

모든 생명은 대자연 덕택으로 살고 있어 은혜 갚으며 살아야
"몸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금물… 천지우주에 순응하면 건강"
지역불자들과 함께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과 저지 운동 참여

"그저 산속에 살고 있는 중(僧)이여-, 입만 열면 거짓말이어서 할 말도 없는데 뭐하러 왔어."

호남의 금강으로 불리는 대둔산 영주사에 주석하는 풍운 보안(風雲 普雁) 스님. 조실채로 찾아뵈니 "자연에 순응하며 살 뿐이니 편히 쉬었다 가라"며 자상하게 맞아주신다.

"여기가 부처님 품안입니다. 산봉우리가 연꽃잎처럼 에워싸고 있어 연밥에 해당하는 자리이죠. 그래서 영주사에 오면 모두들 편안하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산이 좋아 골이 깊은 월정사로 출가한 스님은 전국의 명산을 찾아 정진했다.

23년 전, 황산벌을 찾아 우연히 들른 대둔산이 편안해 인연터라 생각하고 황무지에 바랑을 풀고 주지 법천 스님과 함께 불사를 시작했다.

본래 이곳에는 영은사라는 절이 있었다. 계백장군이 이끌던 5천 결사대와 나당 연합군 5만명이 싸우던 황산벌에서 수많은 이들이 전사했다. 영은사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건립한 사찰이다.

"풀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어요. 오직 기도만 했어요. 그러다보니 서서히 일이 되어 가고 오늘에 이르렀지."

'기도'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골이 깊은 계곡에 대웅전, 명부전 등 전각이 20여 채에 국내 유일의 노천 오백나한전, 금강사리석탑, 거대한 남북통일 미륵대불, 납골당 등 4만여 평의 대지에 대찰이 우뚝 서기까지에는 뭔가가 있겠지 했는데, 그것이 기도란다.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실천입니다."

의외였다. 풍운 스님이 말하는 기도는 여느 스님들의 기도와 달랐다. 스님은 "법당에서 목탁만 친다고 모두 기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실천할 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기에, 중생들이 기도(실천), 참회하고 인격을 기르는 도량불사를 했다는 것이다.

스님이 강조하는 '실천기도'는 쉽게 말해 '은혜를 갚는 것'이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대자연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 사람은 물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덕택으로 살고 있다. 이들의 은혜를 알고 갚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백장청규가 스님의 화두이자 기도이며 정진이다.



풍운 스님의 원력으로 완성된 국내 유일의 노천 오백나한전.

세수 80을 바라보건만 풍운 스님의 당당한 풍채는 마치 대둔산을 지키는 호랑이 같다. 요즘 사람들의 최대 관심인 건강관리가 궁금했다.

"자기 몸에 지나치게 관심 갖는 것도 잡념입니다. 여기에 얽매이면 도리어 큰일나요. 천지우주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영주사를 찾는 대중은 풍운 스님으로부터 법문 듣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스님은 "그저 풀 뽑고, 밥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법문"이라며 손사래를 치곤 한다. 스님은 하루종일 대중과 함께 있어도 별로 말을 하지 않는다.

도량 청소가 되었는지, 누가 왔다 가는지, 밥이 어떤지, 옷이 어떤지 일체 탓하지 않는다. 단지 손수 보여줄 뿐이다. 사실 스님은 끊이지 않고 실천법문을 하고 있건만 제대로 듣는 이가 많지 않은 것이다.

하루는 어느 불교대학에서 스님에게 법문을 청했다. 평소 법단에 오르지 않지만 불교대학측의 간곡한 정성을 뿌리칠 수 없었다.

가사장삼을 수하고 법단에 올랐다.

"거짓말하며 은혜만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참회합니다. 저의 절을 받아주세요."

세 마디 하고 대중을 향해 큰절 세 번 올리고 법좌에서 물러났다.

영주사로 들어서는데 아랫마을에서 노인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거마비로 받은 봉투를 그대로 건네주었다.

좀처럼 대중 앞에 나서지 않던 스님이 얼마전 산에서 내려와 세상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사람답게 사느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죽는 것도 중요하다. 계룡산을 지키는 일에 한 목숨 내놓는 것이 뭐가 아깝겠는가?"

호남고속철도의 계룡산 통과 저지를 위해 지역불자들과 함께 거리로 나선 것이다.

스님의 서재에 들어서자 경전은 물론 법률서적과 일본판 불교서적이 가득했다. 잠시도 책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요즘은 일본판 '사후에 어디로 가느냐' '불교설화'를 번역하고 있다. 굳이 책으로 출판하기보다 공부를 놓치지 않으려는 방편이다.

스님은 경전과 함께 법률판례집을 즐겨본다. 판례에는 세상사 이야기가 모두 담겨있기 때문이다.

"스님, 저렇게 많은 경전, 판례집을 요약하면 무엇이라 하시겠습니까"

"중도입니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물질과 정신, 선과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을 잘 병행조절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붓을 들어 일필휘지로 써내려갔다.

'불즉중도 중도불변(佛卽中道, 中道不變)', "불교는 곧 중도이며, 중도는 천지우주의 근본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글=이준엽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호 소 문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479-2 죽장사는 2006년 9월 11일 총무원법 제 20조에 의거하여 죽장사를 검수 인계하고 모든 건물의 출입을 금하며 용무가 있을 시 해당 소임자의 허락을 받고 출입하시기 바라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시 불미스러운 일은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2006년 8월 23일 부로 법심스님을 주지로 임명하였다. (현재 사찰입구 플래카드, 내용)

2003년 이후 직지사(주지 성웅)는 죽장사 (주지 명효)에게 총무원에서 발행한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고 종단에 재산을 귀속하도록 요구하여 현주지에게 주지사자 상승의 승계를 문서로 요구 하였지만 2006년 7월로 공권력 정지 5년 선거권 박탈의 중징계 이에 항의하여 죽장사(주지 명효)는 7월 20일 탈종을 총무원에게 통보하자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사고 사찰임을 통보하고 현주지를 멸빈하였습니다.

2006년 9월 11일 오후 3시 60여명의 스님 및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사찰을 무단 점거하고 조계종 호법부 검수에 응하라며 자물쇠를 절단하여 모든 짐을 강제로 이삿짐 센터에 유치하여, 주지, 총무, 공양주, 신도 5명은 불안한 환경에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서 현재 배회하고 있습니다.

명효스님은 18년 동안 죽장사를 불사하고 (88. 7. 30) 직지사에 주지임명을 받고 매년 분담금 500만원을 2005년까지 완납하였습니다.

구미 경찰서에 2006년 9월 11일 2시 40분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지만 동원된 경찰차(2대 6명)는 무단 침입과 자물쇠 강제철거를 항의하고 사진을 찍도록 요구 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앞에는 법도 없고 힘이 없는 나약한 사람은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는 현상황을 개탄합니다. 법적으로 등기되어 있는 개인 사유재산을 조계종이란 특정집단이 힘으로 짓뭉게어 버리는 현사태를 조계종 총무원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루 속히 도량이 평정되어 옷한벌을 갖고 배회하고 있는 저희 주지스님, 총무스님이 기도에 정진하도록 사부대중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후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무단 침입하여 점거하고 있는 귀 종단에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

2006년 9월 11일 신도대표



직지사가 임명한 주지 법심스님측에서 죽장사 출입을 통제, 철문을 봉쇄하고 있다. (9월14일 현재)



죽장사 입구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

• 신도회장 김학송 • 부회장 김순희 이화선 박금숙 • 염불회 회장 권소희 • 부회장 김점숙 이해옥 • 거사림회 부회장 박응도 황병진 김윤석

대 한 불 교 죽 장 사

‘중도 가르침’ 명심해야 합니다

풍운 스님의 가르침

과학 발전은 파멸 재촉, 지구에 상처 주지 마세요
‘내가 잘났다’는 ‘체’ 병 걸리면 실천하기 힘들어



환갑 넘어 대학원서 경제학 공부, 수행삼아 배운 무술 ‘고수’

풍운 스님은 1928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중학교 입학과 함께 8 · 15해방을 맞았다. 갑자기 주어진 자유로 사회가 혼란해지자 전국의 명산을 찾았다. 그해(17세)에 오대산 월정사로 들어가 5년간 행자생활을 마치고 초대 조계종 총무원장 지암 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았다.

월정사 강원, 동국대 불교학과, 일본 경도제국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스님의 향학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세속 나이로 환갑이 넘어서 한남대 대학원 경제학과를 마쳤다. 스님은 운동에도 남다른 소질이 있다. 젊은 시절 수행삼아 했던 검도, 우슈 고수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현대가 과학의 발전으로 생활이 풍족하고, 편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어 합니다. 사실 과학이 편리한 것 같아도 사람을 속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학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잘사는 것이 아니라 파멸을 재촉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에 순응해야 하는데 과학을 내세워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좀더 빨리 가겠다고 산 밑으로 굴을 뚫고, 제멋대로 제방을 쌓습니다. 과학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무한정 발달할 수 없습니다. 지구가 상처를 받다가 한계가 넘어서면 지각변동으로 뒤덮이고 하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요즘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재해가 바로 전초현상입니다. 자연훼손을 멈춰야 지각변동을 조금이나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지구상에 서식하는 동물, 식물은 물론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인입니다. 더불어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거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대자연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뿐 아니라 우주천지의 덕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보세요. 색이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의 색입니다. 지혜의 눈으로 보면 중생의 땀과 피의 색입니다. 중생의 땀과 피를 먹고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항상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말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실천으로 갚아야 합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남의 피와 땀을 거저먹고, 입고 살아서야 쓰겠습니까. 보답을 해야지요.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를 화두삼아 열심히 일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실천이 어려워요. ‘체’병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났다’는 ‘체’병 말입니다. 없으면서 있는 체, 못났으면서 잘난 체, 모르면서 아는 체하는 이 병은 한번 걸리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중도사상입니다. 물질문명과 정신문화, 몸과 마음, 선과 악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것들을 병행조절 하는 것이 중도입니다.

과연 인간의 본성은 선할까요, 아니면 악할까요?

우리는 코끼리와 장님 우화를 알고 있습니다.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정의를 내리는데 코끼리 다리를 만진 장님은 기둥이라고 하고, 배를 만진 이는 벽이라 하고, 꼬리를 만진 이는 구렁이 같다고 합니다. 코끼리를 만지기는 만졌지만 일부분만 만진 것입니다.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와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가 인간의 성품을 보기는 봤지만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져보듯 일부분만 본 것입니다. 선과 악을 동시에 겸하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동시에 겸했는데 어느 것이 악이고, 어느 것이 선이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악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기본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충족시키다가 어떤 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 권익을 침해할 때 우리는 악이라 합니다. 선을 넘지 않고 자제하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악이라고 전부 없어야 하고 선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 잘 병행 조절되어야 합니다. 단지 악이 나타나는 현상을 형이하학, 선은 형이상학에 속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병행조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이준엽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83>



가을은 廻心의 계절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른 가을에 맞이하는 이 기분 좋은 바람을 순수한 우리말로 색바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찬바람머리로 접어들면 오싹 소름이 돋아 서둘러 긴소매 옷을 꺼내 입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고 본격적인 겨우살이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는 연말에 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그토록 무덥던 여름을 보내고 나면 나도 모르게 여름 농사를 잘 지었는지를 돌아보곤 합니다. 매년 여름을 지날 때마다 그 해 여름이 가장 무더웠던 것만 같은데 특히 올해는 정말 버거웠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도 많이 벌어졌던 만큼 몸과 마음이 여느 해와 달리 쉼없이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선들선들 불어오는 색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자니 자꾸만 마음이 늘어집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만 다니면서 살았으면 딱 좋겠다는 유혹이 자꾸만 일상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마음 돌려 지난 악업 참회하고
덕을 준 세상에 은혜 갚는다면
마음이 풍요롭지 않을까요?

‘마음공부는 쉬어서는 안 되는데…’하는 망설임도 없지 않지만 마음 가는대로 발길 닿는 대로 내 몸을 놓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궁금합니다. 마음공부, 마음공부…라고들 많이 말하는데 이건 마음으로 공부하자는 뜻인지, 마음을 공부시키자는 뜻인지, 마음의 공부를 하자는 뜻인지 애매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셋 다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저렇게 생각해보면 이중에 정답은 오직 하나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작용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잠시도 머물지 않으며, 번개같아서 한 순간도 머물지 않는다. 원숭이같아서 다섯 가지 욕망의 나무에서 노닐며, 화가같아서 갖가지 형상을 그린다”라는 <심지관경>의 말씀이라든가 “마음은 선악의 근원이니 선악의 뿌리를 끊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마음이 안정되고 해탈한 다음에라야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법구비유경>의 말씀을 떠올려보면 ‘마음공부’란 말은 마음을 공부시킨다는 뜻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가을의 초입에 자꾸만 늘어지려는 마음을 다잡으려 하니 마음공부를 표현하는 가장 멋진 말이 생각납니다 — 회심(廻心)이 그것입니다. 회심은 ‘마음 돌리기’입니다.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을 반성하는 일이 그 첫째입니다. 회심참회(廻心懺悔)라고 부릅니다.

“만약 저지른 악업이 있어도 마음을 돌려 고백해서 앞서의 잘못을 반성해 깨닫고 마음을 집중하여 거듭 참회한다면 비록 악업을 지었다 해도 그 과보를 받지 않는다”라고 <분별선악보응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경에서는 ‘마음을 돌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질렀는지를 본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쉽게 인정하기가 어려워 마음이 굳습니다. 그 굳은 마음이 스르르 풀어져서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바로 참회의 시작이고 참회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마음 돌리기는 쪼그라들어서 바늘 하나도 꽂힐 여유가 없던 마음을 좀 크게 열어젖히는 것입니다. 회심향대(廻心向大)라고 부르는 이것은 저 혼자만의 행복과 완성을 추구하려던 목표를 수정해서 세상을 향해 아주 크게 인심을 쓰는 일입니다. 인심을 쓴다고 말했지만 사실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해준 세상에게 은혜를 갚는 차원입니다. 세상을 향해 크게 마음을 돌리는 이 일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림없습니다.

<보리심론>에서는 “만약 결정적인 믿음과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은 겁의 한정을 논할 것 없이 인연을 만나야만 회심하여 대승의 길로 향하게 되나니(回心向大)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 성을 세우셔서 삼계를 벗어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옹졸한 마음을 돌려 크게 열어젖히기 위해서는 부처님과 같은 큰 스승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주 법회에 참석하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경전과 불교서적이라도 부지런히 접해야겠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가을은 풍요와 수확의 계절이라 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름 농사를 망친 가난한 살림살이에는 참 빨리도 살얼음같은 추위가 찾아들 듯 마음을 잘 길들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혹독한 세상살이의 번뇌가 찾아올 것입니다. 올 가을에는 가난한 마음을 풍요롭게 해줄 ‘마음 돌리기(회심)’ 수행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윤년 윤달의 효도 선물 대광[금물] 수의로 하세요

(상표출원번호 0039174)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02)747-1760

전화 주시면 희망 상품 삼베 견본을 보내드립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견본과 상품이 다를 경우 100% 교환 환불 해드립니다.

- 상품은 온라인 입금 후 원하시는 일자에 배송시켜 드립니다
- 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어떠한 상품과도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우수한 품질의 삼배로 한땀한땀 정성드려 만들었습니다.
- 상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한국의류시험연구원(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원단 성분분석표를 첨부해드립니다.
- 모든 상품은 오동나무상자에 포장해드립니다.

수의 가격표

상품호칭	제작방법	재질(성분)	원단가공손질	원사생산	판매가격(25%할인가)
안동포	수제직	대마(삼베) 100%	천연가공 경북 안동	경북안동	3,800,000
1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천연가공 경북 안동	중국(산동)	1,250,000
2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경남 남해	중국(사천)	835,000
3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중국	중국	475,000



수의제품 품질보증업체
2002년 한국의류 시험 연구원
Q마크 획득





세시풍속〈歲時風俗〉

윤달(閏月)은 재액없이 무난하게 여기고 모든일을 거리낌없이 하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일년중에 한달이 덤으로 있는 윤달에는 손재 등이 없는 기간으로 모든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평소에 꺼려하던 이장(조상의 묘를 옮기는 일),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일 등을 윤달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예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집안어른의 수의를 마련해두면 집안어른이 무병장수하고 자손도 번창한다는 세시풍습이 있다.
그 뜻을 미루어 짐작컨데, 수의를 마련함으로 자손들은 여생이 얼마남지 않으신 집안어른을 더욱 공경하고 효심으로 받드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며 집안어른은 죽음을 다스리고 대비하면서 여생에 대한 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라 여겨집니다.

대광 금물 수의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19 광장시장(1층) TEL : 02)2279-7450, 02)2275-8075, 02)747-1761 / FAX : 02)2272-6715

代 이어 온 재배법으로 '명차' 세계화

제다 명인을 찾아서

신광수 순천 명도다원 대표

농림부는 1994년부터 우리나라의 전통 조리·가공법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전통식품 명인'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상 대대로 전해지는 고유의 맛과 제조법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거나 20년 전통식품의 조리·가공업에 종사한 사람에게 '명인' 호칭이 주어진다. 농림부가 지정한 '전통식품 명인' 중 차 명인은 모두 3명. 1999년 순천 명도다원의 신광수 대표(제18호 야생작설차)와 하동 명인다원의 박수근 대표(제16호 수제녹차)가 지정된데 이어 올해 2월 하동 쌍계제다 김동곤 대표(제28호 우전차)가 명인에 선정됐다. 3회에 걸쳐 제다 명인을 차례로 만나 본다.



야생 자설차 제다 명인인 신광수씨가 조계산 백련봉 자락에 조성한 차밭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

순천 조계산 선암사 초입에서 명도다원을 운영하는 신광수(56)씨는 지난 1999년 농림부가 지정한 야생 작설차 제다 명인이다.

신씨의 명인지정은 선암사 스님들이 마시던 '불가(佛家)의 차(茶)'가 정부로부터 공식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신씨가 어려서부터 선암사에 거주하면서 선친 용곡 스님(前 선암사 주지)으로부터 차 재배와 제다법을 전수받았고, 40년 가까이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 몸에는 차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마다 차를 마셔 살아났고, 평생 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 몸이 약했던 신씨는 어머니가 미나리, 씀바귀 등을 우린 약을 너무 써서 먹지 못했다. 그러나 부친이 주신 차는 입에 맞았다. 학교를 마치고, 살기 위해 선암사로 들어갔다. 용곡 스님과 함께 선암사 야생차밭을 복원하며 차와 함께 살았다. 차는 신씨에게 건강을 되찾아 주었다.

"차의 진향(眞香)과 오미(五味)는 깊은 땅속의 순수한 기를 머금은 찻잎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차의 성질에 따라 제다한 차야말로 진정 생명이 있는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령 300~700년 야생차밭과 국내 최대 죽로차밭을 운영하고 있는 신씨는 "차나무는 땅속 10자 깊이까지 내려가는 직근성을 잃지 않았을 때 좋은 찻잎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농림부 지정 야생 작설차 제다 명인
일본에 수출하며 품질 인정받아
고산지대 조성한 차밭 관광명소로

좋은 찻잎에 명인의 미각, 후각, 촉각으로 제조된 차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차'가 된다. 그래서 신씨는 자신이 제다한 제품은 '명인 신광수 차'라는 상표를 붙인다. 이름을 붙일 만큼 '자랑스럽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씨의 차는 국내를 넘어 외국에까지 명성이 높다.

지난 9월 11일, 세계 최고급 차만을 취급하는 일본 상다회 대표 오가와 히데히코 일행이 신씨 차밭을 찾았다. 야생차밭과 제다공장, 완제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오는 2009년까지 100억원 상당의 신씨 차를 수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본격적으로 일본에서도 일류호텔과 백화점에서 신씨의 차를 만날 수 있게 됐다.

이제 신씨는 한국 전통차의 세계화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인도 다즐링, 스리랑카 우바, 중국 기문을 세계 3대 홍차로 꼽듯, 한국 고유의 전통차를 세계 명차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씨는 조계산 백련봉 자락에 10만평 규모의 차밭을 조성하고 있다. 세계의 명차들이 해발 1000m 지대에서 생산되는 것을 참작해 고산지대에 차밭을 일궜다. 상사호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신씨의 차밭은 차나무가 10년을 넘어서면서부터 장관을 이루고 있다. 신씨의 차와 함께 야생차밭도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신씨는 선암사에서 대대로 이어온 차나무 재배법을 따르고 있다. 이곳에는 비료, 농약은 물론 정부가 친환경 농가에 제공하는 석회까지 철저히 반입을 금하고 있다.

신씨가 추진하는 '우리차 세계화'는 대를 이어 진행되고 있다. 대학에서 식품학을 전공한 아들(25, 희찬)은 차의 성분을 이용한 기능성식품을 개발해 내년에 상품화할 예정이다. 딸들은 세계화의 관건인 외국어를 전공했고 '차 유통'을 준비하고 있다.

"남도문화의 귀결은 차입니다. 앞으로 순천은 세계 명차 산지로 각광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조계산을 중심으로 야생차와 선암사에서 내려온 제다법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글·사진/순천=이준엽 기자

중장기적으로 자생차 육성·보급

정읍시, 세미나 개최 및 벽련암 차밭 복원

2003년부터 총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녹차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정읍시가 자생차를 지역 특산물로 육성·보급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한다. '정읍자생차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정읍시는 2015년까지 대규모 자생차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자생차밭을 통한 관광산업도 활성화할 방안이다.

정읍시는 지난해까지 112농가 135ha의 차밭을 조성했고, 올해 안으로 약 300ha의 녹차단지가 추가로 조성한다. 또한 내장상 민박촌 4개 마을에 녹차 울타리를 조성하고 내장산 벽련암에 1만여 평에 이르는 차밭을 복원하는 등 정읍 자생차를 이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벽련암 차밭은 일반인에 분양에 주말농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제다 및 다도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한편,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9월 22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제2회 정읍 자생차 산업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정읍 자생차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해 차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세미나에서는 최석환씨(월간 차의세계 발행인)가 '천원차(川原茶)의 재발견'을, 한상섭 교수(전북대 산림공학과)가 '정읍 자생차의 발전 방향'을, 정인오 교수(한서대 차학전공)가 '한국 덖음차의 품평기준과 고급차 가공기술'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 이어 자생차 시음회 등도 펼쳐진다. (063)536-7684

瑞榮普洱
진년보이·진년오룡·철관음·오룡차
대홍포·화차·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보이차 전문점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인류 문화속의 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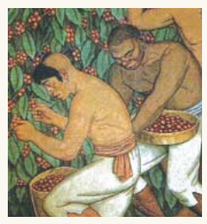
9. 신비의 음료

⑧ 커피왕국

커피는 네덜란드와 프랑스령의 식민지로 제한되었던 생산지에서조차 열매의 반출이 금지됐다. 하지만 프랑스령 기아나 총독의 아내는 꽃다발 속에 커피콩을 숨겨 정부(情夫)였던 브라질 관리 팔헤타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 커피콩이 브라질 땅에 심어져 수 억 그루의 커피나무로 자라게 됐으며, 브라질은 커피 생산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포르투갈의 식민지 브라질의 주 생산품이 처음부터 커피였던 것은 아니다. 이전까지는 사탕수수 재배가 경제의 주축을 이뤘다. 사탕수수 농장은 대단위 농장 형태로 부를 가져 왔다. 사회적인 구조는 재력을 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농장주와 농장의 책임자, 자유민, 흑인 노예로 구성됐다. 노동력의 대부분은 노예에 의존된 거대한 노예사회였다.

땅·기후·노동 조건 갖춘 브라질은 생산량 1위
대량 생산으로 인한 양적증가는 품질 저하 초래



커피콩을 수확하는 브라질의 노예들(F.미란다, 1750~1816).

이러한 사회구조는 커피 플랜테이션을 건설하는 토대가 되었다. 열대성기후와 화산성 토양을 가진 상파울루 고원은 양질의 커피를 생산할 수 있는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최적지였다. 화산작용으로 현무암의 분열에 의해 생성된 땅, 흐릿한 날씨와 충분한 습도, 노동 조건은 브라질을 커피 생산국 1위에 올려놓았다. 브라질의 커피 산업은 이웃해 있던 멕시코, 콜롬비아 등에 영향을 주어 커피 재배를 확산 시켰으나 주변국에서 생산된 량은 극히 미미했다.

포르투갈인들에 의해 지배받고 있던 실론섬은 1802년 영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커피를 생산했다. 그러나 불교인이 대부분인 실론섬 사람들은 커피보다는 차를 마시게 되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슬람의 음료인 커피재배는 실론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거부감을 주었으며, 커피콩의 무게를 무겁게 하기위해 커피콩을 찌는 등 편법을 쓰기도 한다. 재배지 면적으로 볼 때 커피 수확량은 성공적이었으나, 어느 날 수확을 앞둔 커피 열매를 새들이 먹어치우는 이상 현상이 일어났다. 커피 열매를 먹은 새들은 더욱 극성을 부렸고, 원주민들은 불길한 예감으로 더욱 커피를 외면했다.

10여년이 흐른 뒤 사람들의 옷과 손을 통해 옮겨진 홀씨는 커피나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을 제공하여 커피농장을 황폐화 시켰다. 이를 계기로 대체 품목인 차나무를 재배하기 시작했으며, 홍차의 대명사인 실론티가 탄생됐다.

브라질의 커피 산업은 계속 팽창됐고 과학적으로 재배했다. '크레올' '부르몽' '보투카투' '엘로우' '자바' '마라고 지페'라는 6종의 커피가 생산되었다. 모판에서 1~2피트 까지 자란 묘목을 12피트 간격으로 옮겨 심었다. 묘목은 성장하여 작고 하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점점 초록색에서 체리빛으로 변한다. 커피 열매가 익으면 수확하여 저장해 두는데 건식법과 습식법이 있다. 건식법은 열매를 햇빛에 말려 나무 분쇄기에 빻아서 껍질을 제거한다. 습식법은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에 넣고 껍질을 제거한 후 생 커피콩을 세척하여 발효 탱크에 저장해 둔다. 2~3주의 발효과정이 지나면 햇볕에 말린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원두가 유리처럼 단단하고 매끄러운 상태가 되어 완제품으로 커피시장에 판매가 된다.

20세기 초 브라질산 커피는 전 세계의 90%이상을 생산했다. 그러나 커피의 과잉생산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까지 커피를 처분할 시장을 찾아야 했다. 중국과 일본 등으로 커피 수출을 원했지만 실패했다.

대량 생산으로 인한 양적 증가는 품질 저하를 가져왔으며, 병충해로 인한 커피나무의 품질 변화는 맛과 향기를 잃어버린 커피를 양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삼사순례 및 소원성취
기도도량 동 해 사
매년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밤, 낮없이
사리탑위에 법비가 내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어 중생들의 어떤 소원도 이루어 지는 곳
기도영험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기도의 참 맛을 느껴 보세요

법비오는곳 사리보탑
※ 대형주차장, 방생기도처 5분 소요 · 낙산사 10분소요 · 후휴암 15분소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곳 동해사
033)672-2900

수제화로 제작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상표등록 : 614981호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망사 단화

쿨크 中창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건강 슬리퍼


• 가격 : 60,000원
• 규격 : 225-285mm
• 색상 : 회색, 흑색
좋은 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正宇 천연 무공해 황토방 시공
스님들의 수행공간이나 침실방을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는
천연 순100% 황토로 황토방을 信心으로 시공하며
순 100% 천연황토가 아니면 시공비를 전액 받지 않겠습니다.
1. 황토방은 노화방지 및 혈액순환 촉진 스트레스 해소 만성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2. 황토방은 신경통 요통 아토피질환 알러지 비염 기관지 천식에 효과적입니다.
3. 황토방은 원적외선 온돌효과로 난방비가 절감되며 인체내의 나쁜 과산화지질을 중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4. 천연황토는 실내공간의 악취제거와 습도조절에 효과적입니다.
5. 황토방은 건축물의 개 보수 및 사후관리가 용이합니다.

황토방. 인테리어 시공전문
정우천연황토산업
대표 정우철 합장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전 화 062)226-4445
팩 스 062)234-1286
핸드폰 011-607-9828
email : bestceo12@naver.com



식품안전성 "포장지만 봐도 알아요"

9월 8일부터 '식품안전표시제'

"과자 한 봉지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재료가 들어간단 말이야?"

경기도 이천에 사는 전영주(30)씨. 지난 주말 할인매장에서 과자를 집어든 전씨는 포장지에 빼곡히 적힌 '원재료명' 표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 기껏해야 5~6가지 재료만 적혀 있던 포장지에 20가지도 넘는 재료명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달라진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기준'에 따라 9월 8일부터 식품을 만들 때 사용된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이 포장지에 공개되고 있다. 그전에는 많이 쓰인 원료 5가지만 표기하면 됐었다.

개정법에 따라 빙과류의 경우 제조일자를 반드시 명시하고 어린이 질식사고의 위험이 있는 '미니컵 젤리' 등에는 경고문을 적어야 한다. 커피나 차 등 카페인이 0.15㎎/㎖ 이상 들어있는 음료제품에는 '고카페인 함유'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이어 내년 12월부터는 과자, 음료, 면류 등의 포장지에 비만 및 당뇨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당류 · 트랜스지방 · 콜레스테롤 함유량도 표시해야 한다.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기업들은 미리 '원재료 완전 표시 상품'을 내놓았다. 풀무원은 지난 5월 모든 제품의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 뿐 아니라 14대 영양성분, 열량, 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당류 함량을 제품포장에 공개하기도 했다.

가공식품의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가공이나 보존의 목적으로 첨가 · 혼합 · 침윤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화학적 합성품과 천연 첨가물, 혼합제제류로 나뉜다. 화학적 합성품은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는 물질이며, 천연첨가물은 천연상태의 동 · 식물이나 광물에서 추출하되 유효성분만을 분리 · 정제하여 얻어낸 것이다.

혼합제제류는 2종 이상의 식품첨가물을 혼합한 물질이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로 화학적 합성품 416품목, 천연첨가물 194품목 등 610품목을 지정했다.

최근 식품첨가물이 알레르기 등의 질환을 유발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유해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 '식품 완전 표시제'를 실시하는 것은 제품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소비자나 특정 식품 · 성분을 제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너무 많은 양의 정보가 제공되다 보니 오히려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표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도 염려되는 부분이다.

식품 포장지에 표시된 주요 식품첨가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더 많은 원재료 및 식품첨가제에 대해 알고 싶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찾아보자. 메인화면의 '정보마당'→'식품'→'식품첨가물정보' 분야에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원재료 · 식품첨가물 포장지에 공개
> 이름만 봐선 유해여부 '아리송'
> 빙과류도 제조일자 명시, 꼭 확인을
> 커피 · 차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 주요 식품 첨가물

▶ 혼합제제: 식품 첨가물을 2종 이상 혼합하거나 1종 또는 2종 이상 혼합한 것을 희석제와 혼합 또는 희석한 것을 말함.

▶ 합성착향료: 향기로 코를 자극해 식욕을 느끼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비만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04년부터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 L-글루타민산나트륨: MSG(인공화학조미료)라고도 불림. 식품에 감칠맛을 더해주는 첨가물로 아토피 유발 등 유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FDA에서는 신생아용 음식에는 첨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아황산나트륨: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 등으로 표기. 색소를 파괴해 흰 식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표백제의 일종이다. 과다섭취 시 두통, 복통, 메스꺼움, 순환기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다.

▶ 아질산나트륨, 질산칼륨: 햄 · 소시지 등 육가공품의 색을 유지하기 위하여 첨가되는 발색제. 독일에서는 육가공품에 한해 1970년대 사용금지했다.

▶ 식용색소 녹색 제3호, 적색 제2호 등: 인공 착색제. 미국의 경우 적색 2호는 발암물질 가능성이 있어 1970년대 사용금지했고, 황색 4호는 알레르기 및 천식유발, 과민증, 체중감소, 설사 등을 이유로 사용상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 부틸히드록시톨루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등: 산화방지제. 지방의 산화를 지연시키거나 산화에 의한 변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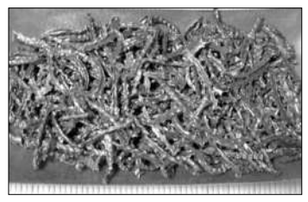
▶ 인산향산나트륨, 소르빈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 등: 보존료. 미생물 증식에 의해 일어나는 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된다.

▶ 탄산수소나트륨: 중조, 중탄산소다, 산성탄산나트륨이라고도 함. 발포 분말주스의 원료로 주로 사용된다.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34〉

도토리묵 말리기와 도토리묵 오가리 무침



새벽녘 코끝을 자극하는 바람이 어느덧 가을의 문턱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벌써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은 계절이 되어버리다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은 볕이 짧습니다. 가을볕이 짧기에 할일은 더욱 많습니다. 겨울 동안 먹기 위해 늙은 호박도 말려야 하고, 과일조림도 해야 하고, 도토리묵도 말려야 합니다. 짧은 가을볕에 해야 할 일이 많기에 이불 속에 오래 머물 시간이 없겠지요?

전 가을이면 도토리묵을 자주 말리곤 합니다. 도토리묵 말린 것을 본 사람은 송충이나 벌레같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도 처음 도토리묵을 말릴 땐 무척 놀랬습니다. 꼭 송충이 처럼 생긴 모습이 징그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웃기기도 했지요.

하지만 맛있는 도토리묵 오가리 무침을 먹을 때면 은근한 미소가 입가에 머뭅니다. 가을볕에 도토리묵을 말리다보면 겨울이 기다려집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먹는 구수한 음식이 그리운 탓이겠지요.

사실 도토리묵을 말린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지 못할 일입니다. 말랑말랑한 묵이 바짝 말려져 맛깔스런 요리로 거듭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지요. 도토리묵을 말린 것은 국에 넣어도 좋고 무침으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도토리를 주문해서 가루를 내 묵을 쑨 다음 도토리묵을 말리는 일은 번거롭기도 하지만, 겨울을 버티게 해주는 든든한 영양식이 됩니다.

"도토리묵 말릴 땐 저도 함께 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던 회원님들과 함께 도토리묵을 많이 말려 평소 도움을 많이 주시는 공양간 보살님께도 선물로 보내드려야겠습니다.

■만드는 법



〈도토리 묵 말리기〉 재료: 도토리묵 2모

① 도토리묵은 흐르는 물에 세척해 4등분한다. ② 4등분한 도토리묵은 먹기 좋게 묵 칼을 이용해 굵은 채로 썰어준다. ③ 채반을 이용해 고루 펴 말려준다.

※도토리묵을 말릴 땐 순수한 도토리 가루로 만든 도토리묵을 이용해야 합니다.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거나 다른 재료가 들어간 것은 곰팡이가 잘 핍니다. 말릴 땐 공기를 잘 통하게 해주고 자주 뒤집어 줍니다.



〈도토리묵 오가리 무침〉 재료: 말린 도토리묵 1줌, 양념장(참기름 약간, 간장 1작은술, 다진 대파 흰부분 약간, 다진 청고추 1개분, 다진 홍고추 1개분, 통깨, 설탕, 물엿 약간)

① 분량의 재료로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 ② 말린 도토리묵은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낸다. ③ 데쳐낸 도토리묵은 찬물에 한번 헹궈 낸 다음 물기를 빼준다. ④ 양념장에 버무려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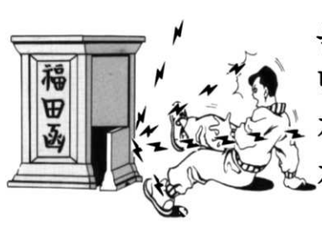
※ 말린 도토리묵은 물에 너무 오래 삶으면 흐물흐물해진다. 뜨거운 물에 살짝 튀기듯 데쳐낸다.

▶다음 주에는 들깨 미역국과 녹차 영양밥을 만들어봅니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사찰, 법당, 앰프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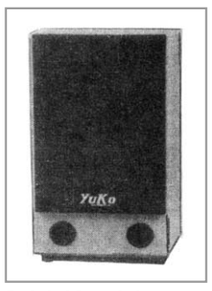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절 수행 삼매 체험 건강비법 노하우 완전공개
절을 氣차게 잘하는 법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절할 때 흡흡호 호흡법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가장 완벽한 비법으로, 절하고 일어설 때 마다 가슴차크라가 열리고 단전이 뚫리면서 가슴 막혔던 지독한 업장덩어리의 팔자가 고쳐지고, 병고액난의 병 덩어리가 녹아내리는 기적 같은 신비로운 일들을 수시로 체험하게 됩니다.

⊙ 허리, 무릎, 발목, 발바닥에서 땀이 나며, 냄새 지독한 노폐물의 병독이 엄청나게 빠져나가며 두한족열이 되어지는 진짜 건강법의 절로, 머리는 얼음처럼 시원하고 몸은100% 따뜻해짐
⊙ 팔다리 가슴에 털이 많거나, 손가락 발가락마디, 무릎, 허리, 목이 까맣거나, 등허리 피부가 검고 지저분한 반점에서 병고액난의 많은 노폐물과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며 맑고 깨끗한 몸이 됩니다.
⊙ 붉은 얼굴, 여드름, 아토피, 대머리, 백발, 고혈압, 당뇨, 심장병, 화병, 상기병, 만성피로, 혼침, 졸음, 골치 아픔, 가슴 답답함을 일으켰던 성냄의 화독이 입과 코와 온몸에서 빠져나가며 얼굴은 환하게 밝아지고, 몸은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마음은 언제 환희심 삼매를 체험합니다.

▶ 수련일시
서울 군자법당 :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오후 7:30
부산 금정법당 :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오후 2시
준비물 : 기도포, 수건, 두꺼운 면양말, 법복바지
불교신행단체에서 수행비용 일체를 후원해줍니다.

※ 절 하는 법 교육받을 시간이 없으신 분은 특별수련시간을 조율 받으십시오.
※ 절을 잘하시는 분의 99.999%는 흡흡호 호흡법의 비법테크닉을 배우고 전수받은 수행자입니다.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교육도량 법왕정사

청견스님 011-9088-9449
서울군자법당 02)456-0035 / 부산금정법당 051)583-7886
http:///cafe daum.net/sorisan(절하는 법 동영상 참고)

즐겨볼까? 불교영화 3國 3色

63개국 245편 출품…불교 소재 영화 3편
제11회 부산국제영화제, 10월 12~ 20일 개최



'밀라레파' 넨텐 초클링 감독. '긴강' 후앙 웬하이 감독. '삼장법사의 모험' 제프 라우 감독.



복수를 끝마치고 죄업을 씻기 위해 긴 구도여행을 떠났던 성자 '밀라레파'를 영상으로 담아낸 티베트의 '밀라레파'.

제1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 12~20일 부산 남포동 해운대 4개 극장에서 63개국 245편의 영화를 들고 찾아온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불교적인 소재를 차용한 작품은 세 작품이다. 티베트 영화 '밀라레파' 홍콩 오락영화 '삼장법사의 모험', 중국 다큐멘터리 '긴강'이 그 주인공.

'아시아 영화의 창'에서 만날 수 있는 티베트 영화 '밀라레파'는 티베트 최고의 성자 밀라레파의 일화를 통해 복수와 악마 살인 참회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키엔체 노르부 감독의 '컵' '나그네와 마술사'에 출연했던 부탄의 수도승 네텐 초클링 린포체가 감독으로 데뷔한 작품이기도 하다.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난 밀라레파는 삼촌에게 가산을 빼앗긴 후, 복수를 위해 주술을 배운다. 복수에 성공하지만 무자비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게 된 밀라레파. 죄업을 씻기 위해 스승의 인도로 영적 교화를 위한 긴 여행을 떠난다.

작품성과 오락성을 두루 갖춘 12개국 13편의 영화를 만날 수 있는 '미드나잇 패션'은 심야상영 섹션이다. 서유기를 기발하게 각색한 홍콩 코미디영화의 귀재 제프 라우 감독의 '삼장법사의 모험'이 상영되는 섹션이기도 하다. '삼장법사의 모험'은 손오공이 아닌 삼장법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이 독특하다. 제프 라우 감독은 '서유기 월광보합' '서유기 선녀기련' 등 서유기를 새롭게 해석한 작품들로 100대 중국영화감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악마군단에게 납치된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을 구하기 위해 여의봉을 들고 간신히 탈출에 성공한 삼장법사가 모험을 시작한다. 최강의 무기 여의봉을 들고도 모든 일을 대화로만 해결하려는 순진한 삼장법사의 모험이 유쾌하게 그려진다.

'아시아 다큐멘터리 네트워크'에서는 후앙 웬하이 감독의 '긴강(長河)'을 만날 수 있다. '긴강'은 중국의 한 작은 소도시에 있는 '로터스 파인 하우스(Lotus Fine House)'가 주무대다. '로터스 파인 하우스'는 불자들이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매년 2~3개월을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며 노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는 불자들을 카메라는 잔잔한 시각으로 좇는다.

이미 시장경제에 의해 과거의 가치들이 무너진 가운데에서도 단호한 실천력을 보여주는 중국 불자들의 꿈과 활동을 통해 중국의 새로운 시민 사회 구축사업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밖에 '와이드 앵글'에서 소개되는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는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는 한국 다큐멘터리다. 새만금, 대추리, 줄기세포, 비정규직, 한미 FTA 등의 현장에서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자와 미디어 활동가들이 한국사회의 현재에 대한 16개의 기록을 담고 있다.

올해 4월 타계한 신상옥 감독 추모전은 '한국영화 회고전' 코너에서 마련된다. 올해 처음 HD로 복원된 '열녀문'이 관객들을 찾아간다.

9월 29일~10월 20일에는 임권택 감독이 교장을 맡은 아시아영화아카데미(AFA)가 아시아지역 기성 감독들과 젊은 예비 영화인들이 함께 아시아 영화의 미래를 준비한다. www.piff.org, (02)3675-5097, (051)747-2861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홍콩 제프 라우 감독이 빚어낸 상큼 · 발랄 오락영화 '삼장법사의 모험'.



한국영상자료원이 대만에서 발굴해 2년여의 복원과정을 거쳐 처음 공개하는 신상옥 감독의 대표작 '열녀문'.

사랑 아닌 학대 일삼는 동물 프로그램 '이제그만'

(사)보리 방송모니터팀

(사)보리 방송모니터팀이 9월 12일 발표한 '생명생태 시각에서 본 동물 프로그램-'애완' 모니터보고서를 통해 방송에서 비춰지는 '애완'은 사랑이 아니라 '학대'가 되는 잘못된 애완문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모니터팀이 5월 9일~7월 31일 '주주클럽' 등 KBS 프로그램 4개, '생방송 화제집중' 등 MBC 프로그램 3개, 'TV 동물농장' 등 SBS 프로그램 4개를 대상으로 모니터한 결과다.

이 결과에 따르면 동물 프로그램에서 드러나는 반생명생태성은 △무분별한 애완문화 확산 조장 △동물 오락화 △동물 경제상품화 △인위적인 연출로 인한 동물학대 △기타 생태 왜곡 등이다.

친생명생태적 사례도 소개했다. '하반신 불구 유기견 업어서 키우는 가족'(SBS), '장애견과 청각장애인 아줌마의 사랑'(MBC , '늙은 물개와 사육사의 우정'(KBS) 등은 생명을 살리는 방송이었다고 평가했다.

방송모니터팀은 우리나라 동물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를 통해 귀여움을 받는 존재로 보호받는 '애완동물'이 아닌 인생을 함께 하는 '반려동물'로 시청자의 인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동물이 인간과 똑같은 생명체로서 본연의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의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 쉽게 수단화 오락화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강지연 기자



대립을 상생으로…

조각 · 음악 · 시 · 춤의 만남

조각 음악 시 춤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김명숙 늘휘무용단이 2006 신작 '상(想) · 상(想)'을 들고 창단 10주년 기념공연에 나선다. 9월 29~30일 서울 LG아트센터에 오르는 이번 공연의 첫 날은 지난해 주목받았던 '알.수.없.어.요.'가 장식한다.

황병기 교수(이화여대)의 70여분에 이르는 가야금 대곡에 맞춰 안무된 '상 · 상'은 소리가 춤이 되고, 춤이 소리가 되는 악(樂) · 가(歌) · 무(舞) 일체의 무대를 선사한다. '알.수.없.어.요.'에 이어 조각가 故 유영교씨의 조각이 무대를 장식한다. 늘휘무용단은 1999년부터 인연을 이어온 유영교씨가 몇 달 전 갑작스럽게 타계해 이번 무대를 그를 위한 헌정무대로 마련했다. 故 유영교씨의 아름다운 조각을 무대 위에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자연과 인간, 과거와 미래, 느림과 빠름, 정신과 신체라는 대립적 화두를 상생의 이미지로 공존시키고자 만들어낸 '상 · 상'은 '김명숙류 자연주의 서정춤'의 완성을 이끌어낸다.

하늘은 땅을 지향하고 땅은 하늘을 사모한다. 달의 흔적이 남아있다해 '월석'으로 불리는 땅의 존재는 늘 달이 속해 있는 하늘을 꿈꾼다. 제1장 '월석'은 이렇게 의미를 가진다.

제2장 '명경'에서 흐르는 물은 대지를 적시는 대모(大母)인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하나의 거울이 된다. 인간에 있어서 최초의 불은 제3장 '초불'에서 정열과 믿음, 꿈의 상징으로 되살아난다. 무대의 마지막은 제4장 솔소리다. 자연의 바람이 빨라지듯 인간의 호흡도 빨라지면 소요와 침묵 속에 투명한 우주로 가볍게 날아오른다.

이번 무대의 이색적인 점은 인터넷의 활용이다. 공연실황을 스페인 바르셀로나 아시아 문화센터에서 HD급 초고화질 방송으로 생중계하는 세계 최초의 공연을 시도한다. (02)2005-0114 강지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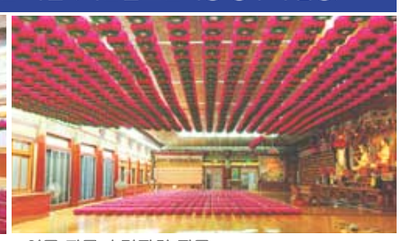
'알.수.없.어.요'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공연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고의 작품이라는 평을 받으며 선정됐다.

<고침> 본지 594호 28면에 보도된 육지장사 '윤림축제'를 '울림축제'로 바로잡습니다.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아름다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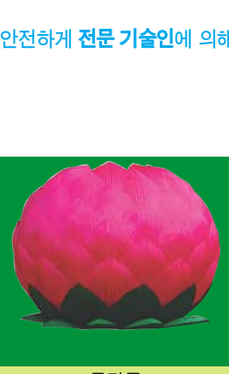
찬덕연등이 개발한

신상품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LED 인등



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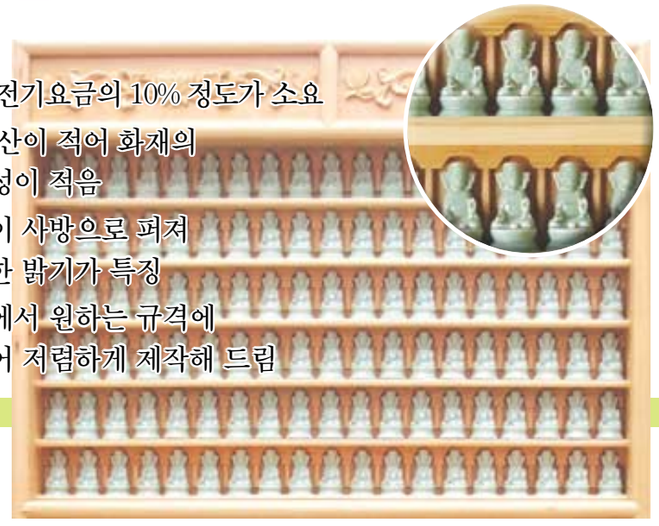
팔각봉축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저렴하게 제작해 드림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제 596 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9월 20일(음력 윤 7월28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29

언제나 자신의 내면을 믿고 행할 수 있어야



일체가 한마음 한뜻으로서 천(天) 지(地) 인(人)이 다 공용(共用), 공체(共體) 하면서 우리는 혼연일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색상(色相)이라는 것은 너 나가 있으니 오래도록 못 만났습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하지만 우리 색상이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색상이 실체라는 것을 또는 실질적으로 이 색상이 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공부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인간의 모습은 허무하다고 버리면서까지 이 도리를 알려고 애를 쓴다면 그것은 극히 오산일 것입니다. 수많은 스님들과 더불어, 인도로 중국으로 또 중국에서 인도로 법을 구하러 다니면서, 또는 좌선을 하면서 얼마나 모습을 망가뜨리고, 그 모습을 망가뜨림으로써 세세생생에 윤회가 되면서 얼마만큼 돌았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마는 전 너무 실감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뀜으로써 옛날에 명주를 말입니다, 지금은 실크라고 한다면 어찌 그것이 틀리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발전을 한 것입니다.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그것이 명주가 아니라는 말은 못하시겠죠! 우리는 시대가 바뀌는 대로 방편도 바꿔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요, 부처님의 법이요, 부처님의 활용이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태초가 있고, 불법이 있고 부처님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없다면 태초가 어딨으며 우주가 어딨으며, 실감할 수 있는 실체가 어디 있으며 상대가 어딨으며 세상이 어딨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알아야 하며 그 자신의 본능에 의해서 우주의 본체는 어디 있는가? 바로 천(天) 지(地) 인(人)이 근본이라면 그 천지인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처님 앞에 가야만이 부처님이 계신 줄 아는 그런 마음은 여간 어리석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부처님이 가르치실 때에 '관세음보살'이니 '지장보살'이니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것은 이 손가락을 쳐들고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생활을 하면서 똑바로 관(觀)해 보고,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행하라. 그것이 즉 보살이니라 하고 일러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맹종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매달리고 있다 이겁니다. 상대성, 즉 말하자면 그 이름, 물컵의 이름을 듣고서 "컵이여, 목마르니 물 좀 먹게 해주시오." 하고 아무리 빌어도 내가 목마른데 목을 축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인간이 질서 또는 계율, 법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름이 아니라면 모두가 서로 상부상조할 수 없으니까 지어놓은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야 할 때는 이름을 부르지만 물을 떠먹는 것은 이름이 없습니다. 물을 떠먹는데 "컵아, 나 너한테 물 떠먹는다." 이러고 부릅니까? 컵을 그냥 들어서 목마르면 물 따라 마시는 것입니다. 지금 컵의 이름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수없이 흘러내려오면서 경을 안 본 사람 없습니다. 불자다 하면 경을 안 본 사람이 없고 세상을 살았다 하면 세상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양이나, 또는 법칙이나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도리를 너무도 잘 압니다. 효도도 할 줄 알고, 충성도 할 줄 알고, 나쁜 것도 알고, 좋은 것도 알고, 이렇게 첨단을 넘어갈 수 있는 고등동물의 인간 자체가 만약에 컵의 이름만 가지고 매달린다면 물은 누가 줍니까?

여러분한테 이거 한번 질문할까요? 어느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디다. 그때 나는 그게 뭐 말라빠져 죽은 건가 하고 생각했지만 이 손가락으로 컵을 가리키는데 컵만 보지 말고 내가 목마르면 물 떠먹을 수 있게끔 가르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얘야, 공양을 들여오면 군말을 하지 마라. 짜면 물 타 먹고 싱거우면 간장을 넣어 먹어라." 그게 그냥 보편적인 말 아닙니까? 그런데 뜻이 말입니다, 그 후에 뜻을 보니 이것은 우주 이 세상 모두가 사생(四生)이 돌아가면서 살아나가는 법칙의 긍정적인 말입디다, 긍정적인 법입니다. 만약에 "얘, 짜다. 물 가져오너라." 이랬다면 벌써 삼백 년이 흐르고 말아요. 이거 한마디라면 우리 생활하는 데에 얼마만큼 지침이 될지 모릅니다. 또 이게 "싱겁다, 간장 가져오너라." 이런다면 벌써 이거는 삼천 년이 흐르고 만다 이 소립니다. 들어와도 삼십 방망이 나가도 삼십 방망이 한 소리가 바로 그 말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간은 누가 타 먹느냐? 누가 간을 맞춰서 먹을까요? 짠 것도 아니고 싱거운 것도 아니라면 그것은 다 놔라 이랬습니다. 짠 것도 놓고 싱거운 것도 놔라. 놓으란다고 불교가 그냥 맹종하고 부처님 앞에 그저 타신을 믿으면서, 나 아닌 대상을 놓고 믿으면서 극진히 정성을 들인다 한다면 그건 자기를, 자신을 모르면서 맹종하는 것입니다. 그건 노예입니다. 이 세상의 노예입니다. 자기 자신이 간을 타서 맞게 먹을 수 있어야 그것이 참사람이요, 그것이 바로 스스로서 계율이 따로 없고 스스로서 질서도 없고 스스로서 법칙도 없다 하는 거죠. 그렇게 없기 때문에 철두철명한 것입니다. 철두철명하기 때문에 진리는 고정됨이 없다 이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 여러분이 지금 생활을 하면서
> 똑바로 관하고
>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행하라
> 그것이 즉 보살이니라!

사람이 삿갓을 쓰고 죽장을 짚고 땅을 디뎠으니
바리때 하나면 족한 것을….
허허! 무엇을 더 바라랴.

허허! 하고 하늘 쳐다보니 청정하고
내려다보니 땅은 잔잔하더라.
산천초목은 우거져서 무성하나
물은, 바닷물은 잔잔하게 흐르더라.

그러나 쳐다보고 울고 내려다보고 웃는
그런 맛은 어디로 가고
사생(四生)의 눈물은 바다를 메우고
바다를 메우는
그 한 방울의 눈물은 어디 있는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만 생명이 있고 사는 법칙이 있는 줄 아시는 분은 없겠죠. 사생(四生)이라는 그 자체가 천차만별로 돼 있지마는 좀더 시야를 넓혀서, 사람만 죽이지 않아야 살생이 아니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 쫓기고 쫓는 게 아니라 사생이 모두 쫓고 쫓기면서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나만이 생명이 있고, 나만이 살고, 나만이 친척이 있고, 나만이 형제가 있고 자식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내면세계의 그 마음을 찾아서…, 찾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있기 때문에 발견하라는 거죠.

이름해서 만약에 우리가 삼세심(三世心)이라 하면 일심(一心)이요, 일심이 드는 데는 이름으로써의 방편을 말하자면 '삼중천(三重天)'에 이른다.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과거에 살던 그 이치가 꼬리를 물고 현실에 물려 있고, 현실에 사는 꼬리가 바로 미래에 얽혀 있으니 어찌 삼중천이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삼세심이 일심인 줄 알면 그 일심이 어디에 있는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간장 얘기 한 거와 똑같이 만약에 이것이 틀린가 옳은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삼중천을 뛰어넘을 수 없어서, 하나가 어디로 간 건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 하나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삼중천이라 이름한다면, 방편으로서 사왕천(四王天)이다 합니다. 사왕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삼중천에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왕천이 바로 일심으로서의 원심력을 얻는다면 이 사방을 다 지배하고 들이고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조들이 우스갯소리로 "너, 개구리 탕만 할 줄 알았지, 용탕은 할 줄 모르는구나." 이런 말들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아까 실크 얘기도 했지만 불법을 믿는 사람들은, 불교국이다 이런다면 항상 그게 자비라나요, 칼을 가지고 들어와도 가만히 있는 것이 자비라나요. 그게 아닙니다. 또 칼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나도 칼을 가지고 대결을 해야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삿갓 쓰고 주장자 짚고 땅을 디뎠고 바리때 하나면 족한 것을…." 했죠. 그걸 뜻으로 보십시오. 만약에 구지 스님이 손가락을 하나 들었다면 손가락을 보지 마시고, 그 뜻을 말한다면 머리로 하늘을 받치고, 주장자는 기둥이 되고, 땅을 디딘 평발은 주춧돌이 돼서 바리때를 들이고 낼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법륜(法輪)을, 사무사유(四無四有)의 법륜을 그냥 굴리면서, 체계 없으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체계가 있고 스스로서 법칙이 있고 한 것을, 그대로 자유스럽게 여러분이 중용을 할 수 있다,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진정한 자비가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중에는 불법이란 무조건 자비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말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지금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도,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끼리끼리 자기가 죄 지은 대로 감옥에 넣었습니다.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끼리끼리 돌아갑니다. 상점에 놓여 있는 것도 끼리끼리 놓여 있듯이, 인간의 마음도 그렇게 천차만별로 차원에 따라서 알맞게 자기 환경에 따라서 집어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부는 모두가 부처님이 가르친 것을 질서정연하게 스스로의 법칙을 그대로 활용하라는 거지, 너는 그대로 고립돼서 무(無)공(空)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 붙여서 사왕천(四王天)이라 한다면 무명천(無明天)도 있고, 무명천이 있다 하면은 생사천(生死天)이 있다. 그 생사천은 누가 다루나? 만법천(萬法天)이 다룬다. 만법천은 누가 다루나? 여래천(如來天)이나 도솔천(兜率天)이나 도리천에서 다룬다, 모두를. 우리가 옥황상제를 무엇으로 비유할 수가 있을까? 대법원장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데에 따라서 너무나 철두철명합니다. 스스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자비요, 살려도 자비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생(四生)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만법천에서 생사천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사실은 뭐냐? 여러분 과거에 살던 그 자체가 지금 현실에 살고 계십니다. 과거에 살 때에 사신 대로,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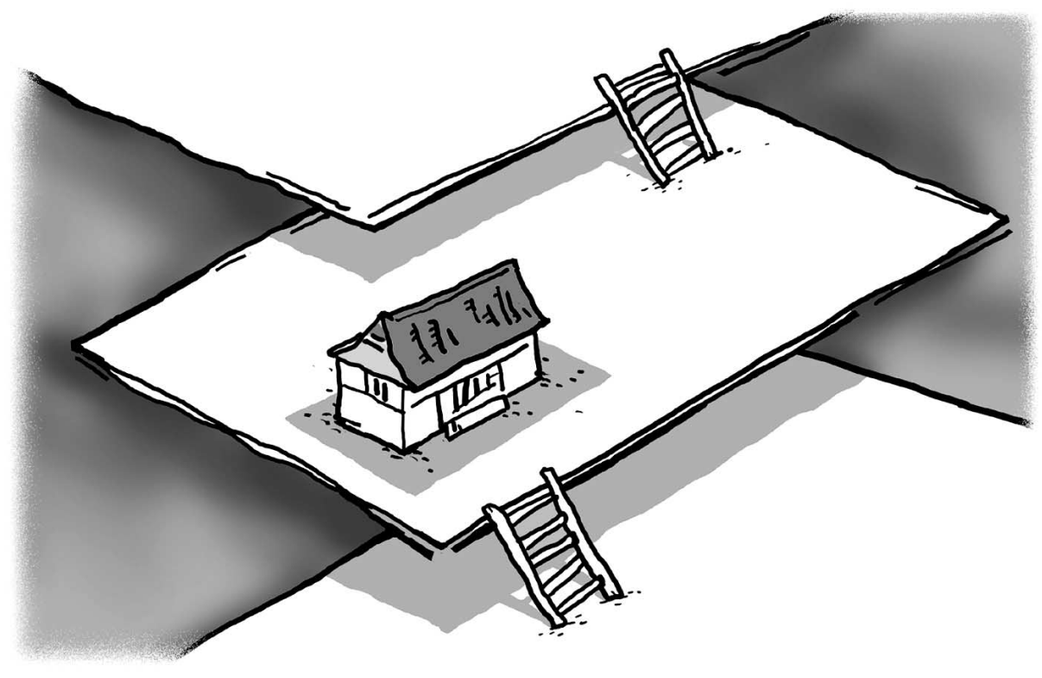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짜면 물 타 먹고 싱거우면 간장을 넣어 먹어라



그림 · 최주현

☞29면에서 계속

차원대로, 그릇대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릇대로 출현하신 거라면 바로 우리가 옷을 벗을 때도 생사천에서 벗게 하고 또 내보낼 때도 생사천에서 내보낸다 이겁니다. 자기 차원대로 말입니다. 금이면 금대로 만나게 하고 은이면 은대로 만나게 하고, 까마귀면 까마귀대로 만나게 하고 말입니다. 또 오무간지옥에 갇힐 거라면 아주 무명천에다 가두고 말입니다.

무명천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너무나 마음에 복수심이나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지를까봐 가둬두는, 영혼을 가둬두는 감옥입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잘 보세요. 감옥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감옥이 왜 생겼겠습니까! 천차만별로 그렇게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감옥이 생긴 거죠. 현실에 있기 때문에 바로 무(無)의 세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배하는 것은, 만법천에서 내보내면 생사천에서 가려서 내보낼 때에 오무간지옥으로도 보내고, 칼산지옥으로도 보내고, 무명천으로도 보내고, 또 화탕지옥으로도 보내고 여러 군데로 분리해서 다 보내는 것입니다. 묘한 것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이 따로 없으니 현실에서 잘 관조하라고 했습니다. 천차만별로 사생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길을 가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지저귀고 있더랍니다. 무슨 소리를 하나 그러고 들어보니까, "스님, 스님! 제가 까마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가 지금 오백 년이 됐습니다." 한 번 까마귀로 모습을 받으니 거기에서 벗어날 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스님이 제 모습을 한 점이라도 잡숴주신다면 저는…." 이 까마귀 모습을 벗겨주십시오, 이거든요. "너는 까만 짓을 잘해서 어떻게 희게 만들 수 있겠느냐?" 하니까 "비록 거죽은 까마나 속살은 하얗습니다." 이러거든.

여러분도 참 거죽으로는 못생기고 못났고 보잘 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마음이 아름답고 착하고 슬기롭고 지혜롭고, 내면적으로 언제나 자기를, 자신을 믿고 만법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아마 거죽은 비록 그럴지언정 속은 하얄 겁니다. 백옥 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즉시에 까마귀 모습을 벗겨줬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길 하면 옛날 얘기처럼 들으시는데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옛날이나 미래나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돼서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항상 공(空)했다, 공했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 난 게 주인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성신이…, 그 행동 하나하나 하고 마음 찰나찰나 바뀌지면서 돌아가는 것이 공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질서를 가르쳐서 질서를 지킵니까? 사생 그 자체, 까마귀 얘기 한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인연을 만나서 서로 고생을 하고 이러는 것도 당연하지마는 고(苦)를 누가 가져다 준 게 아닙니다. 알로 낳는 거, 태로 낳는 거, 화(化)해서 낳는 거, 질척한 데서 낳는 그 사생이 어떻게 해서 사생으로 빠지나? 인간이 까마귀가 될 수 있고, 부모가 죽어서 까마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람이 어느 날 한 마디를 잘못 해서 백 마디를 잘못하게 되고, 만 마디, 천 마디를 잘못하게 돼서 독사지옥에 떨어졌더니, 독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니 아무리 내가 사람이라고 부르짖어 봐도 누가 독사라고 그러지 사람이라고 대해주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귀먹고 눈뜨지 못한 사람들은 까치 소굴에 들어가서 까치 새끼로 태어날 수도 있으니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을 잘못하면 새 종류로 아마 태어나겠죠.

마음을 독하게 써서 독사지옥으로 떨어지고 이러는 것이 독사지옥으로 떨어지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서 그렇게 고를 당하고 그렇게 쫓기면서 쫓으면서 땅꾼한테 붙들려 다닙니다. 이거 한 가지 말을 했다고 그래서 고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일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어났더니 아, 몇 달 만에 다 큰단 말입니다. 사람은 어른이 되려면 십 년, 이십 년 삼십 년 이렇게 가지만 아, 그거는 단번에 어른이 되거든요. 금방 크면 금방 모가지 졸려서 죽고, 걸렸다 하면 죽고 몇 번이나 죽음을 당합니까?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그러니 얼마나 그것은 독사보다도 더 무서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닭 사다 잡수시죠? 여러분이 닭이나 생선이나 꿩이나 무슨 돼지를 보세요. 돼지만 하더라도 돼지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일 년 이태 삼 년만 산다 해도 몇 번 죽음을 당할까요. 커서도 당하고, 작아서도 당하고, 근수만 나간다면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있느냐? 돼지에서 또, 또 출현을 하게 되죠. 그거 벗어날 수 없죠. 아주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그 습을 익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모든 양면을 다 놔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 공부를 하는 데는 시공을 초월했기 때문에 부처도 뛰어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채식을 해야만 공부를 한다 이러거든요. 물론 공부할 때는 채식 아니라 채식도 없죠. 먹으려고만 생각한다면, 죽지 않고 먹으려고만 생각한다면 공부를 못 하니까, 물론 육식보다도 아무거나 먹고 그냥 공부하게 되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사생의 어떠한 것들은, 돼지나 소들은 사람들도 되니까요. 짐승이다, 사람이다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빨리빨리 돌아가는지, 한 찰나 찰나 돌아가거든요. 사람이라도 사람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돼지도 돼지로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사생(四生) 가운데 한 점의 고기를, 이런 공부하는 사람한테 한 점을 공양하기가 천 년 만에 한 번 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 뜻을, 그 도리를 아시겠습니까? 예전에 경허 스님이 돼지 다리를 뜯고선 술을 한 병들이를 자셨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걸 흉을 볼 텐데, 그 분은 돼지 한 마리 하면 돼지 속의 돼지의 생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건 인연에 따라서 만남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두서없는 얘기 같지마는 진리는 순서 없는 게 진리니까요. 허허허. 아니, 글쎄 돼지 속에도 생명들이 인연에 따라서 드는 겁니다. 이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다음 호에 계속)

나 아닌 대상을 놓고 믿으면서
극진히 정성을 들인다 한다면
그건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맹종하는 것입니다
그건 노예입니다!

※위 법문은 1988년 9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불교방송_성지순례 참가자 특별 모집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마음의 여행!!"

:: 인도 성지순례 ::

부처님의 향기가 서려있는 땅, 인도 그 광활한 대륙으로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불교방송이 인도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룸비니동산, 부다가야, 녹야원, 쿠시나가라, 타지마할과 법화경 설법지 라지기르 등을 돌아보게 될 이번 성지순례는 10박 11일이고 출발은 10월 24일 입니다.

함께하실 지도법사는 신행상담실을 진행하시는 동국대 선학과 교수 현각스님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705국에 530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도법사 : 현각스님(신행상담실 진행)
■ 동 참 금 : 1,950,000원
■ 포함내역 : 1억원 여행자보험, 공항이용료, 출국세, 비자비 등
■ 출 발 일 : 10월 24일(10박 11일)
■ 비 자 : 여권, 사진3장

바라나시에서 고프락까지 요리사 동행.
겐지스강을 가실 때 릭샤를 이용.

:: 미얀마 성지순례 ::

찬란한 불탑의 나라 미얀마!!
불교방송이 미얀마 성지순례에 불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부처님과 사리불, 목련존자의 사리를 모신 수도 양곤을 비롯해 세계 3대 불교유적지중의 하나인 파간과 소수민족들이 살고있는 헤호를 관광하고 "까바에 파고다"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과 정대불사법회도 봉행합니다.

함께하실 지도법사는 행복한 미소를 진행하시는 성전스님이며 이번 순례는 5박 6일 일정이며, 출발은 10월 27일입니다. 문의는 불교방송 전화 705국에 5301번에서 2번입니다.

■ 지도법사 : 성전스님(행복한 미소 진행)
■ 동 참 금 : 1,500,000원
■ 포함내역 : 1억원 여행자보험, 공항이용료, 출국세, 비자비 등
■ 출 발 일 : 10월 27일(5박 6일)
■ 비 자 : 여권, 사진3장

BBS 불교방송 www.bbsfm.co.kr 불교방송 문화사업단 연락처 02-705-5302

마음을 비운 아내 (상)

김형남 (천안시 신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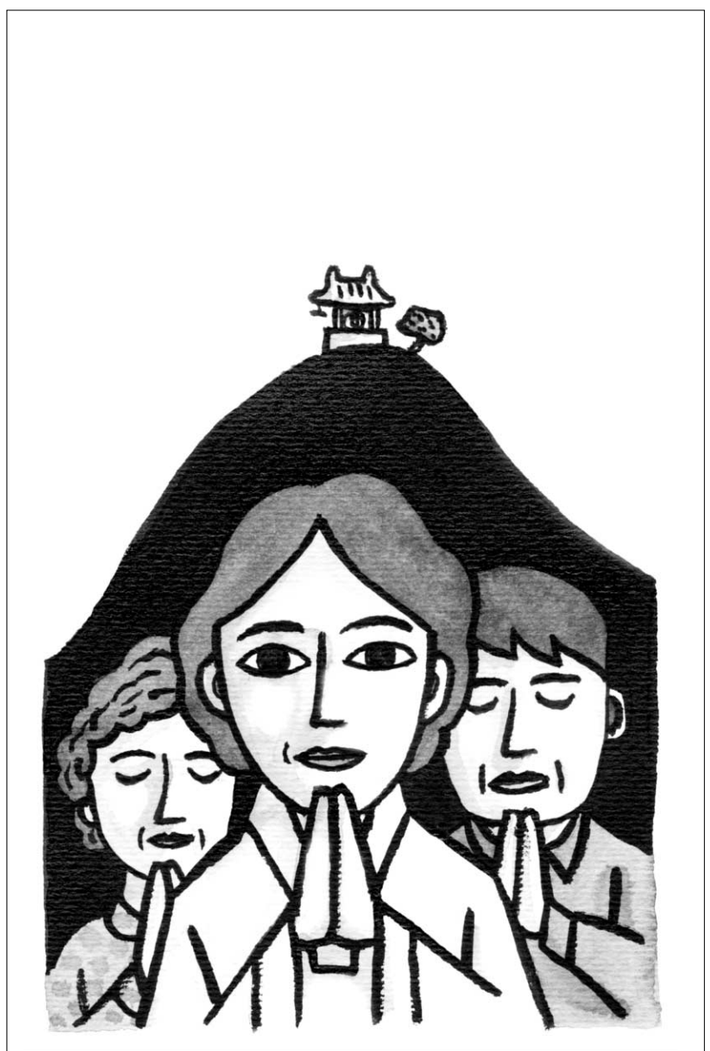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아내는 한참을 울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또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며 아내가 운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시아버지와의 세상 인연을 끊기가 어려웠던가 보다. 화장터에서도 애써 울음을 감췄던 아내였다. 하지만 정작 절에 아버지 유골을 모시고 재를 지내면서 아내는 무너져 내렸다.

아내의 야윈 모습이 안쓰러웠다. 시아버지에 대한 아내의 기억은 어떤 것일까. 집안 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슬픔의 눈물만은 아닌 듯 했다.

아내의 시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평범했었다.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고맙고, 때로는 안타까운 어떤 며느리든 시아버지에게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기억 말이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었음을 안 것은 아버지 49재를 지낸 그 날이었다. 아내가 그토록 많은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12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아내는 통통한 편이었다. 그런 아내를 보며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꽤 만족해 하셨다. 늘 건강이 최고라고 하셨던 두 분이었다. 특히 아버지는 "우리 집 며느리 되려면 건강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곤 했다.

중학교 교사인 아내는 욕심이 많은 편이다. 뭐든지 1등을 해야만 직성이 풀렸다. 그런 성격 탓에 교사들 간의 경쟁에서도 늘 앞서 있었고, 학교도 아내를 꽤나 아꼈다. 아내가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교장 선생님부터 나서서 걱정을 해주곤 했다.

"적당히 쉬면서 하라"는 주위 사람들의 충고를 듣는 횟수가 늘었지만 아내는 개의치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끝'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동분서주했다.

심지어는 방학 때도 하루도 쉬지 않고 재교육이다, 교양강좌다 하면서 몸을 그냥 두지 않았다.

아이들에 대한 욕심도 지나쳤다. 자식에 대한 욕심이야 어느 부모든 마찬가지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라면 몰라도 아내는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붙잡고 공부를 시킬 정도였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10년 동안 혹사시켰으니 온전할 리가 없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마르기 시작했고 덩달아 신경도 예민해졌다. 자연히 집안 식구들도 덩달아 눈치를 살펴야 했다. 아내도 그것을 모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신이 몸이 편치 않으니 다른 사람을 헤아릴 여유가 없었다.

직장인·며느리로서 일등감이었던 아내
결혼 10년이 지나며 건강 악화로 몸져누워
죽 한 그릇 못 먹던 기력 절 다녀온 후 회복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아내는 몸져누워 버렸다. 신경성 위염과 식도염이 겹쳤고 신경도 쇠약해졌다는 병원의 처방을 받았다. 별다른 증상은 없기 때문에 며칠 푹 쉬면 나아질 것이라고 의사는 말했다. 하지만 의사의 말과는 달리 아내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집안일마저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없어지면서 처갓집 어른들도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장모님은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보양식을 해오셨지만 아내는 그마저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소위 용하다는 한의원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안정과 휴식, 그리고 영양섭취가 필요하다는 말 외에는 특별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결국 11살 9살짜리 초등학생 두 딸 아이는 엄마 대신 살림을 해야 했고, 나 역시 집안일과 아이들을 보살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한달쯤 흘렀을까, 아내가 갑자기 절엘 가고 싶다고 했다. 정신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했던 아내가 갑자기 절엘 가자고 한 것이다. 아내 집안이 불교였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아내는 장모님을 따라 절에 몇 번 다닌 것 외에는 특별히 절에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별다른 이유는 없어. 그냥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아내는 처형에게도 같이 절엘 가자고 부탁을 했던 모양이다. 처형과 아내와 함께 시내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광덕사에 갔다. 광덕사는 처형이 자주 다니는 사찰이다.

처형은 아내에게 종종 광덕사 얘기를 하며 같이 가자고 권한 적이 많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내는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는데 절에 갈 시간이 어딨어?" 하면서 뿌리치곤 했었다.

법당에 들어선 아내는 처형을 따라 절을 하기 시작했다. 절하는 아내의 모습은 매우 힘겨워 보였다. 삼배를 마친 아내는 법당에 앉아서 10여 분 동안 뚫어지게 부처님을 응시했다. 그러다니 갑자기 일어나서 절을 하기 시작했다. 10배, 50배, 100배가 넘도록 아내는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나와 처형은 몸에 무리가 간다며 아내를 만류했다. 하지만 아내는 "할 수 있을 때까지 할게. 여기 오니까 힘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다.

'그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두자. 같이 하면 더 힘이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아내와 함께 절을 했다. 아내와 나는 그렇게 300배 정도를 했다. 아내의 거친 숨소리에 걱정은 됐지만 표정은 어느 때보다도 편안해 보였다.

그런데 절에 다녀온 뒤로 아내는 거짓말처럼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온종일 죽 한 그릇 제대로 먹을까 말까 할 정도로 입맛을 잃었던 아내가 이것저것 먹을 것을 찾기 시작했다.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약마저도 먹지 못해 병을 다스리지 못했던 아내였다.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났어. 나 대학입시 때 엄마가 절에 가셔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나는 엄마한테 그럴 필요 없다고 했었거든. 그런데도 엄마는 밤새 기도를 하시고 집에 오신 적도 있어. 힘드실 텐데 그만 두시라고 말씀드리니까, 그 때 엄마는 대답 대신 나한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편안하게 공부하라고 하셨어."

아내는 장모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렇지 않아도 장모님에게 정이 많은 아내였다. 아내의 마음 한 구석엔 늘 장모님의 고생이 걸려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장모님 얘기를 하던 아내가 갑자기 시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시아버지에게 그토록 공손했던 아내. 하지만 시아버지에 대한 아내의 속마음은 달랐었다, 아프기 전까지는.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탈종공고
● 사찰명 : 용화사
● 주 지 : 해은(송병연)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464
본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하는 바입니다.
2006년 9월 20일
(사)대한불교삼학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법 명 : 명조(김성민)
● 승적번호 : 1103-20639
상기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20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하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향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산세·식생 모두가 '보궁'

용의 이빨처럼 날카로운 봉우리들이 연이어 솟아 긴 성벽을 이룬 용아장성. 백두대간의 힘찬 기상이 느껴지는 설악은 우리 민족의 꿋꿋한 의지를 닮았다.

수렴동계곡 입구에 어도(魚道) 설치 진정한 방생 본보기
너와로 지붕 올린 '농암당' 산중암자 · 토굴의 모델될 만
영시암 · 오세암 · 봉정암 등 태양 발전 이용 친환경 생활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66) 설악산 지역 사찰들



금강초롱.

원래 고구려 영토였던 설악과 오대산 지역은 신라 진흥왕 때 신라 땅이 되었고, 그 후 진덕여왕 연간에 자장율사가 이 지역에 들어와 절을 지었다. 설악의 백담사와 봉정암, 오대산의 상원사, 태백산의 정암사가 그 절들이다. 옛 터 수복을 노리는 고구려의 유민들을 잠재우기 위한 지정학적인 요인도 있었을 것이다. 불국토사상을 내세운 자장의 생각이 그러했고, 훗날 변방에다 화엄십찰을 세운 의상의 뜻도 그러했다.

백담사의 창건 당시 이름은 한계사(寒溪寺). 조선조에 설정대사가 소실된 옛 절을 복원하면서 계곡에 널려진 수많은 담(潭)을 보고 '백담사'라는 새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백담사는 산중사찰이라지만, 하천변에 터를 잡은 탓으로 전체적으로 허벌어진 느낌을 준다. 게다가 경내외에 나무가 없어서 산중사찰이 갖는 그윽함이나 아늑함이 부족하다.

그런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너와지붕을 한 농암당이다. 경내 찻집으로 활용하고 있는 농암당은 기와 대신 너와를 올린 전형적인 팔작 건물로, 사뭇 이색적이다. 기와나 동기와보다 소재면에서 매우 친환경적이라, 산중암자나 토굴에서 고려해봄 직하다.

백담사 수렴동계곡 입구에 보(洑) 형태의 잠수교가 있고, 보 가운데 자연석으로 층계형 어도(魚道)를 만들었다. 어도는 보 때문에 상류로 오르지 못하는 물고기들을 위해 만든 물길이다. 절에서 보를 만들 때는 반드시 어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생태시대의 진정한 방생이 아닌가 싶다.

백담사에서 영시암까지는 3.5km. 걷기에 좋은 평탄한 숲길이다. 혼효림 가운데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역시 금강송이다. 활엽수와의 영토전쟁에서 밀려나 계곡 가장자리에다 자기 영토를 마련한 것이다. 고사목들도 가끔 눈에 띈다. 고사목이라고 해서 숲속에서 무위도식하지는 않는다. 버섯과 이끼에게는 삶터를 제공해주고, 곤충의 애벌레들에겐 먹꺼리를 제공해주고, 새들에게는 보금자리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병조희풀은 이름과는 달리 풀이 아니라 나무이다. 키가 1m에 불과하지만, 해발 500~1500m 산간을 좋아한다. 양지나 음지를 가리지 않고 내한성이 강해서 어디에서나 잘 자란다.

내설악지역에는 총 11종의 파충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아무르장지뱀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아무르장지뱀은 몸통과 꼬리 길이가 각각 10cm 안팎이다. 숲길 옆 잡초가 우거진 곳이나 햇볕이 잘 드는 능선이나 묵밭 등이다.

영시암은 조선 숙종 때 창건되었으나, 한국전쟁 때 소실되고 말았다. 근래 복원불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생태보전이 우선되는 곳에서는 불사를 하더라도 본래 있던 절터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자연에 대한 예의이다.

이곳 영시암을 비롯해 오세암과 봉정암은 모두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세 암자의 전기는 석유를 이용한 발전기와 태양열을 이용한 발전기로 얻어내고 있다.

태양광 발전의 특징은 대기를 오염시키는 화학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무한한 태양광 에너지를 쓴다는 점,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 시스템이 단순해서 작동이나 보수가 쉽다는 점이 있다.

설악산은 내설악과 외설악으로 나누어진다. 수렴동계곡은 내설악에서 경승이 가장 뛰어난 계곡이다. 그러나, 지난 여름의 집중호우로 계곡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산사태는 산정상부의 오목(凹) 지형에 집중된 강수가 암반층을 덮고 있던 토층을 분리시켜 슬라이딩되면서 일어났다. 토사와 뿌리 뽑힌 나무들은 거센 물길을 따라 떠내려와 2차 피해를 발생시켰다.

설악산의 초가을은 버섯의 계절이다. 영시암에서 오세암에 이르는 구간에서는 다람쥐눈물버섯, 끈적긴뿌리버섯, 콩알버섯, 운지버섯, 여름느타리버섯 등 등 10 종류가 관찰되었다.

이 지역의 다람쥐는 등산객들이나 신도들이 던져주는 빵이나 과자에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이들은 다람쥐에게는 적절치 않는 먹이들이다. 이것들이 체내에 축적되면 예상치 못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주는 먹이에 길들여져 도토리와 같은 야생의 먹이를 외면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다람쥐들이 도토리나 상수리 같은 종자를 멀리 운반해주지 못하면 참나무들이 쇠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세암은 신라 선덕여왕 13년(647) 자장율사가 이곳에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관음암(觀音庵)'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창건했다고 한다.

포유류는 직접 목격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배설물이나 족적으로 서식여부를 확인하거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오세암 거사의 말을 빌리면, 오세암 맞은 편 만경대 암능지역에서 산양의 배설물이 자주 관찰된다고 한다.

설악산은 남한에서 산양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산양은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거의 변화하지 않은 채 태초의 원시적 형태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포유류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영시암에서 봉정암에 이르는 구간에서 관찰된 가을꽃으로는 만주송이풀, 구실바위취, 산부추, 산박하, 배초향, 오이풀, 꽃며느리밥풀꽃, 단풍취, 둥근이질풀, 승마, 칼잎용담, 진돌쩌귀 등이다. 이 구간에서 처음 나타나는 목본으로는 구상나무, 눈측백나무, 눈잣나무, 거제수 등이 손꼽힌다.

북방밑들이메뚜기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몸빛깔이 붉고 날개가 퇴화되고 없다는 점일 것이다. 또 이름이 암시하듯이 비교적 기온이 낮은 산악지역의 숲을 삶터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설악산에서는 등산로 주변 풀숲이나 키가 작은 관목지대에서 자주 관찰된다.

전생의 인연으로 순례한다는 봉정암(鳳頂庵)은 신라 선덕여왕 때인 643년에 자장율사가 당나라로부터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금란가사를 모셔와 봉안하면서 첫 적멸보궁이 되었다.



기와 대신 너와로 지붕을 올린 백담사 '농암당'.



눈잣나무군락.



산양. 촬영=박그림

봉정암이 자리한 곳은 해발 1244m로, 해발 1400m에 자리한 지리산 법계사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한국전쟁 때 피해를 당해 폐사되다시피 했던 것을 근래 정념스님이 원력을 세워 도량을 일신시켰다.

봉정암 주변과 대청봉 구간에서 보는 꽃 핀 초본들은 금강초롱, 투구꽃, 구절초, 당귀꽃, 산부추, 진돌쩌, 용담, 미역취, 산부추, 솔체꽃, 여로 등이다. 목본으로는 눈잣나무, 주목, 측백나무, 거제수나무, 구상나무, 덤불오리나무, 분비나무, 철쭉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대청봉 지역은 눈잣나무의 남쪽 한계 분포지이다. 눈잣나무는 키가 20m를 웃도는 다른 잣나무와는 달리 겨우 5m 정도에 못미치는 난장이 고산 수목이다. 눈보라가 매서운 고산지역에서 산다고, 또는 나무 모양이 누운 듯하다고 '눈잣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다. 대청봉 안부에 무리 지어 땅에 엎드린듯이 자라는 눈잣나무의 생태에서 생명에의 외경을 느끼게 된다.

내설악에는 알락그늘나비, 조흰뱀눈나비, 홍줄나비, 신선나비, 북방녹색부전나비 등 고산지역의 나비들이 출현한다. 이번 조사기간 동안에는 봉정암 주변에서 알락그늘나비와 조흰뱀눈나비가 관찰되었다.

설악산에는 여러 종류의 딱정벌레들이 서식하는데, 봉정암 경내에서 발견된 수염하늘소, 대청봉에서 관찰된 산길앞잡이, 백담계곡 길에서 관찰된 홍가슴풀색하늘소 등이 모두 딱정벌레에 속한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21세기 불교 위상 제고를 위한 중앙승가대학교의 발전 방향'

귀의 삼보하옵고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에서 모교의 발전방향 모색의 일환으로 '21세기 불교 위상 제고를 위한 중앙승가대학교의 발전 방향'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제방대덕스님과 불자님들께서 두루 참석하시어 21세기 불교발전 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 래

◆제 목 : '21세기 불교 위상 제고를 위한 중앙승가대학교의 발전 방향'
◆기조연설 : 종범스님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사 회 : 김상영 교수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제1주제 : '중앙승가대학교가 불교 현대화에 미친 영향'
발표 : 보각스님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미산스님 (중앙승가대학교 포교사회학과 교수)
제2주제 : '미래지향적 승가교육'
발표 : 유승무 교수 (중앙승가대학교 포교사회학과 교수) / 토론 : 윤원철 교수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제3주제 : '중앙승가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발표 : 김응철 교수 (중앙승가대학교 포교사회학과 교수) / 토론 : 지광스님 (능인선원 원장)

◆일 시 : 불기2550(2006)년 9월 26일 오후 2시
◆장 소 :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지하 2층) 국제공연장
◆주 최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신문, 법보신문, 주간불교
◆주 관 :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 총학생회, 대학원 동문회, 원우회, 교수협의회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 http://ob.sangha.ac.kr/ ☎ 02)922-7881, 929-7110 Fax 02)929-6919